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발표 (세미나)

입교에 관한 소고

김 윤 태 교무(원광여고)

I. 머리말

보름 전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통화할 수 있었다. 몇 년전 헤어질 때 순복음 신학대학에 재학중인 것만 알고 있었으므로 지금쯤 목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익산 순복음 교회 목사와 통화하여 연락 번호를 알 수 있었다.

익산 순복음 교회에서 안내해준 뽀뽀번호로 아침부터 몇 번을 호출해도 연락이 되지 않더니 오후 늦게야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반갑다는 인사와 호출을 받고 바로 연락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는데 ‘오늘은 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님 가정 심방이 있어서 쉽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통화도 잠시 뿐 지금은 아직 심방 중이므로 통화를 길게 할 수 없으니 심방이 끝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다시 온 것은 저녁 10시가 넘어서였다.

현재 그 친구는 안양에 있는 순복음 교회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교회의 신도가 10만명이 넘는 관계로 그의 일주일 일과는 주로 신도 가정에 심방을 다니는 일이 주된 일이라고 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접 신도의 가정과 가게, 직장 에 방문을 주로 하고, 토요일은 신도들의 애경사(결혼, 회갑 등)에 참여하며 일요일은 예배를 주관한다고 한다.

하루의 일과는 아침 9시까지 교회에 출근하여 심방을 시작하는데 마치는 시각은 보통 오후 8시 이후가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발로 뛰는 교화활동이었다. 나의 교화활동과 비교가 되어서, 이 때 떠오르는 느낌은 교화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기타 교재 개발 등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화자의 정성에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개발되어도 교화자가 활용하지 않고 정성이 부족하다면 교화 효과는 미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논문을 쓰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을 떠올린 곳은 기독교 서점이었다. 원불교 교화부가 먼저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서점이었다. 아직 역사가 짧은 우리 교단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기성종교에 더 많은 자료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독교 서점에 가서 느낀 점은 여러 방면으로 해석되고 연구되어진 전도 활동 서적들을 보고 한편으로 부러움이 일기도 하였지만, 달리 보면 개신교에서 발간되는 수많은 전도의 책자들은 그들의 열성의 결과로 판단되어졌다. 교화를 하는데는 무엇보다 교화자의 사명감이 우선되며, 또한 그 사명감을 교화현장에서 실현하는데는 정성과 열심이 우선되겠다는 간단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본 발표 내용을 정리하였다.

교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교 운동은 입교자를 많이 발굴해 내어 입교의 숫자를 최대화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향의 입교운동은 재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인연을 걸어 두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둔다’, ‘부처님의 법에 인연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 걸음 발전하여 ’구체적으로 원불교 신앙인‘을 만드는 차원으로 변화해야 하겠다.

지난 20년간(원기60년부터 80년까지) 교화부에 등록 입교자 수는 35만명이 넘고 있으나, 반면 교화단에 등록된 숫자는 20년 동안 2만명도 채 늘지 않았으며 법회 출석수는 1명정도 증가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단순한 산술 평가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종래의 입교 운동이 양적으로 많은 입교자를

발굴하는데는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질적으로 원불교 교도를 양성하는데는 재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효과라 본다. 뒤에 다시 분석하여 정리하겠지만 입교운동에 대한 방향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수년간의 통계를 이루어 볼 때 법회 출석의 순 원불교 교도 인원은 지금에 비해 크게 변호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본 발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교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입교운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교운동의 방향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연원지도에 대한 신앙적 해석의 필요

입교 운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교의 바탕이 되는 연원지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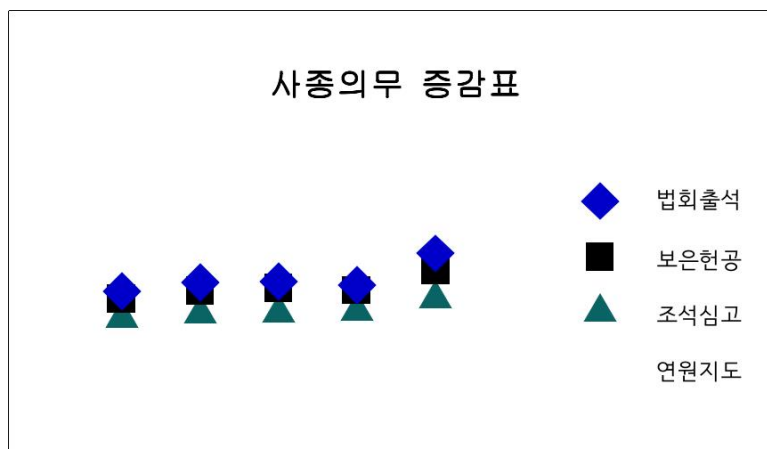
최근 5년간의 교도 사종의무 실행 결과를 보면 법회출석, 보은헌공, 조석심고 등의 의무이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법회출석	18,505	20,394	20,646	19,811	26,587
보은헌공	17,021	18,616	19,200	18,689	22,921
조석심고	12,859	13,756	13,958	14,335	16,849
연원지도	7,351	5,358	5,473	5,055	4,301

행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유독 연원지도만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원기 76년 ~ 80년 교도 사종의무 이행 현황

(자료근거: 교화상황보고서)



이것은 연원지도에 대한 교도의 관심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른 4종의 무에 비해, 연원지도의 의무가 교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연원 지도에 대한 신앙성을 정립하는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1. 연원의 정의

연원의 사전상 의미는 근원(根源) . 본원(本源)이다. 그러나 원불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도를 이끌 때 이끄는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끌어 주는 사람을 淵源이라 한다.

원기 53년 개정된 교헌 86조를 보면 [교도간 인도의 특연이 있는 사람을 淵源이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정신개벽의 마음공부를 하도록 이끌어 준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연원의 구분

연원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1) 입교연원 2)출가연원 3) 성불연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入教淵源

입교는 원불교에 인연을 걸고 원불교 교도가 되는 것, 연원에 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입교원서를 제출하고 법명을 받음으로서 교도가 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입교의 의미는 단순히 원불교에 다니기로 뜻을 세우거나 약속을 하여 절차를 밟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입교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것은 인연에 관한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이 세상에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하나는 육도의 수많은 기에 사람의 몸을 받는 일이며, 그 둘은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온전한 몸이 되기가 어려운 일이며, 그 셋은 두 가지 사항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하였다.

위의 세가지 어려움을 삼난(三難)이라 하는데 입교는 마지막으로 불법과 인연이 맺었 비로소 삼난을 돌파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산 상사님께서도 “佛門에 들어 보통급을 받는 일은 불지출발(佛智出發)이며 제일 다행한 일이라 하였고, 대각 여래위가 중요한 만큼 불문에 처음 들어온 것도 중요하다”하여 불법에 입문하게 됨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입교 연원은 바로 三難을 돌파하도록 도와주고, 불문에 들어 여래위에 오르는 길을 가도록 이끌어 준 입교의 근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2) 出家淵源

출가의 뜻은 집을 벗어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옛부터 행하여진 것으로 해탈(解脫)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조용한 산림한처(山林閑處)에서 수행하였는데, 불교에서도 석가여래 이후 이 풍속에 따라 출가하여 불도(佛道)를 수행하였다.

이후 불교교단이 이러한 출가자 중심으로 조직되어 교단이 확대함에 따라 승려가 되는 것을 출가라 이름하게 되었다. 즉, 출가는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건지기 위하여 가정을 떠나는 것을 말하며,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정을 떠나서 구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몸과 마음을 이 세상을 위해 바치므로써 자기 가정의 국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또한 마음이 세속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교역자(전무출신)가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출가연원은 원불교 교역자(전무출신)가 될 수 있도록 근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成佛淵源

삼학 수도를 일심으로 하고 줄맞은 수행으로 성불 득도를 하여주도록 이끌어 준 것을 말한다.

3. 연원지도의 공덕

공덕을 짓는 데에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공덕(心功德)이라,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요,

둘째는 행공덕(行功德)이니, 자기의 육근 작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함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셋째는 법공덕(法功德)이니, 대도 정법의 해명을 이어 받아 그 법륜을 시방 삼세에 널리 굴리며,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 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공덕이 가장 근본 되는 공덕이니라. 세상의 많은 공덕 중에 정법의 법을 전하는 공덕 즉 연원지도의 공덕이 근본 되는 공덕이 된다. 대산 상사님의 법문에 의거 세분하여 정리하면

1) 法器를 얻는 길이 된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 볼 수 있다.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1장을 참조하면 연원 의무에 대한 말씀 중 연원지도의 공덕으로 “아홉 사람 이상을 인도하여

① 끝까지 연원된 인연과 의리를 가지고 공부 사업간에 공덕이 미치도록 권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도 창립의 훌륭한 사업이며,

② 그 중에서 거룩한 성자나 훌륭한 사업가가 생겨난다면 그 연원 되는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비유하리요’ 라 밝혀 주었다.

위의 법문에 의하여 법기를 얻는다는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원불교 법을 반갑게 받들어 공부와 사업간에 공덕을 미치는 교도를 얻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둘째, 입교자 중에서 거룩한 성자나 훌륭한 사업가 즉 세상과 교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얻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연원지도는 교단의 최고 자산인 교도를 얻는 길이 되며, 교단을 위해 일할 인재 얻는 바탕이 된다.

2) 중생제도의 손길을 뺏는 길이 된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하였다.

연원지도는 중생을 건지는 일의 처음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연원지도의 공덕은 입교자에게 정법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일로서 중생제도의 첫걸음이 되나.

대종사님께서도 ‘부처님의 정법에 인연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입교를 하지 않고 열반에 든 자를 입교시키시며 “우리 회상과 인연을 더욱 두텁게 하자”고 말씀하시며 직접 법명을 지어 주시고 입교금을 챙겨 주시며 입교정차를 밝도록 하신 정산종사님의 자비행도 그런 연유에서 일 것이다.

연원지도는 입교자에게 정법과 인연을 맺게 해 주는 것으로 중생제도의 시작이 연원지도에서 바탕이 된다 할 수 있다.

3) 三世因緣에 보은하는 길이 된다.

삼세의 수많은 인연들에게 보은하는 일 중 가장 근본 되는 보은은 무엇일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법에 제도의 연을 맺어주는 일만큼 우선되고 근본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도정법의 큰 스승님을 만난 다행함을 정산종사님은 “스승님이 아니시면 부유같은 이 중생으로서 어찌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었사오며, 주객을 구분하지 못하던 이 우자로서 어찌 죄복의 근원을 알 수 있었사오며,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어찌 정당한 니도를 깨칠 수 있었사오며, 끝없는 이 미륵(迷淪)에서 어찌 성불의 길을 감히 바랄 수 있었사오리까” 라고 말씀하였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 있는 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없으며, 죄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여 항상 죄업을 쌓는 생활을 하게 되며, 정당한 인도를 깨치지 못하여 항상 샷되고 허망한 데에 끌려 살게 되며, 진리를 깨달고 나아가 성불의 길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정을 다 가르쳐 주고 천만 가지 선(善)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고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하였고,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신 나게 하는 것이 첫째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하였다. 또한 중생들이 철없이 짓는 죄업 가운데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대중의 앞에 나서서 여러 사람의 정신을 그릇 인도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인과를 믿지 아니하게 하여 선한 업 짓는 것을 방해하

는 일 이 삼악도를 벗어나지 못할 가장 무서운 죄업이 된다” 함도 같은 맥락의 말씀일 할 수 있다.

진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생활조차 함부로 하게 되며, 인생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행자지의 생활도 거리낌없이 하게 된다. 진리를 깨닫고 정법에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우선되고 큰 일이 되며,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과 제도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 큰 일이 된다.

삼세인연에 가장 큰 보은을 하는 것은 정법에 연원 하여 바른 삶을 살게 그들은 인도하는 것보다 큰 일은 없다.

4) 한없는 未來世를 通하여 스스로를 구하여줄 인연을 맺는 길이 된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가,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에 변함없는 상도(常道)니라” 인과보응의 이치에 바탕 하여 연원지도의 결과는 현재의 나의 연원자들이 나를 다시 정법에 연원 해주는 인연들이 되어 주므로 결국 한없는 미래세에 나를 구하여 줄 인연을 맺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 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요”(정전 부모보은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관계로 연원지도자와 연원자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나의 연원지도는 타인을 구원함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결국 나를 인도해 줄 인연을 맺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 다른 면으로 “소중한 因緣에 두 가지가 있나니 血緣과 法緣이라, 血緣은 육친의 가족이요 法緣은 법의 가족이니, 血緣과 法緣이 다 소중하기는 하나 영생을 통하여 불 때에는 血緣보다 法緣이 더 소중하나니라” 하여 법연의 소중함을 강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원지도의 공덕은 영생을 함께 할 인연을 얻는 길이 되므로 미래를 열어 가는 소중한 길이 된다.

5) 연원지도는 根源를 하나로 하여 十方一家, 四生一身의 地上樂園을 建設하게 하는 데에도 요긴한 指導法이 된다.

원불교 개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判官고해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종교일지라도 이를 믿고 따르는 인적 자원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건물이나 토지나 금전 등이 사업을 하여 나가는 데 자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한 한 사용물이요, 오직 사업의 근본적 자본은 그 사업의 주인인 사람이며 그들의 알뜰한 정신이니라”

연원지도는 사업의 근본적 자본인 사람 즉 교도를 얻는 길이 되므로 이는 같은 종교적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 된다.

또한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교단의 조직은 십인 일단의 단 조직이다.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나니, 주의는 일원주의요, 제도는 공화제도요, 조직은 십인 일단의 조직이니라. 대중사 앞으로 시방 세계(十方世界)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십인 일단(十人一團)의 단 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일원주의에 바탕하여 십인 일단의 교화단 조직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목표라면 결국 연원지도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을 마련하는 큰 일이 되는 것

이다. 다시 “앞으로 그대들도 한 사람이 구인 이상을 인도하여 이 방식으로 이 법을 포양한다면 미구한 장래에 이 도덕이 천하에 편만하리라”하시고 「그것은 마치 한 근원의 물줄기를 사방팔방에 끌어대어 만생이 고루 은혜를 입게 함과 같다는 의미로써 이를 연원 의무라

이름하사 여러 방면으로 그 실행을 권장하셨나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원지도는 한 스승의 가르침(일원주의) 즉, 한 근원의 물이며, 사업 역량의 비례에 따라 낙원건설을 위한 울의 목표도 또한 비례할 것이다.

4. 입교의 신앙적 의미

1) 신앙적 의미 정립의 필요

연원지도의 신앙적 의미를 살피기 전에 입교와 세계의 의미를 비교하여 ‘세례를 받는다’와 입교를 한다는 말 중 어느 것에 더 신앙성이 느껴지는지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입교에 대한 설명을 보자.

득도라 함은, 세상에서 보통 생활을 하다가 법문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제도를 얻게 된다는 뜻으로, 입교와 출가의 두 가지가 있는 바, 입교는 처음으로 들어와 교도가 되는 것이다. 반면 세례는 물과 신의 이름으로 원죄(原罪)와 본인이 지은 罪의 모든 형벌을 용서하고, 세례 받는 사람을 신과 교회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에 의한 중생(重生), 영생(永生)에의 참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 교회에 대한 의무의 이행, 은혜를 받을 자격 등을 획득하게 된다.

위의 설명만 가지고 득도와 세례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 교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입교의 의미를 살펴보면 입교에 대한 신앙적 설명이 더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교화부에서 낸 신입교도 훈련 교재를 보면 입교란 [원불교에 다니기로 뜻을 세우거나 약속을 하고 그 절차를 밟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입교자는 입교원서를 제출하고 입교식을 통하여 법명을 받음으로서 교도가 된다.]로 되어 있다.

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신앙적인 면 즉, 세상에서 보통 생활을 하다가 법문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제도를 구하는 득도의 의미보다는 원불교에 입문하는 것이 더 강조된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입교에 대한 시각은 연원지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져 연원지도를 하는 것이 입교를 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상대방을 부처님의 법문에 귀의시킨다는 신앙적 의미보다는 원불교라는 종교를 권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원지도에 대한 신앙적 느낌이 부족하므로 연원지도에 대한 사명감이 우려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연원지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교호연구소에서 평가한 원불교 재가교도 생활태도 분석자료를 참고하면 [원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훌륭하다] 혹은 [원불교인이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은 80~90%에 도달한 반면 [남에게 원불교를 자랑하거나 권한다]는 비율이 낮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원불교에 심취하지만 남에게 권하는 데에는 무언가 망설임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의 전도해야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하여 보면

- ①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 전도해야 함
- ②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함
- ③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시기에 그 명령에 순복함으로 전도해야 함
- ④전도는 지상 최대의 영광스러운 일이기때문에 감사함으로 전도해야 함
- ⑤우리를 요청하는 지옥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에 전도해야 함

- ⑥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전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함
- ⑦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 ⑧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이들을 책임완수하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함
- ⑨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에 대해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여 주셨기에 핑계치 못할 것이므로 전도해야 함

⑩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겠기에 전도해야 함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열매)

⑪내 자신의 영혼과 장차 거하게 될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도 전도해야 함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의 영혼은 더 많은 주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므로)

⑫지금 이 추수할 때이기에 부지런히 전도해야 함
(주님께서 뿌려놓은 곡식의 열매)

전도의 목적이 기독교 교회에 입문하는 쪽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신앙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종교 활동이 교법이나 신앙, 수행에 바탕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특히 연원지도의 방향은 신앙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여야 연원자도 신앙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입교자도 쉽게 원불교에 접근하리라 본다.

2) 연원지도의 신앙적 의미

가. 입교자의 입장

입교자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정법과의 인연

입교자에게 정법과 인연을 맺게 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부처님 말씀에 “이 세상에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하나는 육도의 수많은 기에 사람의 몸을 받는 일이며, 그 둘은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온전한 몸이 되기가 어려운 일이며, 그 셋은 두 가지 사항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하였다.

위의 세 가지 어려움을 삼난(三難)이라 하는데 입교는 마지막으로 불법과 인연이 맺어져 비로소 삼난을 돌파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불법에 인연하는 일이 바로 입교의 의미입니다.

대산 상사님께서도 “불문에 들어 보통급을 받는 일은 불지불발이며 제일 다행한 일이라 하였고, 대각여래위를 중하게 여기는 만큼 불문에 처음 들어온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입교 연원은 바로 三難을 돌파하도록 도와주고, 불문에 들어 여래위에 오르는 길을 가도록 이끌어 준 입교의 근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② 영생의 인연을 만남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8장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소중한 인연이 두 가지 있나니 血緣과 法緣이라, 血緣은 육친의 가족이요 法緣은 법의 가족이니, 血緣과 法緣이 다 소중한기는 하나 영생을 통하여 볼 때에는 血緣보다 法緣이 더 소중한나니라” 하였다. 입교는 새로운 인연, 즉 세상을 위하는 마음과 진리를 함께 배우는 동지로서의 인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③ 범명수여와 새 삶의 시작

원불교에 입교를 하여 교도가 되면 교단에서는 입교자에게 범명을 수여한다. 범명이 처음 주어지기는 원기 4년 8월 21일 법인성사 때의 일이다. 대종사님은 九人弟子들의 생사를 초월한 지극한 정성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중략, 법호와 범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임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公名)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라.”에서 연유한다.

법명을 주는 의미는 개인적 삶에서 벗어나 이 세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입교자는 개인의 이름이 아님 세계 공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2)연원지도자의 입장

①중생제도의 손길을 뻗는 길이 된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고,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하였다.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연원지도의 공덕은 입교자에게 정법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일로서 중생제도의 첫걸음이 된다.

대중사님께서도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 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한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하여 정법에 인연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연원지도는 입교자에게 정법과 인연을 맺게 해 주는 것으로 중생제도의 첫 걸음이며, 이 법을 전하는 공덕이 근본 되는 공덕이 되기도 한다.

②三世因緣에 보은하는 길이 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람에게 정법과 인연을 맺게 하여 제도의 문에 들게 하는 일처럼 우선되고 근본 되는 일은 없다. 때문에 대중사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 주고 천만 가지 선(善)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하였고,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 나게 하는 것이 첫째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도록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우선되고 큰 일이 되며, 사람들에게 제도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 근본 되는 공덕이 된다. 삼세 인연에 가장 큰 보은을 하는 것은 정법에 연원 하여 바른 삶을 살게 그들은 인도하는 것보다 큰 일은 없다.

③한없는 未來世를 통하여 스스로를 구하여줄 인연을 맺는 길이 된다.

인과보응의 이치에 바탕 한다면 현재의 연원지도는 결과적으로 한없는 미래세에 나의 나를 연원 해 줄 인연을 얻는다 할 수 있다. 또한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 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연원지도의 결과도 세세 생생 거래간에 나를 정법에 인도해 인연들과 인연을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나의 연원지도는 타인을 구원함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결국 나를 인도해 줄 인연을 맺는 결과이기도 하다.

④영생에 필요한 법연을 맺는 길이 된다.

연원지도는 영생을 통하여 불 때에는 血緣보다 더 소중한 法緣과 인연을 맺는 길이 된다. 일시적인 사업이나 이해만으로 맺어진 인연은 풀어지기 쉬우나, 공부하는 동지라야 영겁의 동지가 된다. 연원지도의 공덕은 영생을 함께 하며 정법 수행을 같이 할 인연을 얻는 길이 되므로 미래의 앞길을 열어 가는 소중한 길이 된다.

⑤가장 근본 되는 공덕을 얻는 길이 된다.

공덕을 짓는 데는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공덕(心空德)이요, 둘은 행공덕(行功德)이요, 셋은 법공덕(法功德)이다. 법공덕은 대도 정법의 해명을 이어 받아 그 법륜을 시방 삼세에 널리 굴리며,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 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법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다.

3)교단적 입장

가. 교단의 자산을 얻는 길이 된다.

정산중사범어 공도편 11장을 참조하면 “아홉 사람 이상을 인도하여

① 끝까지 연원된 인연과 의리를 가지고 공부 사업간에 공덕이 미치도록 권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도 창립의 훌륭한 사업이며,

② 그 중에서 거룩한 성자나 훌륭한 사업가가 생겨난다면 그 연원 되는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비유하리요” 하였다

즉, 연원지도의 결과는

첫째, “연원자로 하여금 공부와 사업에 공덕이 미치도록 한다면 이것이 대도 창립의 사업이 된다.” 는 것으로 이는 원불교 법을 반갑게 받들어 공부와 사업간에 공덕을 미치는 교도를 발굴하는 것이 대도 창립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입교자 중에서 거룩한 성자나 훌륭한 사업가 생겨난다면 그 공덕이 크다” 하였으니 이는 세상과 교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얻는 것이 또한 대도 창립의 사업이 된다는 의미이다. 연원지도는 교단의 최고 자산인 교도를 얻는 길이 되며, 교단을 위해 일할 인재를 얻는 바탕이 된다.

나. 地上樂園을 建設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일이다.

연원지도가 낙원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는 것은 첫째 교단의 자산인 교도와 인재를 얻는 길이 되며, 둘째는 고통에서 해매는 수많은 인류를 정법에 들게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III. 연원지도의 방향 모색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원광여고에서 올해 입교한 학생은 1학년 28명, 2학년 13명, 3학년 1명으로 42명이다. 이 중 원광여고 법당을 통하여 입교한 학생을 25명, 본교 선생님이 출석하는 교당으로 입교한 학생은 17명이다.

법당에서 입교하는 학생들은 1차로 법회에 참석해 보고 또한 법당교무인 본인과 면담을 하여 입교하는 관계로 학생회 명부에 등록되고 법회출석 및 활동에 참여한다. 반면 본교 선생님을 통하여 교당으로 입교한 학생들은 교당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입교를 시킨 선생님도 관리를 못하여 법회 및 기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교시킨 교당에서 학교 법당 교무인 본인에게 연락이 없고, 입교시킨 선생님도 본인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 결국 입교자들이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편으로 본교 법당에서도 학생 입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입교자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선생님을 통하여 교당에 입교한 학생들이 법당학생들에게 다시 인도되어 중복 입교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을 통해 입교하여 법명 받는 것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현상이 현재 진행되는 입교운동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하겠다.

교단 통계에 따르면 원기 81년도까지 입교자 수는 541,192이다. 반면 교당에서 교도활동을 하는 교화단원의 수는 46,812명이고, 법회 출석 평균수는 31,917명이다. 전체 입교자 중 10%에도 못 미치는 입교자만 교도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결과들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교 후 입교자에 대한 관리가 없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본 연구는 그 방안으로 연원지도에 초점을 맞춰 입교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1. 사종의무에서의 연원지도 방향

교도 사종의무는 원불교 교헌 제 2장 교단과교도 제 16조의 기본의무, 권리의 장에 명시되어 있다. 사종의무는 첫째 조석심고의 의무, 둘째 법회출석의 의무, 셋째 보은헌공의 의무,

넷째 입교연원의 의무이다. 의무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 강제 및 구속이라 정의하고 있다.

의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것은 도덕상의 의무와 법률상의 의무로 구분한다. 도덕상의 의무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규범을 스스로 지켜 가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의 의무는 권리의 반대 개념으로 법률상의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 할 수 있다. 즉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작위(作爲)의 의무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不作爲)의 의무로서 의무의 실행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을 갖는 의무이다.

교도 사종의무에서의 의무의 의무는 법적 책임을 묻는 법률상의 의무보다 스스로 지켜 가는 도덕상의 의무로 보아야 한다. 이는 종교가 개인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지만 종교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불교 교화 주무부서인 교화부에서는 사종의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교도 사종의무란 교도가 된 이상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될 네 가지 준칙으로써 조석심고, 법회출석, 보은헌공, 입교연원의 의무를 말하는데 이는 대중사님의 포부요, 경륜인 동시에 원불교의 궁극 목표인 일체 생명의 구원과 제생의세의 대업을 성취하는데 교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다.

조석심고의 의무는 원불교 신앙의 가장 기초이며 기본이 되는 신앙행위로서 이는 우리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사은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보은의 정성을 올림으로써 사은과 윤기가 건네게 하고 삼세의 부처님과 부모님과 기운을 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법회출석의 의무는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특수한 날이니 만큼 법회 날 하루동안은 세간의 모든 번잡한 일을 쉬고 오직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이 법회를 통하여 마음공부를 하고 교리를 훈련하며 신앙과 수행생활을 이끌어 가자는 것이다.

보은헌공의 의미는 우리의 생존(生存)에 없어서는 안될 사은의 지중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정신과 육신과 물질로 정성을 모아 공익사업에 헌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푸는 사은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만 분의 일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이다. 입교연원의 의무는 원불교 교도는 누구나 이 법을 받아 믿고 수행하며 거듭 태어나야 함은 물론 이를 널리 전하여 다함께 제도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9인 이상 연원을 달아 교화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대중사께서는 일찍이 이 입교 연원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화단 조직법을 제정하시어 시방 세계(時方世界)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구원하시고자 하였다.

위의 사종의무에 대한 설명은 그 실행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 근원을 진리에 바탕 하여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도 사종의무는 의무이해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종교의 권위로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종의무 실행이 진리적으로 왜 필요하며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방향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지도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종의무의 실행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같은 의미로 해야 한다.

2. 보통급 수여에 따른 연원지도 방향

원불교에 입교원서를 제출하고 범명을 받으면 교도가 되고, 교도가 되면 원불교 교도로서 범위를 받게 되는 데 이 때 받는 범위가 보통급이다.

보통급은 유무식 · 남녀 · 노소 · 선악 ·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십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다.(정전 범위등급) 입교만 하면 보통급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 되지만 「법문에 불문에 귀의하여」라고 한 부문에 의거하여 입교를 하면 당연히 보통 급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예전의 입교식순에 교도증 수여, 교강설명

그리고 계문수여가 있으므로 입교 자는 당연히 보통급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범위표준에 보통급은 불지 출발(佛智出發)이며 탁근(托根)이라 하였다. 탁근은 입교자가 원불교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입교 자에게 우선되는 것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화상황을 보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입교자 중 90%정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중도에서 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입자(입교자)의 경우는 원불교의 교리나 의식(儀式), 기타 대인관계에 낯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미련 없이 그만두기가 쉽고 오히려 원불교에 대한 편견을 갖고 나가게도 된다.

교화연구소에서 작성한 원불교 재가교도 생활 태도 조사 분석자료를 보더라도 82%의 교도들이 「원불교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반면 5%의 교도들은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교도들도 13%에 달하였다. 특히, 교당에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원불교 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가 약한 입교자가 쉽게 탁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비하자면 농사를 짓는데 어린 쌀에 더 많은 정성과 손길이 있어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개신교의 전도 단계를 참조하면 전도의 의미는 불신자를 교회에 인도하는 것과 더불어 믿음이 서도록 지도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양육이라 하여 초입자들을 교육하는데 주된 내용은

1) 믿음과 관계 있는 성경 읽기를 권하고

2) 기도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3) 믿음이 설 때까지 예배활동을 같이하며

4) 교회의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신도들과 친교 하도록 하며

5)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증거 하게 하는 등의 교육을 한다. 그런데 그 교육의 주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도자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교단의 입교 운동을 분석해 보면 주로 비 교도를 입교시키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고 입교후의 관리는 소홀히 하거나 아예 교무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입자(입교자)의 경우 교당활동에 참여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교무나 기타 교당의 요인들이 아니라 연원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연원지도의 방향이 입교시키는 것과 더불어 입교후 입교자가 탁근이 될 때까지 연원이 되어주는 내용으로 방향이 정립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하겠다.

정산종사법어에 “연원을 많이 다는 것이 제도의 한 방법이 되기는 하나, 별제위명으로 입교만 시키는 것은 참 제도가 아니요, 신심이 확실히 설 때까지 자주 보살피 주어야 참 제도를 받게 되나니, 이왕에 입교의 연원이 되었거든 제도를 받도록 꾸준히 공을 들여 참다운 연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연원지도의 방향을 입교 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화상황과 입교운동 방향

구인 이상의 동지를 이 회상에 인도하여 대중사의 법은에 다 같이 목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인들의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니, 대중사께서 처음 회상 문을 여실 적에 먼저 구인 동지를 얻으사 모든 기초를 닦으신 다음 “앞으로 그대들도 매인 아래 구인 이상을 인도하여 이 방식으로 이 법을 포양 한다면 미구한 장래에 이 도덕이 천하에 편만하리라” 하시고 그것이 마치 한 근원의 물줄기를 사방팔방에 끌어대어 만생이 고루 은혜를 입게 함과 같다는 의미로써 이를 연원 의무라 이름하사 여러 방면으로 그 실행을 권장하셨나니라.

대중사님께서 처음 교문을 연 이래 연원지도 운동을 꾸준히 교단의 현안문제로 자리잡아왔다. 그 노력의 결과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원불교는 한국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두드러진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원불교 교정원에서 발표한 원기 81년도 교단 현황에서는 원불교 교도수를 541,192명, 신도수를 735,415명으로 원불교를 신봉하는 신도수를 1,236,607명으로 발표하였다. 교단에서 발표한 통계와 국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도의 숫자가 무려 1,400%정도 차이가 나는 상이한 발표였다. 본인은 위의 두 가지 통계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통계의 차이만큼 교화의 공백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원기 9년 창립총회 당시 약 150명이었던 교도의 숫자는 원기 38년 1대말 통계에서는 약 32,300명으로 늘었고 원기 55년(반 백년 기념대회)의 교화 상황은 약 86,000명이었다(신도수는 60만으로 발표). 위의 86,000명의 교도 숫자는 원기 55년까지 입교한 숫자로 파악되는데 이후에도 연원지도는 계속되어 30여 년이 채 안 되는 원기 81년 결산 결과는 541,192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입교숫자가 느는 만큼 원불교 교도의 수도 늘어나야 됴에도 교당에서 교도로 활동하는 교도의 수는 전체 입교수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입교자만 계속하여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표1>과 <표2>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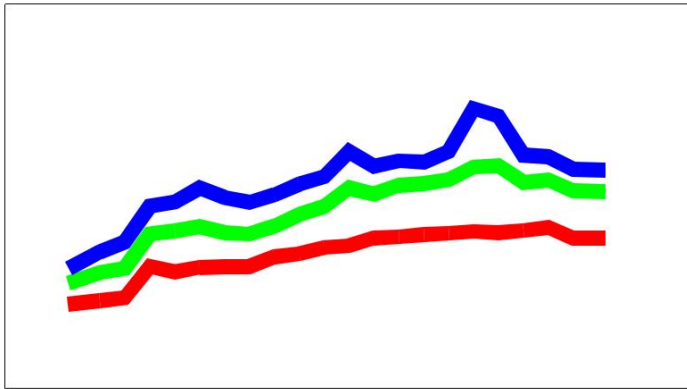
원기 59년부터 원기 70년까지 교호단원의 연도별 교화 단원의 수와 법회 출석수를 보면 적게나마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기 71년부터 원기 80년의 상황을 보면 교화단원의 숫자나 법회출석의 숫자는 10년간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0년 전의 교화 상황이나 10년이 지난 현재의 교화상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입교숫자는 170,235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매년 17,000여명의 새로운 입교자가 교단에 들어왔으나 교도의 숫자는 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입교자가 교도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입교자로만 남아있다는 것이 된다.

이 교화상황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입교운동을 분석한다면 그 동안의 입교운동은 입교자는 많이 발굴하였으나 입교자를 교도로 만들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평균
교화 단원	14,930	16,475	18,237	35,569	32,529	35,103	35,362	35,641	40,989	42,777	46,338	47,188	
법회 출석	12,735	15,755	16,414	18,304	23,035	22,741	19,202	18,055	17,044	21,897	22,673	32,270	20,404
입교 수	8,670	11,570	14,574	15,371	16,054	21,523	19,623	17,712	17,533	16,894	16,650	20,224	196,398

<표1~2> 원기 59년에서 80년까지 법회출석 및 입교수

<표3> 원기 59년에서 80년까지 법회출석 및 입교 증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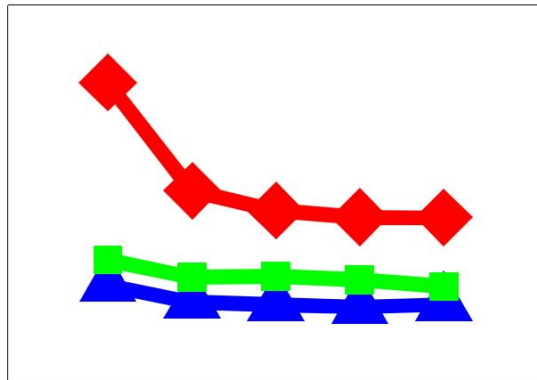


교도를 양성하지 못하는 입교운동은 적잖은 문제가 있다. 결국 지금의 방향으로 입교운동이 지속된다해도 10

년 후의 우리 교단의 교화 상황도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입교 운동에 변화를 주어야 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대두되어야 한다. 입교자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이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입교운동의 방향이 개선되고, 교화 방향이 집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입교운동의 과정을 보면 입교 후 관리(입교자 교육)는 매우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표4>연원지도 및 입교식 대상자 현황

입교수
연원지도
입교식 대상



80년	평균
12,170	
4,301	
2,24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평균
교화단원	51,493	52,164	53,379	54,216	55,190	54,501	55,634	57,366	51,540	51,567	
범회출석	24,605	28,816	28,612	29,752	35,967	37,509	26,954	26,541	26,255	25,925	29,093
입교수	15,271	13,735	12,066	16,075	32,762	27,662	15,274	12,990	12,230	12,170	170,235

위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입교수의 20% 미만만이 입교식을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입교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면으로 신입교도 훈련을 받는 입

교자가 거의 없다는 것(사업보고서 참조 연간 300명 미만)은 입교후의 입교자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입교 후의 관리가 없이 입교자를 교도 사종의무를 실행하는 입교자로 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연원지도의 방향은 이제 발굴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발굴에만 중점을 두었던 입교운동에서 발굴과 입교 후 관리까지도 염두에 둔 입교운동으로 전환을 해야 하겠다.

4. 종합정리

정산중사님께서 쓰신 불법연구회 창건사 제 1회 기념의 당년 회세를 보면 “회원은 영광·익산·경성·김제·진안·부안 등 각지를 합하여 총수가 438인중 남자로 176이요 여자로 262인바 열반 회원 10인과 탈퇴 회원 55인을 제하니 현존 실수가 373인이 되다.”로 되어 있다. 전체 교도 수를 관리하는 데 열반 회원과 탈퇴 회원을 분류하여 실제 교도 수를 정확히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아 교도의 관리가 철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도의 관리가 철저하였다면 이는 입교자 일지라도 탈퇴하면 교도로 분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결국 교도의 구분을 정확히 하여 활동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교도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입교자의 90% 정도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상인데도 관리되지 않는 입교자들을 아직도 교도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당시의 교단 상황과 원기 82년의 교단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교도의 관리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결론으로 연원지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정하여 입교운동이 지속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그 방향으로

첫째, 연원지도의 의무를 진리적 면에 더 중점을 두어 교도들에게 교육되어져야 하겠고,
둘째, 입교자가 탁근이 될 때까지 연원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되어져야 하겠으며,
셋째, 교단의 입장에서도 입교 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신입교도 훈련, 입교식 등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입교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IV. 연원지도의 과제

1. 교도들의 연원지도에 대한 사명감을 어떻게 불러 일으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 ① 연원지도에 대한 신앙적 지도 방안이 필요
- ② 연원지도를 계획적으로 실행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

2. 비교도를 위한 교화 계획의 과제

- ① 비교도에 맞는 교화 상품의 개발이 필요
- ② 다양한 교도 관리 방법의 개발이 필요

3. 입교 후 관리에 대한 과제

- ① 탁근을 위한 방안이 필요
- ② 입교자를 위한 순교 방법의 개발이 필요
- ③ 다양한 교도 관리 방법의 개발이 필요

4. 제도문의 영역확대에 대한 과제

일반적으로 원불교에 입교하여 교도가 되면 교도의 사종의무를 실행하게 되어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교단에서 관리하는 교도도 교도의무를 실행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눈을 돌려 밖을 보면 본인들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의 어려움에 따라 교도로서 활동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우리가 교도의 의무 이행자만을 교도로써 고집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불교 교도를 모두 훌륭한 종교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정법과의 인연만이라도 끊이지 않게 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도 같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교도와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가장 마음 아팠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술집에서 옆에 앉은 아가씨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다면서 울먹이며 원불교 교가를 부를 때였다는 것이다. 제도의 문을 넓힌다는 것은 신심이 돈독한 원불교만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도 원불교의 교법이 전해지도록 교문을 넓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의 문도 크게 열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옛날 우리의 할머니들은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절에 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처님이 자리하였고, 어렵고 힘들 때는 부처님을 찾았다.

매주 법회에 참석하고 교당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못할 사람들에게도 어렵고 힘들 때 법신불 진리를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다. 선방위로 나아가는 새도 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제도를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처한 상황이 종교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도의 문까지 멀리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 제도 문을 크게 넓히어 누구에게든지 언젠가는 교당을 찾으리라는 희망만이라도 놓지 않고 살도록 하며 언제든지 법신불 진리 앞에 다가서면 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본 프로그램은 본인이 교당 청년회 연간 계획의 교화법회에 제시하였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V. 프로그램 실제

본 프로그램은 본인이 교당 청년회 연간 계획의 교화법회에 제시하였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1.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①적극성

적극성은 「교도들을 어떻게 연원지도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으로 연원지도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교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하도록 한다.

②책임감

책임감은 「본인이 작성한 연원지도 계획안을 달성하도록 하는 책임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방안으로 교화비(5,000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한다.

③ 계획성

계획성은 「연원지도를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원지도를 위한 개인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④지속성

지속성은 「연원지도가 될 때까지 지속적 관심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교화단을 통하여 개인별 계획의 실천 과정을 점검하도록 한다.

2. 운영 방향

①입교운동 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한다. 기간은 3개월을 기준 한다.

(첫단회: 교화계획작성, 둘째·셋째 단회: 교화계획점검)

②교화단을 통하여 진행한다.

③1인 1교화를 기본으로 한다.

④입교운동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진행한다.

⑤개인별 교화비를 교당에서 지급한다.

⑥입교운동 기간에 입교한 교도들은 신입교도훈련과 입교식을 통하여 마무리한다.

3. 진행방법

■ 프로그램명

나는 이 사람을 교화한다.

■ 목적

교도로 하여금 교화대상자를 구체적 정하여 계획적으로 연원지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

①연원지도의 신앙적 의미를 지도하고 모두 동참하도록 권유한다.

②프로그램 진행시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한다. 너무 엄숙하게 진행하여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단별로 둥그렇게 앉아 진행자(교무)의 설명을 들으며 작성한다.

④개인별 교화 계획 작성이 끝나면 단원별로 돌아가며 서로 발표하게 하고 느낌발표 및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⑤입교를 위한 기도를 진행한 후 교화비를 지급한다.

(교화비를 불전에 올려놓았다가 기도 후 개인별로 가져가도록 한다.)

⑥개인별 교화 계획안은 단 모임 후 진행자(교무)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⑦두 명 이상을 교화하고자 하는 교도는 각각의 종이에 교화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⑧각 단별 교화 계획은 법회지에 실어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도록 한다. 법회지가 없는 경우는 법회를 통하여 단별 계획을 발표한다.

■ 진행양식의 예 : 나는 이 사람을 교화한다.

(나머지 빈칸은 교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름	성별	나이
특성 파악	*그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	
	*그의 취미는 무엇인가?	
	*그의 성격은 어떤가?	
	*그의 가정사항은?	
	*그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가?	
	*그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상황 파악	*교화시 주요 공략 사항	
	*피해야 할 사항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점	
나의교화 계획		
필요 예산		

■ 식 순(첫단회)

*사회는 단장이 하고, 프로그램 진행은 교무가 한다.

*식순은 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진행한다.

1.경중 10타

2. 개식

3.입정

4.영주

5.기원문

6.독경(일원상서원문)

7.법어합독(정산중사법어 무본편 18장)

8.성가

9.설교(법어봉독을 요약하여 법공덕의 중요함과 연원지도의 신앙적 의미를 설명한다.)

10.개인교화 계획 작성

①‘나는 이 사람을 교화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②좌석배치 : 단별로 둥그렇게 앉는다.

③‘나는 이 사람을 교화한다.’ 진행용 유인물을 나눈다.

④유인물을 설명하며 각자의 교화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도록 한다.)

⑤개인별 목표는 한사람 이상으로 하고, 두 사람 이상이면 진행용 유인물을 따로 작성하게 한다.

⑥개인별 전략이 완성되면 단원상호간 돌아가며 발표하도록 한다.

⑦개인별 목표에 맞추어 단별 교화목표도 정한다.

⑧개인별로 작성한 교화 계획은 진행자에게 제출한다.

11.목상심고(입교를 위한 다짐)

12.불전에 올라 교화비를 나눈다.

12.폐식

■ 식 순(둘째, 셋째단회)

*사회는 단장이 하고, 프로그램 진행은 교무가 한다.

*식순은 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진행한다.

1. 경중10타

2. 개식

3. 입정

4. 영주

5. 기원문

6. 도경(일원상서원문)

7. 법어합독

①둘째단회 : 정산중사법어 원리편 56장

②세째단회 : 정산중사법어 원리편 58장

8.성가

9.설교

①둘째단회 : 법어봉독한 내용을 정리하여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임을 지도한다.

②세째단회 : 혈연과 법연 중 혈연의 소중함을 지도한다.

10. 교화계획 점검

①내용 : ‘나는 이 사람을 교화한다’ 개인별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②좌석배치 : 단별로 둥그렇게 앉는다.

③첫단회에 작성한 개인별 계획표를 나누어준다.

④개인별로 돌아가며 한 달간 교화활동을 계획표와 비교하며 발표한다.

(발표내용은 주로 계획의 실행에 따른 교화자의 반응과 문제점 파악, 나아가 앞으로의 계획 수정들을 말한다.)

⑤입교에 성공한 단원이 있으면 교화감상담을 듣는다.

⑥개인 발표가 끝나면 전 단원은 느낌발표 및 조언을 한다.

11. 묵상심고

12. 폐식

VI. 입교식

1. 기본방향

①세상에서 보통생활을 하다가 법문에 귀의하여 원불교 교도가 되는 것을 축하하도록 한다.

②법신불 사은전에 특별한 신심과 발원을 올림으로써 공부와 생활을 잘해 갈 것을 서약하도록 한다.

③입교인들에 있어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이 되게 하여 모두가 함께 법열 속에 성불의 기연을 맺도록 한다.

④대상자는 입교하여 법명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⑤정례 예회날 예회 식순을 가감하여 진행한다.

⑥입교운동을 결산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최고 연원자 및 최우수 연원단에 대한 시상도 함께 아울러 한다.

■ 식 순

*입교인의 입장

1. 개식
2. 불전헌배
3. 독영 및 입정
4. 교가
5. 설명기도
6. 법어봉독 - 정산중사 법어 신자의 도, 신앙의 도
7. 교도증수여
8. 교강설명 및 계문수여
9. 서원의식
10. 설교 - 주제 : 득도의 의미
11. 묵상심고
12. 득도의 노래
13. 교화법회 결산
14. 공고
15. 폐식

■ 준비물

1. 환교복
 2. 녹음기 및 테이프
 3. 불단장엄
 4. 교도증
 5. 입교자가 밝힐 초(작고 굵은 초)
 6. 입교자 서원문
2. 세부 진행 계획
- ◇ 시작전의 시간
- 1) 잔잔한 성가 경음악을 틀어 놓는다.

2)일반 교도 먼저 법당에 들어 와 앉는다. 가능하면 중앙을 향하여 양쪽에 도열하여 서는 것도 좋다.

3)입교인은 흰 교복을 입고 인도자(교도회장)와 함께 입장준비를 한다.

◇입교자 입장

1)사회자 “입교자 입장이 있겠습니다.”라고 한다.

2)인도자는 천천히 입교자를 지정된 자리로 인도한다.(대중은 힘찬 박수로 맞이한다.)

3)인도자는 맨 뒷사람이 다 자리에 와서 서면 불전을 향해 서서하는 대례로 배례를 시킨

수 차례	앞도록 안내하셔 자신은부퇴장한다사양쪽에 향열해 있던 교도회원이 준비를 용히		
자리에 가서	사회자(경중 10타)가 인도회나 함석으로 돌아와 죽비를 3타한	사회	경중 죽비
4)사회자	죽비개칭을 한다식순을 진행한다. -이 때 개식사는 정중하고 하게 입교의 의의를 밝혀준다.		
불전헌배	-사회자가 법신불 전에 나아가 주례한다. -경중 10타	사회	
입정	-1분 정도 진행한다.	사회	
독경	-일원상서원문을 한다.	사회	
교가	“모두 일어서서 교가 부르겠습니다.”하면 바로 반주를 시작한다.		
설명기도	-신호는 죽비로 사회자가 한다. -사회가 심고진행의 안내를 하면 교무는 불전에 올라 향을 사루고 심고를 올린다.	교무	설명기도문
범어봉독	-사회자의 선독으로 대중이 함께 봉독한다. -교무는 설교석에 함께 봉독한다.	사회	
교도증수 여	-입교인들은 모두 일어나 교도증을 수여 받겠습니다. -사회자 호명으로 교무가 교도증을 수여한다. 교도증 번호, 연원, 본명, 법명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명씩 수여한다. -이 때 명암크기의 종이에 교강 9조와 보통급 10계문을 코팅하여 같이 수여한다. -입교인들은 자신이 호명되면 천천히 교무 앞으로 나가 합장한 후 교도증 내용의 설명을 듣고 교도증을 받는다. -대중은 마지막 입교인이 교도증을 받고 나면 일제히 큰 박수로 환영한다. -교도증 수여가 끝나면 사회는 입교인들이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사회 교무	
교강설명 및 계문 수여	-사회는 교도증 수여의 자리가 정돈되면 교강 설명 및 계문수여의 순을 진행한다. -교무는 일상수행의 요법 9조와 보통급 10계문을 설명하고 한 조목씩 선창하고 입교인이 따라하게 한다.	사회 교무	

◇식 순

서원의식	<p>-점화</p> <p>①사회가 점화를 알리면 입교인들은 준비된 초를 들고 제자링서 일어서고 교무는 불전에 나아가 촛불에 점화하여 나온다.</p> <p>②교무는 점화된 촛불을 입교인들의 초에 하나 하나 밝혀준다.</p> <p>③먼저 점화한 입교인은 모두가 점화 할 때까지 제자리에 서서 기다린다.</p> <p>-입교 서원문 독배</p> <p>①입교인들은 사회의 안내에 따라 차례로 불전에 나아가 불단에 헌등하고 불전을 보고 불 단위에 일렬로 선다.</p> <p>②입교자 대표는 제일 나중에 헌등하고 향례를 올린 후 서서하는 대례를 올린 다음 불전을 향해 무릎 꿇고 앉는다. 입교인 모두도 이때 합장하고 함께 앉는다.</p> <p>③입교자 대표는 탁자에 준비된 입교자 서원문을 올린다.</p> <p>④이 때 대중은 앉은 채로 합장한다.</p> <p>⑤서원문이 끝나고 ‘사배복고 하옵나이다.’하면 반주자는 심고가를 반주한다.</p> <p>⑥사회는 기원문 독배가 끝나면 입교인들로 하여금 불단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도록 안내한다.</p>	사회 입교인	초 입교자기 원문
설교	-설교자는 강하면서도 간결하게 입교의 소중함에 대한 내용과 교도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는 설교를 한다.	교무	
묵상심고	-감사와 다짐의 묵상심고를 올린다.	사회	
입교운동 결산	<p>-입교운동을 결산한다.</p> <p>-다음 내용을 시상한다.</p> <p>①목표달성 단</p> <p>②최고 연원자 및 연원단</p>	사회 교무	
공고 및 득도의 노래	-식후 기념촬영이 있음을 알린다.	사회	
폐식	-식후 기념촬영을 한다.	사회	

VII. 마치는 말

교회연구소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교회 현장에서 진행할 입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효과적인 입교 프로그램을 개발할까 하는 문제에 매달려 고민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고 교단의 교회 상황을 참조하여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 입교에 대한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연원지도에 대한 연구가 먼저 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입

교 문제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입교 운동 방향이 전화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교화 상황을 분석하는데 충분한 과학적 근거(설문조사 등)를 가지고 분석하지 못한 점이며, 때로 주관적인 판단이나 경험에 의하여 정리한 점은 다시 명확하게 정리되어져야 할 필요를 느낀다.

본 발표를 마치면서 본인은 성급한 우리들의 의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우리는 흔히 우리 교단은 5만년 대운을 타고난 종교라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종종 우리가 처한 역사적 위치를 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5만년에 비하면 80년의 역사는 회상의 창립기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일의 결과에 비추어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정책이 교단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단에서 그 동안 진행해 온 입교 위주의 연원지도도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교단 발전에 중심을 둔 교화활동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그 동안 입교 운동에 교단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지금부터는 입교자를 관리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밖으로 드러난 외형적 판단에 우리 교단의 미래를 점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진 목적과 가치관이 무엇이나를 바탕 하여 미래를 바라다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새교도 중심의 교화 성장에 관한 연구

<서>

교화가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교화 침체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진단 없는 처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나타났던 선진국에서의 종교인구 감소 현상을 국내 종교 현실에 대입시키고 있는 어느 국내 종교 학자와 같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분석도 필요한 시점이고 예컨대 원불교 교역자들의 의식조사와 같은 미시적인 분석을 통한 원인 분석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태도를 모두 버리고 실천교화의 입장에서 지금 즉시 교화의 증가를 가져올 만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 동원된 접근 방식은 거칠게는 표현하자면 경영학의 베헤마킹 기법을 원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법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서가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기독교의 교회 성장학 관련 서적을 많이 참고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질적인 집단을 모방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은 거의 없으리라고 믿는다. 주요 내용이 어느 단체에서나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소위 가치 중립적인 ‘방법’과 ‘책안’을 차용해왔기 때문이다.

교화통계를 보면 원기 79년도의 전국 입교수는 12,230명, 원기 80년의 입교수는 12,170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전체 출석수는 원기 76년 37,059명, 77년 26,955명, 78년 26,255명, 80년 25,925명으로 점감하고 있다. 수많은 입교자들이 출석 교도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새 교도를 증가시키고 출석교도를 늘리는 일은 교호 성장의 두 가지 축이다. 이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서는 교화 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입교자 관리를 통해서 새 교도와 출석 교도 사이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하지 않는다면 앞서의 통계가 보여준 기현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화가 안 된다는 한탄의 소리는 높고 교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화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화활동들이 새 교도

증가와 그들의 정착에 모아지고 있는지는 실로 의심스럽다.

하루종일, 일년 내내 교화를 하기 위해 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교화 활동이 마치 ‘고비용 저효율’로 표현되는 한국경제와 같은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보아야 한다. 새 인연을 만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들을 입교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들을 입교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입교자들이 명목상의 교도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교도로 정착하기까지 얼마만한 노력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 점들에 시급히 대응해나가야만 한다.

성공하고 있는 모든 비영리 단체는 이미 영리단체에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던 경영학적 개념들을 도입한지 오래다. 영리를 목적하는 기업 활동에 못지 않게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고객 위주의 경영과 치열한 목표관리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같은 수준에서 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고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 되는 것들은 시급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이 글은 목차와 같이 몇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언뜻 보면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르나 전체적으로는 새 인연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진정한 교도로서 정착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이다. 이 들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은 독창적이지 않다. 그러나 교화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이다. 좀더 다듬고 보완하여 교재 형태나, 자료집 형태로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새교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1. 조사의 목적: 이 설문 조사는 입교자 증가와 새교도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2. 조사의 방법:

- 가. 질문지는 무작위로 선정된 서울교구 내 10개 교당에 40부씩 총 400부를 배포했다.
- 나. 조사는 일요 정례 일반 법회를 통해 하도록 했다.
- 다. 조사자에 대한 질문지 배포는 각 교당의 재량에 맡겼다. 회수된 250여부 중에서 200부만을 통계처리했다.
- 라. 15가지 문항을 질문지를 통해 무기명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3. 조사기간: 82년 5월 18-25일

4. 내용

남 자	여 자
60명 (30%)	133명 (66.5%)

1. 성별?

*무응답 7명 (3.5%)

전반적인 교화상황과 같이 여자 응답자들이 많았다.

2. 나이?

*무응답 1명 (0.5%)

무작위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교도 노령화의 추세가 뚜렷하다.

3. 입교한지 몇 년되었습니까?

*무응답 3명 (1.5%)

1년 미만	2-5년	5-10년	10년 이상
6명 (3%)	18명 (9%)	22명 (11%)	151명 (75.5%)

고령화 추세와 함께 입교한지가 10년 이상이 된 교도가 전체의 절대 다수인 75.5%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교도 구성이 10년 이전에 교화된(입교한) 교도들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입교한지 10년까지의 비율을 합해보아도 23%(3%+9%+11%)에 지나지 않음을 보면 최근의 교화 침체 현상을 실감 할 수 있다.

4. 맨 처음 원불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무응답 : 8명(4%)

가족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주변에 교당이 있어서	기타
102명(51%)	32명(16%)	36명(18%)	2명(1%)	8명(4%)	12명(6%)

이 통계는 입교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이 ‘가족을 통해서(51%)이다. ‘친척과 친구를 통해서(34%)’의 비율도 대단히 높다. 그 동안의 홍보가 주로 가족 교화와 가까운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통계를 접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교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과, 둘은 광고와 동네교화(지역사회 교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놀라울 정도로 작게 나타난 ‘광고’와 ‘주변에 교당이 있어서’의 비율은 분명 그 동안의 교화가 지역 사회와 사회를 향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가까운 인연을 통한 알음알이식 인연교화에 치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 사회적 홍보와 광고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입교를 하게 된 이유는?(누구의 권유로 입교를 하셨습니까?)

이 통계에서 가족을 통한 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원불교 교도의

가족	친척	친구	교무님	스스로	기타
99명(49.5%)	24명(12%)	31명(15.5%)	10명(5%)	28명(14%)	8명(4%)

과반수 정도는 가족을 통해서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되고 입교도 가족을 통해서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4번 문항과 비교를 해보면 원불교를 알게 된 경로와 원불교에 입교한 경로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추측컨대 교무님의 권유로 입교를 하게되었다는 5%의 응답도 가족과 친척, 친구의 인도로 교당까지 왔다가 교무님의 권유를 받아 입교를 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입교를 하게 되었다는 14%의 응답의 해석은 유보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가족교화는 어떤가? 12번 문항을 보면 앞으로도 가족교화는 충분히 교화의 돌파구가 될만한 교화의장임을 알 수 있다. 200명의 응답자 가운데 115명이 가족교화를 꼭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 교화 대상자의 숫자는 무려 218명이었다. 1인당 평균 2명의 가족을 교화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제는 가족 교화에 치중하는 듯한 현실을 극복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지역사회와 대 사회 홍보와 활동의 강화로 비교도 들에게 원불교 인지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교화로 입교자를 높이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1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

만20-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59세	만60세 이상
4명(2%)	36명(18%)	46명(23%)	61명(30.5%)	52명(26%)

교도들도 새로운 교화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교 년수와 가족 교화에 대한 열의를 비교한 결과 특이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권유없이 스스로	3-4번	5-6번	그 이상
102명(51%)	47명(23.5%)	5명 (2.5%)	26명(13%)

6. 교당에 다니기까지 몇 번의 권유를 받았습니까?

*무응답:20명(10%)

‘권유없이 스스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51%(102명)에 달하는데 이 응답율을 5번 문항과 비교해보면 (‘스스로’라고 응답한 사람 14%,28명)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서 해석하기 곤란하다.

있다	없다
88명(44%)	108(54%)

7. 입교 후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응답: 4명(2%)

입교를 한 후에‘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교도가 반이 되지 않고 있다.‘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에 커다란 허점이 있었음을 드러내주는 통계임에도 틀림없다.

거의 모든 교당과 교구에서 신입교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해왔다면 현재의 교화현황이 크게 달랐을지도 모른다. 식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신입교도 시적에 (교당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교당에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81명(41.5%)	79명(39.5%)	25명(12.5%)	12명(6%)

여 주었습니까?

*무응답:3명(1.5%)

7번 문항과는 달리 80% 정도의 교도들이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주관적 판단에 좌우 될 만한 문항이지만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문항이라고 본다. 그 동안의 교화가 다분히 온정주의적인 교화 방법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는 통계라고 판단된다. 따듯한 인정이 넘치는 교화 현장의 분위기는 살려나가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 없다
169명(84.5%)	26명(13%)	4명(2%)	1명(0.5%)

9. 신입교도(새 교도)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무응답: 0명

절대 다수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원하고 있다.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그만큼 새 교도에게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10. 교당에 나오기 시작한 신입교도(새 교도)를 위해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두 가지만 써주세요)

원불교 안내, 교육, 훈련	홍보물 발송 (신문, 주보, 잡지 보내주기)	오래다닌 교도님의 친절한 안내	친구만들어 주기(소속감 심어주기)	교무님과 의 대화	순교(전화 또는 방문)	기타
86명(23.4%)	18명(4.9%)	69명(18.8%)	68명(18.5%)	108명(29.4%)	17명(4.6%)	1명(0.3%)

이 문항에선 중복 응답을 요구했다. 최대 빈도를 나타낸 응답은 ①교무님과 의 대화 29.4%

②원불교 안내·교육·훈련 23.4% ③오래 다닌 교도님의 친절한 안내 18.8%④친구 만들어 주기 18.5%의 순 이었다. 이 응답 비율은 새 인연관리, 새 교도 관리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화되어야 하는지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법회 전에는 교도님들이 친절한 안내로 이끌어 주고 법회 후에는 교무님과 속 깊은 대화를 하게 하고 단 편성이나 모임에 소속시켜 친한 인연들을 만들어 주고 원불교 안내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종합적인 배려를 한다면 교도 관리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라고 본다.

적극적 홍보	가족교화	동네교화	기타
81명 (40.5%)	80명 (40%)	31명 (15.5%)	5명 (2.5%)

11. 교당에 새 교도를 많이 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교도들이 가족과 친지를 통해 원불교를 접하고 가족과 친지의 권유로 입교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입교 방법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교화’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홍보’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네교화’를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동네교화의 경우엔 서울교구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요구가 표현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있다	없다	있다면 몇 명입니까?
115명 (57.5%)	50명 (25%)	218명

12. 교도님 가족 가운데 꼭 교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응답 : 30명 (15%)

5번 문항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적어도 57.5%의 교도들은 가족 가운데 교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1인당 평균 2명의 교화대상자로 짐찍고 있는 것이다. 그저 ‘가족 교화를 합시다.’라는 선언적인 말만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그 2명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목표화해서 담당 교무가 직접·간접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주고 교당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상당한 서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가족교화 대상자 목록을 만들고, 대상자별로 불공할 계획을 세우고, 틈틈이 개별적인 불공을 해나가면서 가족 교도와 의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의 반응 정도를 점검하고, 교화의 방법들을 평가해 나가며, 결정적인 시기에 초대장을 보낸다든지 면담을 성사시켜 입교를 권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없다’라고 응답한 교도들이 25%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응답의 의미를 분석하기에는 본 설문 조사가 너무 단순하다. 25%의 교도들이 과연 모든 가족을 교화한 때문인지 아니면 글들에게 교화의 가망이 전혀 없는 가족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응답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추측컨대 이들 응답자 가운데도 분명 상당수의 교화 대상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음에도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보다 자세한 조사 연구를 거쳐야 할 내용이지만 적극적 교화 의지를 배양시키고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25%의 비율은 의외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13. 교도님 친척이나 직장, 주변에 꼭 교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응답 : 20명 (10%)

있다면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수’라고 응답한 2명에 대해선 10명으로 계산함.

입교 경로를 물어본 4,5번 문항에서 알 수 있듯이 친지, 친구들을 통한 교화의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이 부문은 교화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화 대상자

들로 점찍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분화된 입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12번 문항과 13번 문항에서 모두 교화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중복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무려 78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교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교도들이 상당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는 기존 교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독려와 지원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해나간다면 이들을 통한 상당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4. 교도님도 누군가를 교화하고 싶다고 느끼거나, 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 22명 (11%)

그렇다	그런편이다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아니다
126명 (63%)	46명 (23%)	7명 (3.5%)	1명 (0.5%)

설문 자체가 너무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교도가 교화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 교화 현장에서 거의 모든 교도들에게 교화의 부담을 주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조심스런 부분이지만 일단은 많은 교도들이 교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기존 교도들을 단계별로 교화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5. 교화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택하세요)

‘상대방이 원불교를 너무 모른다’, 원불교를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방이 원불교를 너무 모른다	용기가 부족해서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원불교를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마땅히 줄만한 안내책자가 없다	교당에 데리고 온 다음이 걱정된다	교무님이나 누군가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기타
104명 (31.8%)	26명 (8%)	78명 (23.9%)	30명 (9.2%)	44명 (13.5%)	39명 (11.9%)	6명 (1.8%)

전체의 55.7%에 이르고 있다. 교도들은 교화 대상자의 원불교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상대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자체가 교화대상자와의 만남 장면에서 초점을 맞춰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도들의 대부분은 교화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원불교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일차적인 교화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며,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원불교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나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원불교를 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교화력 증진을 위한 훈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이다.

반면에 ‘용기가 부족해서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기가 부족해서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있다	없다	있다면 몇 명입니까?
135명 (67.5%)	45명 (27.5%)	252명

라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모두 용기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 주관적으로는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교도들이 용기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이란 평가가 유용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당에 데리고 온 다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13.5%에 이르고 있음은 상당한 주의가 요청되는 대목이며, 여기에 덧붙여 ‘교무님이나 누군가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응답(11.9%)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전문 교화자인 교무의 책임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새 인연을 교당에 데리고 온 다음이 왜 걱정스러운지는 이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걱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은 교당 교무의 책임이 새삼스러워지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교당까지 일단 새 인연들을 데려오기만 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교무님들과 요인들이 책임을 저준다는 인식이 교도들에게 확실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 교도의 고령화 추세가 그대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의 교화부진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원불교를 접하고 원불교에 입교를 하는 경로가 가족과 친지라는 경로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입교전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새 인연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압도적인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새 인연을 위해서는 교무님과의 대화 그들을 위한 교육·훈련, 오래 다닌 교도의 친절한 안내, 친구 만들어주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적극적 홍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족교화는 중요하고 가능성 있는 교화 부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교화에 대한 열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훈련 없이는 그 교화의지를 실제로 발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원불교를 쉽게 설명하는 기법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청되고 있다.

다음의 문항들은 새 교도 중심의 교화를 위해 점검해 볼만한 내용들을 모은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새 교도 교화를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검해 보시면서 필요에 따라 점검 목록을 교당상황에 맞게 더욱 세분화하여 늘 대조하는 자체 점검표를 비치해두신다면 새 교도 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교도 중심의 교당 성장 점검표】

<1>총점검

- 1.교무님께서 교화하고 계신 교당에 지난 1년간 찾아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 2.지난 1년간 찾아온 새 인연은 몇 명입니까?
- 3.지난 1년간 몇 명에게 입교를 권했습니까?
- 4.지난 1년간의 신입 교도는 몇 명입니까?
5.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6.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 7.입교자를 출석교도로 만들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 8.자신의 시간 활용에 대해 평가해 보십시오.
- 9.지난 1년간 열반한 교도 수는?
- 10.지난 1년간 이사 등의 이유로 교당을 떠난 교도 수는?
- 11.입교수 또는 출석수가 얼마나 증감했나요?

12.신입교도를 늘려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써 보세요.

교화를 하는데 있어 수량적 목표의 제시는 교화의 제1단계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각 교당의 교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일이다. 흔히 교화자들은 교화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착하여 양적인 성자의 둔화에 대해 자기합리화 내지는 변명을 일삼는 수가 많다. 교화의 수량적 측면을 평가해 보면서 그 평가에 기초한 교화전략을 개발해내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교화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꼭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적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서 교단의 문제점들을 진단해보고 그 결과에 기초한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해내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화성장이 자신의 서원과 사명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도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2>목표

- 1.올해 목표 입교수는 몇 명입니까?
- 2.월별 목표 입교수는 몇 명입니까?
- 3.올해의 목표 출석수는 몇 명입니까?
- 4.월별 목표 출석수는 몇 명입니까?
- 5.올해의 입교전략은 무엇입니까?
- 6.월별 입교전략은 무엇입니까?
- 7.올해의 출석교도 증가 계획은 무엇입니까?
- 8.월별 출석교도 증가 계획은 무엇입니까?
- 9.각 목표를 세운 근거는 무엇입니까?
- 10.그 목표의 달성 여부는 어떻게 측정·평가할 예정입니까?

목표 없는 입교전략은 있을 수 없다.

흔히 연말에 증가하는 교화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1년 교화계획 중에서 신입교도 증가 목표와 출석률 증가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년간 계속되어온 교화 침체 추세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지 못한 채 국가에서 행한 종교인구 통계의 결과 발표 후에야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교단 현실은 미리 준비하는 공부 부족했던 때문이며 특히 각 교당별로 뚜렷한 목표 설정작업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무위이화의 교화로는 더 이상 교화 침체국면을 전환하기 힘들다는 자각에 도달해야 하며 교화침체 국면의 타파는 구체적인 목표제시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표설정의 노력은 반드시 계획적인 교화활동으로 이어지며, 이런 노력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로 이어지며, 계획·실시·평가의 환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월별 목표까지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각종 교화통계에서 나타나듯이 1년간 상당한 주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봄부터 대각개교절까지의 증가세와 하절기와 동절기의 감소세는 늘 반복되는 추세인데 이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내야 함은 물론 4축2재와의 관련 속에서 교화의 일반적 추세를 감안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주로 4축2재 행사 가운데 어느 행사를 중심으로 어떤 교화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복안이 교당마다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각개교 경축 기간까지는 주로 어린이 교도와 새 교도 중점적으로 증가시키고 석중 성탄절을 중심으로 옛 인연과 잠자는 교도들을 깨우는 작업을 하고 하계방학을 중심으로 해서는 학생교도들을, 법인절을 중심으로 해서는 청년교도를 집중적

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비단 4축2재만이 아니라 점차 다양화 해 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형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기에 맞는 교화 방안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홍보

1. 1년 홍보비는 얼마입니까?(총예산의%)
2. 일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해보셨습니까?
3. 전화를 통한 홍보는?
4. 유인물을 통한 홍보는?
5.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는?
6. 스티카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7. 어떤 홍보 수단을 활용했다면 그 홍보수단 선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8. 그 밖의 홍보 수단은 무엇입니까?
9. 지금 교당 약도를 팩시밀리로 받아보길 원하는 이에게 보내줄 수 있나요?
10. 교당 주변에 교단 표지가 몇 개나 붙어있나요?
11. 간판은 사바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되었나요?
12. 간판은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제작되었나요?
13. 교당 주위 500미터 반경 내의 상점이나 부동산사무소 등에서 교당 위치를 안내 받을 수 있나요?
14. 귀 교당을 상징하는 수식어는 무엇입니까?(예: 보은하는 원불교○○교당)
15. 귀 교당 자랑을 5분 안에 해보십시오.(주된 내용 3가지를 써보세요)
16. 교단 홍보 요원은 누구입니까?
17. 올해의 홍보 전략은 무엇입니까?

홍보를 하고 광고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새 인연들에 대한 직접적인 초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수 있다. 홍보와 광고의 목적이 새 교도의 증가에 있다면 더욱 그렇다. 광고 기획을 하면서 소비자를 세분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광고와 홍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개되기 마련이다. 어떤 종교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와 홍보만으로 특정 종교를 선택하고 특정 종교의 집회에 참석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기대이다. 새 인연을 교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초대를 감행해야 한다. 광고를 통해서 했어도 일대일로 정중한 초대를 해야 한다. 타종교의 예를 보면 초대받는 사람의 가까운 인연이 초대를 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응대율을 보였다고 한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초대를 통해서 새 인연을 끌어 들여야 한다. 새 인연을 집중적으로 모이게 하려면 특정한 날을 초대법회로 준비해서 법회의 내용과 전체 분위기를 새 인연의 환영과 발심에 맞추는 것이 효과 면에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교당에선 교화의 핵인 법회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놓고 새 인연들을 맞이하는 교당 운영방식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비영리 단체의 존재 이유를 '비영리 단체란 한 사회와 그 구성원인 개개인에게 어떤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줌으로써 그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갈파하고 있다. 동시에 비영리단체들도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교당에서 새 인연들에게 새로운 변화 늘 주기 위해 좋은 설교를 준비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밀반 침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법당에 발을 들여놓기전에 교당과 인연이 멀어질 수도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들에 주목하고 거기에 공을 들여야 새 인연들이 교당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법문에 들어올 수 있으며 진정하 교도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새 인연이 교당엘 찾아왔다고 하자. 「알려준 대로 약도에 나온 큰길에서 접어드니 깨끗한 표지판이 있어 쉽게 교당을 찾았다. 교당에 큰 주차장은 없는 것 같은데 어깨띠를 두르고 모자를 쓴 주차요원들이 미리 확보해 놓았는지 골목에 주차공간이 많다. 직접 대려 하는데 기어코 주차 안내요원이 자동차 열쇠를 달란다. 능숙한 솜씨로 주차하는 것을 보며 서있는데 환한 미소를 머금은 중년의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와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네 온다. 어떻게 내가 처음에 오는 사람인줄 알고 있는지 신기했다. 그 분은 연신 교당을 소개해준다. 1층엔 어떤 시설이 있고 2층엔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를 친절히 알려준다. 법당에 들어가니 나를 위해 지어된 좌석이 있는지 어떤 자리로 안내를 한다. 잠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나이는 비슷해 보여도 수양을 잘해서 그런지 점잖아 보이는 분이 옆에 있다가 아는 척을 하면서 반가운 얼굴로 회순에 따라 세세한 안내를 해주면서 간간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생소한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설교 시간에는 교무님께서 꼭 나를 위해 해주시는 것만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신다. 도중에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교도들의 환영을 받고, 법회가 끝난 다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교무님과 교도 회장님의 환영을 받으며 조용한 방으로 안내되어 훈훈한 분위기의 대화를 나누니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진다. 식사를 하고 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초면이라 사양했다. 돌아올 때는 교당에서 준비한 교전과 약간의 선물까지 주시니 분에 겨운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아. 법회 마칠 무렵에 작성해서 제출한 노란 카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겠다는 교무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집으로 오면서 생각했다. 아! 이렇게 각박한 사회 한 칸에 이렇게 인정이 넘치고 남을 위해 사는 훈훈한 사람들이 있구나. 많은 고민도 했지만 이제는 원불교에 꾸준히 다녀야겠다. 애 엄마와 애기들도 데려와야겠다.」

【첫 번째 경우】

「교당 근처에서도 교당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길에 차를 세우고 상점에 들어가 교당을 물었는데 모른다고 한다. 결국 찾기는 찾았는데 찾고 보니 그 상점과 불과 2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런데 또 차를 세울 수가 없다. 길 건너 빈 공간에 세우려고 하다가 어느 아저씨에게 좋지 않은 소리만 들었다. 억지로 차를 세우고 나니 와이셔츠가 땀에 다 젖었다. 시각은 벌써 10분이 늦었다. 그냥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난다. 향내음 나는 법당으로 들어가니 모두들 아무 소리 없이 앉아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를 초대해준 친구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뒤쪽 빈자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지만 영 마음이 불편하다. 처음 해보는 종교 의식이라 그런지 생소하기만 하다. 설교도 아주 어렵게 느껴진다. 물도 마시고 싶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창피해서 그냥 참고 만다. 법회가 끝나고 나니 갑자기 소란해진다. 전부 삼삼오오 모여서 무슨 애긴가를 하는데 나는 갈 길을 서둘렀다. 법당을 뒤로하고 나오는데 성직자 같은 분이 식사를 하고 가라고 불리며 친구는 오늘 결석을 했다는 얘기와 내가 오늘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노라고 한다. 그러면서 식사라도 하고 가라며 소매를 붙든다. 하지만 바쁘다며 나오고 말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자고? 소변을 참으며 차있는 곳으로 와보니 가슴이 철렁. 앞바퀴에 누군가 핑크를 내놓았다. 친구에 대한 원망이 스치고 원불교라는 종교와는 별 인연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카센타에 전화나 하다.」

【두 번째 경우】

다소 코믹하게 구성해보았다. 과장은 되었어도 어느 교당이든지 크게 봐서 이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어느 한 경우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교당의 운명이 다렸다고 해도 과연 아니다.

< 5 > 면담

1. 새 인연과 주로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 그 사람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 새 인연과의 상담내용은 준비되어있나요?
4. 만남은 어떻게 보장받을 것입니까?
5. 법회 후 새 인연과의 만남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6. 법회 후 새 인연과의 만남의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7. 법회 후 새 인연과의 만나는 사람(동석자)은 누구입니까?
8. 법회 후 새 인연과의 만남 시간에 다과는 준비합니까?
9. 법회 후 새 인연과의 만남의 적정 시간은 얼마로 생각합니까?
10. 새 인연과의 4회 정도의 만남 동안 나눌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1. 새 인연에게 언제 입교를 권할 예정입니까?
12. 새 인연과의 상담 일기가 있습니까?
13. 다음 주 법회 참가 권유는 어떻게 누가 합니까?
14. 새 인연들이 참가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단체 활동은 있습니까?

현대인이 요구하는 익명성 때문에 밀착된 새 인연 관리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규모의 교당에서 새 인연이 교당에 왔다가 교도로 정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신속한 인간관계를 형성시켜주지 못한다. 익명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소외된 사회인으로서 진정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도 현대인의 주요 심리이기 때문이다.

법회를 자주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성공적인 상담을 해서 새 인연을 파악하고 서로 친밀감을 교류하며 원불교적 인간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결심을 서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1주일에 한 번 나오는 기존 교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처음으로 교당을 찾은 인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다 보면 그 인연들은 떨어져나가고 만다고 봐야 한다.

법회 후에 교무님들과 요인들이 무슨 일에 매달리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 과연 새 인연을 위해서 교무님들과 요인들이 또는 특정인이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서 새 인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많은 교당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만일 법회 후에 새 인연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하다면 그 교당의 성장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법회 후의 새 인연 관리 프로그램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을 교당에서 운용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대목은 새 인연 관리와 입교수 증가, 출석 수 증가 전략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무 입장에서야 요인들과의 회의도 중요하고 단회도 중요하고 봉공회를 위시한 단체관리도 법회 후에 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무의 입장일 뿐이다. 이제 교도의 입장에 서야 한다. 생전 처음으로 교당을 찾아온 새 인연의 입장에 서야 한다. 교무들은 이미 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원불교를 찾아갈 마음을 어렵게 내고 찾아오는 교도의 마음 상태를 잊었다고 봐야 한다.

상담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숙지한 다음 거기에 맞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새 인연을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새 인연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 인연들은 일단 원불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원불교를 소개해주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대개 한 두 명씩 찾아오는 새 인연들의 숫자를 낮추면서 숫자가 적어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새 인연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새 교도가 되고 법회를 통해서 제공되는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늦되는 교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 명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그들을 모은 다음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새 인연 관리에 성공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 6 > 입교

1. 새 인연을 위한 안내·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 교재는 준비 되었나요?
3. 몇 주 과정입니까?
4. 진행자는 누구입니까?
5. 그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참석 여부를 응답 받았나요?
6. 새 인연을 위한 편지 발송계획은 있나요?
7. 편지 내용은 무엇이며 몇 번 보낼 예정입니까?
8. 법회 참석 권유 전화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는?
9. 법회 참석 권유 전화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는?
10. 개인별 기록 용지는 있나요?
11. 언제 어떻게 입교시킬 것입니까?
12. 득도식은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타종단에서 표현하는 소위 Inquire Group을 가동해야 한다. 호기심 많고 원불교에 대한 호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새 인연들에게 원불교의 특징점들을 매력 있게 전달하고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서 발심을 하게 하고 뿌리 깊은 신앙인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교당 차원에서 하기 힘들면 지역교회협의회 단위나 교구 단위로라도 가동해야 한다.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가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또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타종단에선 일상화되어있는 DM발송도 체계적으로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전화를 통한 참석권유는 가급적 정착하고 난 이후 상당 기간까지라도 계속하는 것이 교화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많은 교화 사례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 7 > 정착

1. 순교 계획은 있습니까?
3. 새 교도를 위해 인연 맺어주고 싶은 기존 교도는?
4. 새 인연에게 가입을 권유할 만한 모임, 단체는?
5. 언제까지 집중적인 관리를 할 계획인가요?
6.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7. 새 교도를 위한 개인별 지도 계획(교육·훈련 계획)은 무엇입니까?
8. 새 교도에게 원불교적 전망(비전)을 제시하고 있나요?
9. 그 전망의 내용을 무엇입니까?
10. 언제까지 직접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입교 단계를 지났다고 해서 교도로 정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법회만이 아니라 교당 구성원들과의 인간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며 교화,

교육, 자선 등의 활동에 동참하며 각종 친목 단체에도 가입하도록 하며 그에게 알맞은 단이나 단체를 소개해주며 보다 속 깊은 공부로 인도하는 등의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가 정착의 단계라고 생각한다. 내실 있는 교화 성장의 갈림길이라고 판단된다.

그 동안의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개인별 지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교당의 단순한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구와 교단의 모든 교화 자원을 감안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맞는 프로그램들을 근기에 맞게 단계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학습이 학습자의 요구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듯이 교화 역시 요구분석에 기초해서 강한 동기 부여로 학습이 학습자의 요구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듯이 교화 역시 요구분석에 기초해서 강한 동기 부여로 학습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본다. 원불교의 동기 유발을 곧 원불교적 비전의 제시이다. 새 시대의 주세불이 내놓은 교법으로 신앙하고 수행하면 어떻게 인격변화를 할 수 있고 소원을 어떤 식으로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처음부터 원불교적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 등을 갖고 출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초점 있는 초기 교육·훈련이 새 교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마치 초기 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직접적인 관리를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나름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원불교 인지도 제고 방안】

<원불교 인지도 조사>

1. 취지 :

정확한 분석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긴 하지만 입교가 명목상의 입교에 그치고 있는 까닭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입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다. 입교 당시부터 이미 교당에 나올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입교자가 많기 때문이다. 교당을 중심으로한 지역사회에 원불교를 알리고 대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여 좋은 인상을 지속적으로 심어주어 진정으로 호감을 가지고 입교를 하고 출석을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발굴해야 한다. 원불교의 인지도는 대단히 낮다. 이는 원기 75년에 교화연구소와 동산원련원의 주관으로 10명의 예비교역자들이 행한 지역 조사 보고서인 ‘원불교 교화와 이리지역사회’라는 책자에 나타나고 있다. 대중사 탄생 백주년을 앞두고 행해진 이 지역사회 조사 보고서에는 원불교 인지도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문답에 의한 설문 조사 응답자 총 997명의 시민들 가운데 26.6%의 시민들이 중앙 총부의 소재지를 모르고 있었으며, 59.0%의 시민들은 원불교의 창교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모양으로 제시된○(법신불 일월상)이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인줄 52.3%가 모르고 있었다. 조사 당시로 볼 때 이리 지역에 67년간 자리잡고 각종 행사와 활동을 전개해온 원불교에 대해 상당수의 시민들이 기본적인 것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조사 당시 약 22만 명의 인구를 가졌던 이리(익산)지역의 사정이 이러할진대 수백만 또는 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의 경우에 원불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어떠할 것인가는 불문가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교도를 통한 교화라는 기존의 교화 형태를 고수한다면 모르지만 원불교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원불교를 알려서 그들을 교당으로 인도하려면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를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인지도는 이해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인지도 제고의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선 교화현장에

서 직접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인지도 설문 조사’를 제시하기로 한다. 인지도 조사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방안인 셈이다.

2. 준비 사항

- 가. 가칭 ‘○○지역사회 연구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한다. 구성원은 교당 주변에 거주하는 교도를 위주로 하면 좋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명목상의 구성이라도 한다.
- 나. 설문 조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운다. 예컨대 몇 명의 교도가 언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몇 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들을 대략 결정한다.
- 다. 지역 실정에 맞게 설문지를 작성한다.
- 라. 지역 조사활동을 해봤던 유경험자를 초빙하거나 교당 교무님으로부터 간단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역할 연습, 역할 연기 등을 해봐도 좋겠다.
- 마. 홍보용 유인물을 준비한다.
- 바. 가급적이면 ‘원불교 ○○ 교당 부설 ○○ 지역사회 연구회’ 전화번호 ○○○○○○○○라고 인쇄를 한 볼펜이나 메모지, 라이터 등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다가 설문 조사에 응해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는 인사와 함께 전달하면 상당한 반응을 얻을 수 있다.
- 마. 기타: 학문적인 지역사회조사 방법론에 입각한 조사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 설정과 표본의 수집 그리고 전문적인 전산분석 프로그램 등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과학적인 인지도 조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지도 조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새 인연들을 접촉하고 조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얻어지는 정보들은 실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기초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도가 목적과 방법들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바. 조사과정에서 얻은 개별 정보들을 종합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교화 방법을 모색한다.

3. 설문 조사 예문

종교 인지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불교 ○○교당 부설 ‘○○지역사회 연구회’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회에서는 우리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종교에 관한 인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원불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당에서 활용할 만한 원불교 인지도 조사용 설문지를 예시한다.

- 1. 이 근처에 원불교 교당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①안다 ②모른다
- 2. 원불교의 발상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①일본 ②인도 ③한국 ④중국
- 3. 원불교의 역사는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① 약2500년 ②약1000년 ③약100년 ④ 약 80년 ⑤ 약50년
- 4. 원불교의 창시자는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5. 원불교의 상징,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6. 전국에 있는 원불교 교당(기관을 포함해서)은 몇 개나 될까요?

①약 100개 ②약 200개 ③약 300개 ④약 500개 ⑤약 1000개

7. 귀하의 연령은?

①20-29세 ②30-39세 ③40-49세 ④50-59세 ⑤60세 이상

8. 고향은 어디십니까?

()

9. 결혼은 하셨습니까?

(결혼이면) 자녀가 있습니까?

①결혼(자녀 있음) ②결혼(자녀 없음) ③미혼 ④기타

10.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①불교 ②개신교 ③천주교 ④기타()

11. 남, 녀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진행상 유의 사항

· 조사자들은 1명이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반드시 남녀 2인 1조가 되어 행동한다. 혼란한 치안 상태로 인해 경계가 심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단독 행동은 삼간다.

· 대부분 닫혀 있는 문을 열고 대상자와 대면관계를 가지기까지가 일차적 관문이 된다. 정중하면서도 조리있는 의사전달이 성패를 좌우한다.

· 조사를 매개로 하여 원불교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해야 한다. 상대방의 태도를 보아서 대화의 길이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조사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를 깊이 진행해 나갈 일이다.

· 대화가 잘 진행되어 원불교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연락처를 적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

· 조사를 위한 대화를 마감하면서는 준비해간 홍보용 유인물과 작은 선물을 준다.

· 각 문항들을 기록하는 것은 조사자가 한다.

· 각 문항들을 기록하면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항을 소재로 하여 대화를 풀어나가고 그 문항에 관한 부연 설명을 흥미롭게 전개한다.

예컨대 1번 문항을 물었는데 모른다고 대답했다면 자세히 교당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앞으로 주목할만한 종교입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2번 문항의 발상지에 관한 질문도 단순히 응답을 기록하고 정답을 알려주고 말 것이 아니라 '흔히들 일본 종교나 외래 종교로 순수한 우리 종교입니다. 하지만 민족 종교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종교로서 원만한 교리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지금도 세계 13개국 이상으로 활발히 뻗어나가고 있는 종교입니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간다.

요컨대 모든 문항의 부연을 효과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원불교에 대한 기초 정보를 기억하고 좋은 종교라는 인상을 깊게 새겨주도록 한다.

전반적으로 원불교 인지도조사와 같은 목적이지만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원불교를 알려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교당이 자리한 지역사회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읽어내어 교화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지도도 함께 제고시키는 조사가 되게 한다. 설문조사 예문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 지역 주민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불교 ○○교당 부설 ‘○○ 지역사회 연구회’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회에서는 우리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성별

- ①남 ②여

2. 연령

- ①불교 ②기독교(개신교) ③천주교 ④유교⑤
⑥원불교 ⑦천도교 ⑧대종교 ⑨기타()

3. 선생님께서는 ○○지역에 사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1년 미만 ②1~5년 ③6~10년 ④11~15년 ⑤16~20년 ⑥20년 이상

4. 지금의 ○○지역(시,읍,면)은 지난 4~5년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저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②그전 그대로이다.
③전보다 못해졌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실시 이전 보다 좋아졌다.
②그대로이다.
③실시 전보다 못해졌다.

6.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여가 가지 문제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내용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문제 안된다	모르겠다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복지시설부족 (양로원, 고아원, 탁아소, 복지관..)				
도시계획 문제 (재개발 포함)				
청소년 문제				
불법업소 문제				
실업자 문제				
영세민 문제				
주택문제				
치안문제				
의료시설부족				
문화시설부족문제 (공원,극장,도서관, 미술관,음악관,체 육 시설..)				
상하수도 문제				
주차문제				

8. 선생님께서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종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필요하지 않다
- ④ 잘 모르겠다

9. 다음 종교들이 얼마나 ○○지역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크게 기여한다	기여한다	보통이다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잘 모르겠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10. 선생님께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덕, 윤리 의식 고취
- ② 청소년 선도
- ③ 사회복지 활동
- ④ 사회정의 실현
- ⑤ 교육 및 문화 활동

11. 선생님의 학력은?

- ① 국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⑤ 대졸 이상

12. 선생님의 직업은?

- ① 무직 ② 주부(직장 여성 제외) ③ 학생 ④ 농업 및 어업
- ⑤ 비숙련직(건설공, 미숙련공, 행상 노동)

- ⑥숙련 및 반숙련직(숙련공, 기능공, 반숙련공, 점원, 판매원, 종업원 등)
- ⑦판매직(소규모 상점주인, 소매 및 도매상, 중계인 등)
- ⑧기술 및 사무직(회사원, 일반 공무원, 교원, 사회단체 직원, 엔지니어, 은행원 등)
- ⑨관리직(기업체 간부, 자영업체 경영자,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
- ⑩전문직(의사, 변호사, 법조인, 언론인, 교수, 작가, 예술가 등)

13.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 ①100만원 미만 ②100-199만원 ③200-499만원 ④500만원 이상 ⑤1000만원

【초청법회 프로그램】

【새 교도 관리를 위한 요원 교육】

【새로운 홍보 전략】

【상담, 교도 관리】

교무훈련에 대한 연구

한 덕 천, 안 훈 교무(중도훈련원)

I. 머릿글

현재 교정원에서는 교화의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단의 모든 업무는 결국 개교의 동기를 실행하고자하는 교화에 귀결이 된다고 할 때 교당교무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자는 교화자라는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교역에 임하고 있다. 다만 교화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뿐이므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역자훈련을 할 것인가가 훈련원에서 고민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기존 교무훈련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각 직능과 각 급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교화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훈련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교무로서 확고한 정신자세와 투철한 사명감을 확립하고 각 분야의 운영관리 능력과 전문직무 수행능력의 향상, 사회의 환경변화에 진취적으로 대처할 추진력과 적응력의 배양, 높은 종교성과 행동을 지닌 지도자의 양성을 목표로 급수별 훈련, 직능별 훈련, 일반훈련으로 구별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수별 훈련은 초급교무로부터 최고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직급에 따라서 필요한 역할 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격에 따라 기본교육과 육성교육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재훈련을 구상하였다. 직능별 훈련은 해당부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직무능력, 기능,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최신의 업무추진기법을 소개하고 또한 현업에서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습과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부문별로 세분화된 훈련과정의 개설을 구상하였다. 일반 훈련은 기존의 교무훈련 전통을 계승하여 11과목 중심으로 교법의 체질화와 공동체윤리 형성을 중심으로 구상하였다.

II. 재훈련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변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가속도적인 현대사회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과 주어지는 새로운 역할들을 보다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하여 『보람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에 정규적인 학교교육만을 통해서만 불가능하며 평생을 통한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교육을 총 망라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명우 교수는 “인간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며 이 변화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육에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며, 인간의 생활은 원래 환경과 변화에의 적응이며 동시에 인가의 성장은 그 변화와 적응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과 쇄신이다.”고 하여

<표1> 훈련종합 평가자료에서

2년 동안의 주요 과정이었던 「일과에서 득력」과 「교당내왕시 주의 사항의 중요성」이 높은 관심도를 보였지만 「교화의 활력」이나 「청소년 교화」는 관심도가 꺾 낮았으며,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심신간에 지친 상태로 훈련에 참석하면서 1주일간의 훈련을 심신간에 쉬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도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쉬면서 업무 속에 묻혀있는 자신발견을 통해 마음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평가 자료에서 보듯이 30%이상이 심신간에 지친 상태가 되어 쉬는 기회로 삼고자 훈련에 임하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될 보다 적극적인 필요성과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3대 설계위원회에서는 “원불교교화는 훈련을 특징으로 삼아 종교적 인격도야를 순속하여 교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제시를 하였으며, 재교육체제의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교무훈련이 「① 11과목 중심의 훈련에 치중되어 교직 연수나 급수에 따른 재교육 내용이 적다.②현직 분야에 따른 전문연수가 없는 실정이다」는 분석에 의하여 재교육체제의 정립의 방향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 1)교무 정기훈련과 함께 전문연수를 위한 재교육과정을 설치한다.
- 2)현직과 연계된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
- 3)인사와 승급에 따라 전문별 교육과정을 설치한다.
- 4)임지 파견에 따른 직무능력배양을 위한 단기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5)교무 정기 훈련성적은 법위에 반영하고 직능별 훈련성적은 근무성적에 반영한다.

이러한 분석과 방향제시는 재훈련의 방향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며 재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III. 교무훈련의 변천과정

정산중사님의 특별유시를 받들어 원불교학과와 동산(영산)선원 수료생을 1년간 합동 훈련시키는 기관으로 중앙선원이 개원(원기 41. 11. 6)되어 새 교무들(졸업생)을 입선시키게 되었다. 그후 중앙선원은 중앙훈련원으로 새롭게 발족(원기 56. 3. 27)되었다가 중앙중도훈련원(원기 76. 10. 5)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단 초장에서부터 출가제가 구분 없이 시작(만덕산 초선)되어 대중사님 당대부터 교무부에서 동선과 하선으로 나누어 공회당과 대각전 등에서 계속 되어온 기성교무훈련(교무 강습)을 중앙선원(훈련원)에서 섭렵하여 진행하여 오다가, 원기 63년이 되어서야 동계교무훈련, 기관간부훈련, 기관교무훈련, 기관임원훈련, 추계교무훈련 등 훈련의 골격이 세워졌다. 이 훈련은 원기 66년에 5급에 해당하는 부교무 훈련을 추가하여 원기 68년 초까지 유지되었다. 원기 68년 5월에 5급, 3·4급, 1·2급의 급수별 훈련을 기획했다가, 7월 20일에 교수회의(현재 훈련협의회)를 소집하여서 급수의 구분이 어렵고, 훈련 횟수에 변화를 주어 하계 추계로 많은 수를 몰아 하지 않고 43-56년 졸업교무, 57-63년 졸업교무 등으로 훈련을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원기 71년도에 봉공직훈련이 추가되었다.

원기 74년도에 이르러<52·55·62년 졸업><48·49·58년 졸업><봉공직, 기능직>등 졸업연도별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원기 78·79년도에는 훈련 차수에 따라 몰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좋았다는 평가아래 교구, 기관, 교화단, 개인들의 자율조정에 의하여 본인들이 신청한대로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졸업 연도(예 45·55·66·77)별 교무훈련 그리고 도무·덕무 훈련으로 실시하고 있다.

IV. 원불교 교역자 재훈련 현황

이성택 교무는 원불교 훈련의 전개과정을 원기 9년 이전의 초기 훈련기와 동하 6개월의 훈련이 진행되었던 전문훈련기, 원기 23년 이후의 교무강습으로부터 시작되는 훈련분화기 그리고 사회훈련 준비기로 구분하였다. 초기 훈련기와 전문훈련기는 그 내용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목적과 재훈련의 목적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의 재훈련은 교무강습회를 시작으로 하는 훈련분화기 과정으로부터 교육기관과 분립하여 실시되어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교역자의 재훈련 현황을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1. 전무출신 정기훈련

원기 64년에 제정된 ‘원불교훈련규정’은 1·2급은 1주일이상, 3·4급은 2주 이상, 5급은 3주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훈련법에 의거한 재훈련을 하고 있다.

이 정기훈련은 교무(도무), 부교무, 덕무훈련으로 구분하여 직능이나 급수에 관계없이 평준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전무출신 정기훈련은 의무화된 재훈련이라는 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재교육이다. 이 정기훈련은 그 동안 교법을 체질화하고 공동체의 의식을 고양하며 교법의 사회화에 큰 공헌을 해왔다고 본다.

2. 편입 대학원 진학을 통한 재교육

교육기관의 진학을 통한 재교육이다. 그 동안 대학원 진학이나 편입이 교단적 인력수급에 의한 계획된 과정이 아닌 각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진학자에 대한 사전심사과정을 거쳐서 진학 자를 심사하고 있으나 이것은 교단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3. 타 기관을 통한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최근에 사회복지사, 유치원 원장자격, 청소년지도사, 중·고등학교 상담교사 자격증 등을 위하여 타 교육기관을 통한 비공식적인 재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단 업무의 세분화는 더욱더 많은 교역자로 하여금 일반 전문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격증 취득이 필수화되고 있는데, 이런 자격증 취득이 교단 적인 인력수급차원에서 검토되고 공식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각종 비정기 훈련

이외에도 원불교훈련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정기훈련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단체에서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교육을 받고 있는 교역자들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원불교는 전 교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재훈련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며, 그 외의 재교육은 대부분 개인화 되고 또한 재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인사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부분 사장되고 있다.

V. 교무훈련의 새로운 방안

교무의 재훈련 방안은 3대 설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의 초점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급수에 의한 훈련으로 급수와 전문영역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었고, 제안하고자한다. 두 번째는 각 직능별로 일체성과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였고, 세 번째는 정기훈련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진작시키며 교단의 일체성을 확립하는 전통적인 훈련의 장점을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제안을 하고자한다.

1. 급수별 재훈련

현재 교단의 계층별 급수는 「전무출신품과자격규정」을 제정하여 각 품과의 급별 자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전무출신으로 하여금 자질을 향상시키고 평등한 예우와 인사의 합리적 관리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급별에 의해 인사, 법호사정, 법위사정 등에 의해서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급수별 관리는 예우나 인사관리의 객관화에 진일보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급수사정은 교단의 징계유무, 전무출신 의무 훈련의 이행여부, 출가교화단 상시훈련의 이행여부, 근무 기간 중의 성의와 근무실적, 전무출신의 기본 정신과 윤리를 사정하여 급수별 자격전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한 예우나 인사의 합리적 관리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자질의 향상이나 실질적인 자격전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각 급수별로 수행해야 할 자질의 검증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급수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급수별 훈련이 수반되어야하고 실질적인 자격전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표2>교무품과 급수별 현황(원기 82년 5월 29일 현재 집무자) ★()안은 %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급수별 훈련은 현재의 전 급수대상자(전무출신)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급수로 승급할 대상자를 위한 훈련을 말한다. 급수 승급대상자가 아닌 교무들은 정기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하게 된다.

1) 1단계 : 5·4급 교무의 재훈련

5급 교무는 「법위 특신급 이상인 전무출신으로 5급 교무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이며, 4급 교무는 「5급 교무 중 법위 예비법마상전급 이상, 근무 4년 이상으로 그 기간 중 상당한 실력을 갖추며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이다. 현행 전무출신제도에 의하면 교무는 영산대와 교학대 4년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2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교무자격검정을 마친 후 5급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여 현장에 배치된다. 이 과정은 교육발전 안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인데 4년에서 6년으로의 교육연장은 고학력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1,404(100)	350(24.9)	198(14.1)	259(18.5)	247(24.8)	250(17.7)
남	540(38.5)	107(7.6)	52(3.7)	81(5.8)	172(12.3)	128(9)
여	864(61.5)	243(17.3)	146(10.4)	178(12.7)	175(12.5)	122(8.7)

그 동안 대학원과정은 1년 과정으로 실천교학을 중심으로 운용해왔으며, 이를 연장하여 대학원과정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원기 72년부터 시행된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장에서 교역에 임하고 있는 교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다.

<표3>대학원(훈련원) 1년 과정이 교화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열악환경속의 과정이었지만 현재까지의 1년 과정은 응답자의 68%가 교화현장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학원과정이 실천교학을 중심으로 운용하면서 학부과정에서 섭렵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표4>대학원(훈련원)1년 과정이 자신의 성장(종교적 품성, 교학적 이해, 실천교화력)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는 교화현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것인데,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화력배양 보다 개인적인 성장에는 기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학원과정이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는 실천교육 분야보다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대학원 과정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졸업 후 4년차까지의 교무들에 의하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과정을 시행함

구분	名數	%
많은 도움이 된다	25	17
도움이 된다	76	51
모르겠다	16	11
도움이 안 된다	30	20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	0.5
무응답	1	0.5
	149	100

에 있어서는 현재의 과정과 같은 형태의 교육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예비교무 양성과정은 너무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이다.

6년의 과정은 긴 교육에 비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교단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년의 과정과 부교무 2년 이상을 마친 뒤 필요에 의한 대학원진학으로 전문교육은 다시 받는다는 것은 실지 인력양성에서 너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구분	名數	%
많은 도움이 되었다	18	12
도움이 되었다	74	50
모르겠다	24	16
도움이 안되었다	26	17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2	1
무응답	5	3
	149	99

물론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이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워 창의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직 실지 교발위 제도가 완전 실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재론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여건상 큰 기대하기가 어렵다.

<표5>학부 졸업 후 현장근무를 2~4년하고서 대학원과정을 이수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5>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은 교무들은 대학원과정은 학부와 연계된 연속적인 교육제도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그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설문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대학원과정은 나약하고 안일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실천교육습득과 전문적인 자기개발을 위해서 현장 근무 후 대학원과정이 재교육차원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예비교무과정의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고 교역 일선에서 보다 전문적인 전문인으로서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4급교역자 재교육방안은 이미 선행논문발표자들에 제시한 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정리하면 보완한다.(원불교 교역자 재교육에 관한 일고찰-김준연, 이종영)>

가. 재교육 방향

구분	명수	%
찬성한다	107	72
모르겠다	11	7
반대한다	30	20
무응답	1	1
계	149	100

① 현재 6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예비교무 과정을 4년으로 과감하게 단축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현재의 학제 및 학점형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학사관리를 하면 6년 과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능하다고 본다.

② 4년만에 예비교무과정을 마치고 출가식을 한 뒤 기초 보수교육을 거쳐 교무로 임명 배치하면 실천교학의 약점은 보완이 된다.

③ 부교무 과정 4년을 마치면 대학원에 입학하여 4급교역자가 되기 위한 전문화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4년의 공백이 학문을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고 청소년교화의 공백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필자는 현재 대학원의 성격에서 볼 때 이런 지적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영향이 있다면 부교무과정을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교화의 공백우려는 현재 인사현상을 살펴볼 때 합당한 반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④ 교육과정은 전문화교육과정으로 교화전문인은 원불교학 과정과 원불교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교무로써 갖추어야 할 교학능력과 교화 능력을 극대화 시켜서 교화전문인력으로 배출하고, 그 외 기관에서 요청되는 전문인력은 개인이 지향하는 방향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타교육기관에서도 수학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표6> 대학원 과정을 전문인(교화, 복지, 훈련, 교육, 산업, 행정 등) 양성과정으로 다양화하여 일반대학원에도 진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6>의 설문은 현재와 같은 대학원제도이든 아니면 현장근무 후 대학원에 입학하는 제도이든 대학원과정을 다양화하고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회자체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역자를 만능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각 방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⑦ 전문화 교육과정은 교단의 장단기 정책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수학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교육, 자선, 행정, 복지, 산업 등 분야별로 전문인(교무, 도무, 덕무)을 양성하도록 한다.

⑧ 생활은 합숙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의 서원관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도록 한다.

나. 기대되는 효과

첫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구분	명수	%
찬성한다	124	83
모르겠다	9	6
반대한다	16	11
무응답	0	0
계	149	100

현재는 6년 기본교육과 부교무 4년으로는 교단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일반적인 과정을 마치고 전문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은 32-41세의 연령이 가장 창의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이 연령이라면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교단의 각 분야에서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원불교의 가장 큰 맹점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앞으로의 시대에는 전문성이 없이는 조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특히 복수전공제를 시행하면서 양성된 실력을 전문화하여 교정에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행 제도라면 남자의 경우 최소 30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에 교역에 임하게 됨으로써 많은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대학원을 마치고 부교무 2년을 마친 뒤

다시 필요에 의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면 교육기간은 더 길어지고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셋째, 교육효과의 극대화이다.

현재의 교육은 학부와 연속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피교육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과 또한 자신의 적성과 선택에 의한 교육으로 자발적인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장근무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적성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를 결정하는데는 잦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2) 2단계 : 3급 교무 재훈련

현재 3급 교역자는 「4급 교무 중 범위정식 법마상전급 이상, 법랍 15년 이상, 근무 10년 이상으로 상당한 수행과 교화의 실력이 있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이다. 3급 교무재훈련은 휴식년제를 통한 재교육 차원에서 구상한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사제 봉직 10년이 되면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제들의 장기근무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는데, 교단에서도 [교단 제3대 설계 보고서]에서 휴양제도 실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교단 3대 설계안에서는 휴양제도의 실시 배경으로

- ①교역자의 건강 관리상 재충전이 절실한 실정이며
- ②인사 순화과정과 재교육과 연계하여 휴양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 실시 방향으로는

- ①3대 제1회는 20년 이상 교직복무 또는 50세 이상 교역자에게 적용하여 실시한다.
- ②3대 제2회는 전교역자 6년 복무 후 3~6개월 이상 휴양기를 실시한다.
- ③3대 제3회는 6년 복무 후 1년을 휴양한다.
- ④휴양기는 재교육, 특별연수 등과 연계하여 운용한다.
- ⑤휴양에 필요한 기관설립을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 ⑥매주 교무의 1일 휴일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정원에서는 82년부터 실 근무 15년 이상 교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나 휴양기의 내용에 대한 준비는 안된 것으로 안다. 이 3대 설계안은 너무 잦은 휴양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인력관리상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재훈련을 휴양년에 병합하여 심신간의 휴양을 통한 재충전과 중간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교역생활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케하기 위함이다.

재충전을 위한 휴양제의 실시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문직종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원불교 교무들의 역할이나 생활구조에서 이 제도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가. 재훈련 방향

- ①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교육내용은 중간지도자로의 능력배양, 자신점검 그리고 휴양(휴양의 집- 중도훈련원 부설기관)의 기간으로 한다. 휴양은 시설을 갖추어서 재훈련과 휴양을 병행하도록 한다. 중앙중도 훈련원에서는 자기적인 계획으로 「교무의 집」을 구상하고 있는데, 콘도형태로 운영하여 효과적인 재훈련이 되도록 한다. 현재와 같은 휴양년제도는 실질적으로 교역자들이 충분한 휴양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이 부자유스러울 수밖에 없다.

③3-6개월은 재훈련과정을 이수하며, 그 외 기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각종 연수도 받고,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 ④훈련중인 교무는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며, 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보직을 받는다.
- ⑤훈련은 교역자전문훈련기관인 중도훈련원에서 담당한다.
- ⑥훈련 성적과 3급 자격검정을 거쳐 합격자에게 3급 자격증을 부여하며, 개인 범위와 인사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기대되는 효과

- ①휴양에 의한 심신의 재충전으로 교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②중간지도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자각하게 한다.
- ③자격검정을 통해 교역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④인사 적체현상을 상상부분 해결할 수 있다.

3) 3단계 : 2급 교무 재훈련

현재 2급 교무는 「3급 교무 중 범위 예비법강항마위 이상, 법랍 20년 이상, 근무 15년 이상으로 수행과 교화의 공이 드러나고 소저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로 되어있다. 현재 2급 교무는 기관이나 교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교육이 없었으며 기간만 지나면 부여되는 형태였다. 그러므로 2급 교무의 재훈련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가. 재훈련 방향

- ①기간은 3개월로 한다.
- ②교육내용은 재훈련을 통한 법력증진과 교화의 방법론 그리고 교당과 교단조직의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 ③훈련 중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훈련 후 현직에 복직한다.
(훈련 중에는 부직자나 순교무가 임무를 대행한다.)
- ④훈련은 중앙중도훈련원에서 담당한다.
- ⑤훈련 성적과 2급 자격검정을 거쳐 합격자에게 2급 자격증을 부여하며, 개인 범위와 인사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훈련의 효과

- ①질적인 범위향상과 재충전을 교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②전략적인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출 수 있다.
- ③자격검정을 통해 교역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4) 4단계 : 1급 교무 재훈련

1급 교무는 「2급 교무 중 범위 정식법강항마위 이상, 법랍 25년 이상, 근무 20년 이상으로 수행과 교화의 공이 드러나 대중의 사표가 되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일반 사회의 최고관리자나 최고경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교단의 얼굴역할을 하며, 후진들에게 비전이 된다. 또한 교단을 선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교조정신을 실현하는 교단경영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전략적인 마인드와 추진력 그리고 감각이 필요하다.

가. 재훈련 방향

- ①교단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터득케 한다.
- ②교조와 중법사의 경륜과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도자로서 전략적 마인드, 추진력, 비전제시 그리고 대 사회적 감각을 갖도록 한다.
- ③교육기간은 1개월로 현재의 보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④훈련은 중앙중도훈련원에서 담당한다.

⑤훈련 성적과 1급 자격검정을 거쳐 합격자에게 1급 자격증을 부여하며, 개인 범위와 인사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훈련의 효과

- ①교단 최고지도자로서 자긍심과 역할을 부여한다.
- ②전략적인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출 수 있다.
- ③자격검정을 통해 교역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④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2. 직능별 재훈련

원불교는 교화, 교육, 자선, 산업, 훈련,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역자들이 봉직하고 있다. 소수의 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문적 직능교육이 없이 혈성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화시대인 만큼 직능별로 전문화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4급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직능별 훈련으로 이 전문인력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한다. 그럼으로써 각 사업장의 전문화와 전문인력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낙원세계 인도에 활용할 수 있게된다. 이를 위해 직능별 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각 직능별 교역자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7>직능별 교무원현황(원기82년 5월29일 현재) ★()는 %

★총부 : 서울사무소, 영산사무소 ★산업기관 : 서울회관 포함

★기타 : 정토회관, 단체, 금강사업회, 정화제복사 포함

<표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일터에서 봉직하는 교무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화가 필수적이고 또한 재교육 역시 필수적이다.

직능별 훈련의 필요성은 이미 3대 설계안에서 제시되었으며, 원기 81년도 훈련위원회에서도 직능별 훈련을 결의하여 원기 8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바 있다.

중도훈련원에서는 훈련위원회의 결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1차 교무 훈련시 설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직능별 훈련의 필요성을 교무원 스스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능별 훈련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 우려는 원불교훈련법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주로 업무관계로 훈

	전체	총부	교화	교육	자선	훈련	산업	문화	기타
계	1404(100)	120(8.5)	849(60.5)	166(11.8)	144(10.3)	49(3.5)	34(2.4)	22(1.6)	20(1.4)
남	540(38.5)	72(5.1)	198(14.1)	120(8.5)	72(5.15)	26(1.9)	23(1.6)	18(1.3)	9(0.6)
여	864(61.5)	48(3.4)	651(46.4)	46(3.3)	72(5.15)	23(1.6)	11(0.8)	4(0.3)	11(0.8)

련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며, 직능별로 훈련을 실시할 때 업무의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능별훈련이 정착되기까지는 정기훈련과목과 직능훈련과목을 겸하는 훈련이 되도록 하며, 가 직능별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부작용이나 업무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려고 한다. 또한 훈련내용도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각 직능에 요구되는 분야를 과정으로 편성하고자 한다.

훈련방향은

①2년을 주기로 1주일씩 의무훈련으로 한다.

설 문 내 용	名數	%
매년 직능별 훈련을 하자	22	24
3-4년마다 한번 정도는 해야한다	31	34
직능별 훈련이 따로 필요 없다.	13	16
무기재	5	6
계	71	80

- ②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직무능력, 기능,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③ 최신의 다양한 업무추진기법을 소개하고 또한 현장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습과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 ④ 직능훈련은 교화, 교육, 자선(복지), 산업, 훈련기관으로 세분화하여 훈련을 소집하고 과정을 개설한다.
- ⑤ 11과목의 체질화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⑥ 훈련은 중앙중도훈련원에서 해당기관과 협조하여 담당한다.
- ⑦ 훈련결과는 인사에 반영하도록 한다.

3. 훈련법에 의한 재훈련

원불교는 혈연보다 법연의 소중함을 중심으로 출가교단을 형성하고 선진 후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인 중법사를 중심으로 수직, 수평관계가 함께 얽힌 공동체를 지양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중도훈련원에서는 전교역자를 선후진이 함께 호흡하며 교법의 체질화와 재충전의 기회로 매년 정기적으로 의무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 전통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즉 순수정기훈련법을 그대로 시행하여 정기훈련법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훈련체계를 세우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무훈련은 주체는 11과목에 두고 훈련을 하여왔지만 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삽입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누적되어 오고 있다.

그 훈련방향으로는

- ① 11과목을 중심으로 체질화를 지향한다.
- ② 시대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③ 심신간의 재충전기회가 되도록 한다.
- ④ 동지간에 친목과 인화를 통한 공동체윤리를 형성한다. 급수나 직능에 관계없이 선진 후진이 함께 훈련을 함으로써 원불교만의 독특한 공동체윤리를 구축하도록 한다.
- ⑤ 2년마다 1주일씩 실행한다.
- ⑥ 훈련은 중앙중도훈련원에서 담당한다.

VI. 마무리 글

정보화사회는 나날이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핵심인 컴퓨터가 3개월을 주기로 변화되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대에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현대에 적응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다.

최근에 원불교교화의 침체성은 이런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단이나 교역자들에게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치변화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단이나 교역자 모두 새로운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교단은 그 동안 각종 위원회를 두고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교역자 재훈련도 이미 3대 설계안에서 제시되었지만 그 실천방안은 다른 과제들처럼 사장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위와 같은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 교역자들은 창립당시의 생명력을 더욱 힘차게 살려나가는 방향에서 자신의 서원을 극대화하고 시간활용의 재창조를 통하여 효과적인 자기관리와 혁신을 도모해야만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으며, 교단도 새로워질 수 있다. 또한 교단은 각 교역자들이 자기 삶에 자긍심이 넘치고 자기실현의 기쁨이 충만 되도록 복합 교화능력을 갖춘 21C 미래 지도층을 육성하며 교단차원의 경영혁신을 실천할 변혁의 주체가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더불어 효과적인 개교의 동기실현과 각 교역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력관리 면에서 부문

별 전문가 양성이 절박하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은 재훈련방안을 제시해본다.

그래서 급수에 따른 구체적인 특성을 진고 그 구체적 특성은 시대적 상황과 시대가 요구하는 기능과 그 기능을 실천하여 교역자 자신과 교단이라는 조직에 생동적인 갱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급수별 훈련과 직능별 전문훈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인사제도의 과학화이다. 5급 교무는 대학원과정에서 자신의 소양과 관심에 의해서 품과와 전문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인사의 재편성을 한 뒤에, 선택된 전문분야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화와 같은 전문분야별 인사순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으며 각 종교집단도 21세기를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원불교의 가장 급선무는 조직과 구성원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으로 훈련의 새로운 방안모색을 제시한 것이며, 위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를 도표로 종합하겠다.

<표9>년도에 의한 단계별 훈련과정

<표10>급수별 훈련 과정

참자는 교도 교화에 관한 연구

I. 서론

원불교가 창교된지 8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금까지 원불교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교화 1세기인 개교1백주년을 준비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민족종교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 이어 꾸준한 발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종교로 성장 민족의 복음화와 국가 번영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불교가 과연 그

연도별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간	담당기관	비고
연도구분 없음.	급수별 훈련	1개월-12개월	1-3급: 중앙중도 4급: 원불교대학원	매3년마다 승급 예정자
1차 년도	직능별 훈련+11과목	7일	중앙중도훈련원	
2차 년도	훈련법에 의한 재훈련	7일	”	

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대해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겠다.

급수별	대상	교육훈련내용	기간	담당기관	자격증	보직
5급	예비교무	교육목표에 의한 교역자양성 (초급교역자)	4년	교학대학 영산대학	5급	졸업후 교당배치
4급	4급 진급예정자	전문능력 배양	2년	원불교대학원	4급	해임
3급	3급 ”	휴양년, 재훈련(중간지도자)	1년	중도훈련원	3급	해임
2급	2급 ”	재훈련(중간지도자과정)	3개월	”	2급	유지
1급	1급 ”	재훈련(최고지도자과정)	1개월	”	1급	유지

한국은 다종교 사회로 전 인구의 50.7%가 어떤 유형으로든지 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인구 가운데 단지 0.2%만이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에 비해 원불교 신자 비율은 0.4%에 지나지 않는다. 원불교의 교세 확장은 원기 71년부터 80년까지 입교수가 매년 19,000여명으로 늘어나 지금은 신자의 수가 대략 1,255천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이들이 무려 4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교화의 대상이 많음을 알 수 있으나 교세의 둔화

로 원불교 교화의 정체성을 하루빨리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화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점차 입교수의 감소내지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도들이 많아서 내적 성숙의 미흡으로 잠자는 교도들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되겠지만 적은 수의 교도들이 잠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떤 교도들은 교단을 떠나 비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단을 적은수의 교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어 원불교 신앙생활을 통한 참된 가치관을 확립하여 낙원세계 건설의 주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불교 교화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이미 소태산 대종사가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十人一團의 단 조직을 제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잠자는 교도 교화의 실천사례 및 연구활동의 부족으로 잠자는 교도에 대한 교화의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 천주교의 냉담자에 대한 연구 논문 등을 참고하여 그 방향성을 찾고자 하였다.

II.본론

1. 잠자는 교도의 개념

원불교 잠자는 교도에 관한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지지 않았다. 우선 천주교에서 말하는 냉담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냉담자를 전통적으로 냉담자라 할 때에는 카톨릭 신앙자체를 거부하는 배교자나 카톨릭 교회의 교리 가운데 일부를 거부하는 열교자를 의미해왔다. 그리고 이어 더하여 냉담자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 사람이나, 마음속으로까지 주님을 완전히 떠나 대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인식 이외에도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랑의 계명과 교회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신도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람을 냉담자로 규정지어 오고 있다.

원불교 교헌에 절차를 밟아 입교한 이를 교도라 하고 절차 밟지 아니한 신봉자를 신도라 한다. 교도는 다음 의무와 권리가 있다. 조석심고의 의무, 법회출석의 의무, 보은 헌공의 의무, 입교연원의 의무,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 교정참여의 권리이다. 따라서 원불교 교도가 교당을 통해 신앙행위를 하는 것은 법회출석과 보은헌공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 교당에 소속하여 매주 정례법회에 참석하여야만 교도들간에 친교의 시간이 많아져 신앙생활이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원기 71-80) 입교한 교도가 년 평균 4.0% 증가하여 169,500명이 증가한 반면 교도 법회출석률의 감소는 년 평균 4.7%로 입교한 교도수가 법회출석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입교수 전부가 법회출석으로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교도들이 교당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률의 감소가 심각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불교에서 말하는 잠자는 교도는 입교한 교도가 교도의 의무인 법회출석을 하지 아니한자로 최소한 6년동안 범위사정과 사업성적에 누락된 교도로 구분함이 좋을 듯 하다.

잠잔다 함은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금 시간이 되면 깨어나듯이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요, 함축이다. 신앙이란 일반적으로 종교적 절대자를 믿고 양모하여 의지하려는 엄숙·경건한 태도이자, 종교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로 부처님이나, 하나님같은 성스러운 절대자를 믿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때문에 잠잔다는 것은 영원한 휴식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리듬이요, 주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원불교에 입교하여 교도가 되었으나 내일을 향한 전진으로 잠깐 쉬는 교도이다. 열악한 주변의 환경요인 내지 개인 스스로 믿음이 약해진 경우가 아닐는지 생각해 본다. 원불교 공부를 잘 하려면 필요조건인 신심·공심·공부심이 있어야 한다. 신심은 신성·신앙심이요, 공심은 공익심·봉공심이며, 공부심은 수행심·정진심이다. 신심은 일원상의 진리와 소태산 대종사를 확고히 믿는 마음이다. 투철한 신심을 갖기 위해서는 큰 서원

을 세우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법과 내가 하나가 되며, 스승과 내가 하나가 되고,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철저한 신심을 사대불리신심이라 한다. 그러므로 원불교인이 되면 진리·교법·스승·교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따라서 잠자는 교도에게도 이미 천의를 감동시킬 만한 신성과 신앙심이 철저하였으나 어떠한 연고로 신앙적 열정이 식어버리고 수도 적공 뿐만 아니라 법규·계문까지 준수하지 않는다. 하여튼 교단적으로 잠자는 교도에 대한 개념정리가 충분한 논의 끝에 정리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2. 잠자는 교도의 현황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3대종교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지칭되고 있다. 천주교의 교세는 불교와 개신교와는 달리 분파가 없으며 신도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종교로 평가받고 있다. 천주교는 통계청 발표 95년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300만명의 신도가 있다. 한국천주교회는 해방직전인 1944년도 남북한과 연길(만주)교구를 합쳐서 179천명에 지나지 아니 했으나 1950년대 연평균 16.5%씩의 증가, 1960년대는 6.2%, 1970년대는 5.2%, 1980년대는 7.5%의 평균 증가율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어느 지역의 교회보다 활기찬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긍정적,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종교인 가운데 상당수가 천주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며 만일 자신이 종교를 선택한다면 천주교를 믿겠다는 반응을 보여 준 바 있다. 절대다수의 천주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 천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내부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록의 <표1> 「한국 천주교회의 신도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후반기 이후 한국 천도교회에서는 대인 영세자의 비율이 감소되기 시작했다. 즉 1988년에는 대인 영세자가 전년 대비 6.9%감소되었고 1989년 6.1%, 1990년 0.27%가 각각 감소되었다. 이렇듯 1980년대를 전후한 냉담자는 전체 신도수에서 10% 상회하고 있으며 신도수의 증가와 함께 냉담자 숫자도 증가해 갔다.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 종교를 가진 적이 있는 비종교인들 10%가 지난날 천주교를 믿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개종경험이 있는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 천주교를 믿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12%에 이르고 있다. 불교신자를 100으로 볼 때 1.4%가 천주교로부터 개종한 사람이며 개신교 신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3.0%가 천주교로부터 개종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가운데 70%내외가 천주교를 믿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바는 천주교회의 냉담자나 거주 불명자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천주교 신도라는 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타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천주교 신도들 가운데 반 정도는 타종교로부터 입교 권유를 받은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천주교 냉담자는 전체 신도 가운데 10%상회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숫자는 전체신도중 5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 신도의 냉담 빈도가 더 높으며 젊은 층의 냉담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한 대학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대학에 다니는 신도 학생중 44.59%가 스스로 냉담자라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대의 종교 신앙인 가운데 21.6%가 종교집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15세부터 19세에 이르는 연령층의 종교 신앙인증에서도 20.4%가 종교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교회내지는 종교로부터 젊은층의 이탈 현상은 매우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 원불교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교화가 활발히 전개되어 교당수 뿐만 아니라 교도수도 매우 신장되었다.

그러나, 교도수 증가에 따른 법회출석내지 각종 의식에 참여하는 교도의 수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원기 71년부터 76년까지 년 평균 입교와 출석률은 각각 5%, 4.1%로 증가하였으나 원기 77~80년도까지는 입교는 2.6% 증가한 반면 출석률은 5% 감소하였다. 원기 8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교도의 입교수 515,779명중 출석수는 25,034명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사망과 개종을 제외한 전체 25%인 12만명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3. 잠자는 교도의 발생 원인

1) 사회적 원인

한국사회는 80년대 말부터 많은 모순과 부조리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하여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사회 곳곳에 민주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피난처로서의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종교가 사회정의 면에서 중요한 역할과 노력을 해낼 때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은 다원 가치사회 안에서 종교의 역할에 한계가 많고 사회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능력이 부족함을 보면서 더 이상 종교로부터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종교의 역할 축소는 잠자는 교도 증가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잠자는 교도 문제속에는 오늘날 원불교, 나아가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함께 내재해 있다. 전 교도수와 입교자 둔화, 법회출석의 감소 등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입시경쟁에서 탈락한 청소년들의 소외감에 따른 공동체 이탈, 군대생활, 치열한 생존경쟁과 성공지상주의, 부정, 비리,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려는 향락주의 등이 팽배해지면서 신앙과 생활의 부조화에 따른 갈등, 신앙에 대한 회의, 교당 공동체 부적응 현상이 복합적으로 빚어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가 점점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로 나아감에 따라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영적 목마름내지 마음의 평온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가 담보해주는 현세적인 만족과 쾌락, 권능에 깊이 취해있는 현대인에게 종교나 신앙은 무의미하며 번거로운 관념일 뿐이다. 많은 교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은 불행히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이 막강한 이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항하여 싸울만큼 깊지 못한다. 또한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이 너무 짧고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되었다. 새로운 가치가 재정립되지 못한 틈을 타서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가치기준이 하나의 척도가 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이렇듯 원불교 교법이 이기주의와 물질문명의 사회안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을 신중히 모색해야 함은 이 세대 원불교 교도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이다.

2) 교당 내부적 원인

한국 천주교는 냉담을 조장하는 객관적 여건 가운데 첫째 요인으로 문화적 특성, 둘째 예비신자 및 기성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부족, 셋째 본당 공동체의 비대화, 넷째 결혼과 인구이동, 다섯째 냉담자 자신의 태만과 노력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문화적 특성을 세속주의의 성행, 권위주의에의 도전, 과학만능의 풍조, 기복주의적 경향을 말하고 있다. 또한 교회공동체의 문제점인 신도 교육상문제, 신앙 이해상의 문제, 신학 연구상의 문제와 입교교육 과정을 지적하였으며, 본당 공동체의 비대화는 신도 연대감의 약화와 소외감의 강화, 재정 부담의 증가, 인간 관계의 문제점 등이 제기 되었다. 때문에 결혼은 배우자 문제, 생활고

로 인한 주거지 이동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냉담한 신도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다. 교회의 지식이나 상식을 알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려는 결의가 결여된 사람들이 많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잠자는 교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잠자는 교도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혹은 소그룹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뚜렷한 이유 없이 잠자는 교도 등의 부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잠자는 교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느 한가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입교과정의 문제

입교란 원불교 교도가 되는 관문이다. 교도가 되면 누구나 교도의 사중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보통 십계문을 받아지키도록 한다. 이처럼 입교는 원불교에 귀의하는 매우 소중한 절차이다. 그러나 요즘의 입교과정은 매우 타당성화 되어가고 있다. 물론 신입교도가 되기전 교도로써 알아야 할 기본과정을 몇주내지 몇 개월동안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수토록하고 입교식을 거쳐 교도생활을 적응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장에서 입교과정이 소홀하게 이뤄진다. 교헌, 교규 등에 명시되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천주교에서는 입교과정교육을 6개월내지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고 신자의 의무, 신앙의 중요한 진리, 전례에 참석하는 법 등을 강의를 통해 배운다.

그러나 예비신자때 제대로 신앙의 틀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하느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느끼기는커녕, 영세 받은 후에도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쉽사리 냉담하게 되거나 종교를 바꾸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사실 영세후 냉담하기 까지의 기간이 과거에 비해 다소 빨라지는 추세에 있다. 이는 영세자가 부푼기대와 희망속에 신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영세입교 하였으나, 교회밖에서 본 교회와 실제 교회안에서 느끼는 괴리감과 실망등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들을 교회 밖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후 미사와 전례에 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자 상호간의 나눔과 사랑이 부재한 공허한 관계에 대한 회의가 낙망으로 변하고 다시 좌절로, 더 나아가 소외감마저 느끼게 되어 드디어 냉담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천주교 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냉담자 증가현상의 그 내면적 원인을 영세 입교하는 신자들의 마음안에 참된 신앙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원불교 입교실태도 각양 각색이다. 모태중 신앙으로 출생과 더불어 입교, 부모님의 인도, 가족 친지의 권유, 애경사 의식참여에 의한 권유내지 자발적 입교, 교무의 생활과 설교감호, 교서를 통한 입교, 강요나 자발적 입교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여튼 입교동기에 관계없이 소중하고 엄숙해야 될 입교과정에 소홀함과 정성이 부족하다면 이는 출발부터 마음이 식어버리는 잠자는 교도로 전락케 된다.

종교를 믿게 된 시기는 청소년기 이전 41.3% 청장년기 42.1% 중년기 10.9% 노년기 5.1%의 순으로 나타나듯이 대체로 청소년기 이전에 신앙을 자의반 타의반 갖게 된다. 이렇듯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의 부재의 시기인 유아 소년기에 입교고정이 대부분 되어진다. 이러한 식에 종교적 체험이나 올바른 신앙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 환경여건이 되어지지 못하였을 때 뜨거운 열정이 식게 마련이다.

나. 생활상의 문제

일부 교도들은 직장에서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닭으로 부득이 잠자게 된다. 원불교 교도들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런 가운데 매주일 교당에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만일 가난에 쪼들린 수많은 교도들을 교당에서 외면한다면 대부분의 교도들은 교당을 멀리 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잠자는 교도로 남게 될 것이다. 아직도 주변에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열등감을 느껴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교당은 남녀노소, 지우차별이 없는 만인의 도량이다. 그러나 무한경쟁 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이나 힘있는 경제는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빵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이다. 생활의 안정만이 신앙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다. 결혼의 문제

결혼 적령기에 이른 많은 교도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타종교인이나 비신자 사이엿 선택하는 사례가 흔하다. 무론 교세가 급격하게 신장됨에 따라 인적자원이 많아지면 교도들간에 충분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여건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시되는 것은 결혼 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보다는 원불교 교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잠자게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여 주고 있으나, 결혼 후에는 신앙의 통일을 모색한다. 가정평화내지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나, 신앙을 중시하기보다는 새 출발의 보금자리에 관심이 있다. 더욱이 오늘날 사회 문제인 이혼 문제의 급격한 신장은 가정 생활의 단편을 보여 줍니다. 성격과 종교적 갈등으로 야기된다하듯이 동반자는 같은 신앙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주거이동으로 인한 문제

경제가 급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농촌의 많은 인구들이 공장지대, 소비지대, 대도시로 몰려들어 이촌향도란 말이 나오게 되었다. 도시의 인구들이 시골로 내려가려는 경향은 거의 없는 반면에 대도시 등에서는 몰려든 인구로 인구밀집 현상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교도들도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 타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주거이동하는 교도들도 상당수 있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무작정 올라온 자신들의 처지를 고려해 돈을 벌지 않고 교당에 나가 온종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고된 일을 하다보면 자신에 대한 원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일 저런일 하다보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마음이 굳어져 자행자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휘향찬란한 세속의 황금 만능주의에 찌들어 교당을 떠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설사 교당에 나가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웬지 낯설기에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한 교도들에 대한 교당의 관심과 관리가 부족한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마. 타종교로 개종문제

타종교로 개종하는 이들을 보면 대체로 신앙심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단지 믿음이 약한 교도들에게만 돌릴 수 없다. 교단이 교도들에 대한 신앙훈련과 교도관리를 소홀히 함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개종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종교인 중 19.7%로 종교인의 1/5정도가 개종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개종 경험률이 높았으나 이제는 비슷한 수준이며 50세 이상 남녀 개종경험률이 각각 14.7,16.6%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다종교 사회에서 자신이 선택한 종교가 일생을 통하여 참된 이생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종교가 궁극적으로 종교의 본질을 수행하지 못한점도 있겠으나 신자들의 해바라기성 믿음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바. 교당활동의 문제

종교가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는 사회와 함께 존재하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 종교는 종교적인 면, 윤리적인 면, 문화적인 면,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종교가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면서 잘한 일에 대하여 호평을 받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라도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종교에 대한 무서운 질타가 쏟아진다. 더욱이 교당의 잘잘못은 교화에 커다란 비중이 있으므로 교당의 사회활동은 신중해야 된다. 사회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활동은 교리정신에 바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당이 사회와 무조건 타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교당교화 방법론이 잘못되었다면 시인하고 옳은 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교당의 3대목표인 교화·교육·자선활동이 교화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리향상과 함께하는 교화활동을 실천하였으나 이런 활동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어 교도들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교당의 사회참여는 소금과 빛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듯이 지나친 교화의 수단보다는 종교 본질의 활동에 전념해야 될 것이다.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는가에 대한 반응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과 복을 받기 위함이 66.4%로 차츰 마음평화에 종교를 믿는 일반적 견해를 볼 수 있다.

사. 교도 자신의 문제

교당안에 잠자는 교도의 증가는 바로 교도 자신에게 있다. 교도가 되었으면 교도 사종의무를 실행하여 수도적공으로 삼대력을 쌓아 원만한 신앙인으로 불과를 성취하는 깨달음의 선각자가 되어야 낙원세계 건설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안일과 태만으로 자기 자신의 편안하고 이기적 목적에만 급급하여 신맥이 끊어진 사람,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 범회출석을 빠지는 믿음 약한자들, 물질과 탐욕으로 향락에 눈먼자들, 은혜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잠자는 교도들이다. 원망과 시기로 남을 탓하며 방황하는 닫힌 마음의 소유자인 자신을 냉철히 비판해야 될 것이다. 모든 원인의 근원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스스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 버린다면 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이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을 극복하고 성자의 혼을 체받는 깨어있는 종교인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당의 제문제는 나로부터 변화될 때 해결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잠자는 교도가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외에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많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분만 아니라 교당의 정책·교당운영·교도간 인간관계·각종 훈련과 교역자 자질 등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표출되어 발생되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교당에서는 잠자는 교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잠자는 교도의 교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4. 잠자는 교도 교화 방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잠자게 되거나 잠자는 교도로 규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잠자는 교도가 발생한 것은 교단 초기에도 나타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오늘날 잠자는 교도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는 교단내지 교당교화자의 반성으로 잠자는 교도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카톨릭 교황 바오르 6세는 세례를 받아 신앙인으로 탄생했으나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신자들, 신앙은 있으나 신앙의 기초적 지식이 희박한 신자들,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에 거부감을 느끼고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해 복음화를 통한

선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화 바오르 2세는 오늘날 종교적 상황을 지적하며, 냉담자 발생의 요인으로 세속화현상, 종교적 상대주의 도시화와 대량이민, 인간 중심주의, 그리스도 국가들의 탈그리스도화 등을 지목, 세례를 받아 공동체를 이룬 신자들이 신앙의 생생한 의미를 상실하고 교회에서 사랑을 얻지 못해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상실하였기에 복음화가 다시 새롭게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프랑스 카톨릭 교회는 수년전부터 신앙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신영세자를 위한 모임이다. 신영세자들은 뜨거운 열정과 함께 깨지기 쉬운 연약함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모임의 열매들은 대단히 복음적이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신앙의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소속감, 상호 책임감 등을 느껴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판단력내지 극복해 나갈 힘을 얻고, 냉담했던 이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창구역할이 되도록 한다. 또한 북미 교리교육 연구모임에서는 냉담자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3박4일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 다시나오는 교회의 성원이 되도록 한다.

대부분의 교도들은 잠자는 교도들 가운데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 잠깨지 않은 교도, 교단과 멀어져간 교도, 영원히 멀어져간 교도들을 위한 교화의 방법론이 나와서 그들이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교당이 있음을 알리는 적극적 교화가 아쉽다. 잠자는 교도는 입교할 때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막 생겨나면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여튼 잠자는 교도에 대한 교화 내지 잠자지 않도록 방지를 위한 교도들의 신앙 쇄신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원불교가 지향하는 교화는 세계화이기 때문에 국내외 교화에 따른 잠자는 교도교화의 방향 모색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1)교화단 교화 활성화

원불교 훈련규정 제 16조에 「신입자의 의무에 새로 입교 또는 출가한 교도는 기초 훈련 관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훈련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하였으며, 교화단 규정 제 2조 「교화단」은 본교 교도를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대중교화와 일원세계건설에 유능한 조직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 16조 「훈련」조항으로 교도훈련 3단계 과정 훈련, 교리의 훈련, 예법의 훈련, 비교도 교화 훈련, 생활개선 훈련 등과 제 20조 「단활동」은 대외 봉사 활동, 교도·비교도의 일체 교화 활동, 단원들의 생활 개선 활동, 단별 단원간의 친목활동, 애경상문 활동, 등으로 단의 응집력을 향상시켜 교리 이념을 구현하고 일원세계 건설을 하기 위해 단활동을 한다 규정하였다.

이와같이 원불교 교화단과 훈련규정을 살펴보면 비교도 교화뿐만 아니라 새로 입교한 교도 까지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밟도록하여 교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도 신입 교도, 기성교도 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교재인 표준 교재나 지침서가 제작 보급되어야 한다. 교단의 발전, 교당교화의 신장력은 교도수의 증가에 있듯이 교도들이 잠자지 않고 잠자는 교도를 일깨우는 것과 새로운 교도들을 교당으로 안내하는 길이 교당교화 발전의 첩경이다.

더욱이 교육·훈련교재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등이 손쉽게 이해하는 계층에 맞는 교재를 제작 보급한다면 비신자와 신입교도들에게 관심과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최근 서울교구는 신입교도 훈련의 일환으로 교리강좌 총부성지순례 등으로 신앙 생활의 증진을 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교재부재, 교사의 교육기법 등이 잘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원의 진리를 찾아온 구도자들에게 원불교 교법의 참 정신을 가르쳐 주고, 교리정신

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발견토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리교육은 소태산 대종사가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일깨워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훈련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일원의 진리를 깨달은 신앙인들의 모범적 삶의 터전인 교당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도들이 잠자게 되는 근본적 요소 중의 하나가 신앙인들이 성실치 못한 삶이 잠자는 교도를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성실치 못한 삶으로 가식과 허구적인 신앙생활은 교당 공동체의 저해요인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인은 지식만의 신앙이 아니라 아는 바를 믿고, 믿는 바를 가르치고, 가르친 바를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실천하는 신앙인은 교당의 주인공이요 열심을 가진 모범된 교도이다. 모범된 교도는 자기 스스로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다.

2) 출가 재가 교역자의 교육, 훈련강화

교단을 이끌어 가는 성직자. 재가 교역자들에 대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직자, 재가교역자로 인해 교당을 떠나는 교도들이 알게 모르게 있다. 교무의 임무와 역할은 단순한 것은 아니다. 교무는 개인에 있어 구도자, 교당이나 기관의 관리자,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요, 교화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무의 역할은 수도자로서 교무, 교화자로서 교무, 관리자로서 교무, 지도자로서 교무로 바람직한 교무상은 열심인·봉공인·훈련인·원만인·정의인의 인간상이다.

교무는 일원대도의 정법을 깨닫도록 안내하고 교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만하는 모습, 권위를 우선으로 내세우는 모습, 특수 계층만 상대하는 모습, 사무적으로 교도들을 대하는 모습, 출가·재가 교역자간의 불협으로 교도들이 쓸쓸히 교당을 떠나간다. 자신들의 생각과 엄청난 괴리감을 두는 교당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잠자는 교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가 재가 교역자의 재교육인 정기·상시 훈련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출가·재가 교역자의 교육훈련의 증진만이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화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천만 방편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잠자는 교도에게 법의 해명을 심어주는 신맥이야말로 영원한 법 보시가 될 것이다.

3) 순교 교화의 활성화

순교는 교도 교화를 위해 시행되는 법회·훈련·교화단·의식·봉사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그 역할이 크다. 교당규정에 의하면 순교의 직무는 일체 교화 조력, 의식 보급, 교당개척을 담당한다. 하여 교당 구성임원으로서 순교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순교는 교역자가 교도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이다. 이는 교도로 하여금 법신불 신앙과 수행을 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진리와 교당을 향한 마음을 지속시키게 하는 방법, 교당생활을 잘 지도하는 방법으로 법신불의 은혜와 위력을 입게하여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순교는 순교의 성격과 형태를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 직접·간접순교, 정기·부정기순교, 교무·교도순교 등이 있으며 교화단별 순교, 출석독려 순교, 환자문병 순교, 직장순교, 잠자는 교도 일깨우는 순교 등으로 대별 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격과 형태별로 되어지는 순교는 교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자아 실현을 일깨우는 원동력임을 자각케 함은 물론 일원의 복음을 전달하여 은혜와 보은의 새로운 삶이 거듭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순교의 방침이 분명해야 한다. 순교는 계획성·공평성·신앙성·수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순교자는 재가 교역자나 교무가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서 발전적 순교를 위한 제언에 원불교 순교의 형태는 가정과 교도중

심, 일반중심, 교역자 중심에 고정된 형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원불교 순교는 교역자 중심에서 삶의 현장으로, 전화 방문순교에서 통신문화순교 등 다양화 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잠자는 교도의 순교 역시 재가 교도의 역할 증진으로 모색해야 한다. 재가 교도들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화역향을 극대화시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줌도 새로운 순교교화의 활성화이다.

또한 원불교 순교는 일반교도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순교의 대상이 어린이, 학생, 청년, 일반, 남녀별, 연령별, 직업별 등 대상과 특성에 따른 순교가 적절하게 실행됨도 잠자는 교도교화의 대상에 따른 적극적인 순교의 방법일 것이다.

4) 교단의 의지와 잠자는 교도의 노력

원불교 교단에 교단을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두며, 중앙총부에는 중법사와 수위단위,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을 둔다 하였다.

카톨릭 교황청에서는 교화의 사목지침인 「현대의 복음선교」 「교회의 선교사명」에서 교회 선교의 대외적, 대내적 선교의 지속적 과업을 상기시키면서 비신자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와 냉담자들을 위한 신앙 생활의 새로운 쇄신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바티칸 공의회 「선교 교령」에서는 선교활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 선교활동은 대외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인 선교는 복음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복음 선포적 성격을 띤다. 교회의 선교는 이 양면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교회가 밖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만 주력하고 복음화를 위한 내적 활동을 소홀히 할 때 바로 교회안에서 수적으로 교세는 증가하나 내적으로는 냉담자가 속출하게 된다하였다.

교단 정책의 빈곤과 연구실적의 가난은 교화의 침체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잠자는 교당은 잠자는 교도를 만들게 된다. 잠자는 교도교화에 대한 교화정책을 교단 수부부에서 언급하고 방향을 모색토록 적극적 교화활동을 천명해야 한다. 교당 교화를 주재하는 교무와 재가교역자 역시 희망을 주는 교화의지가 필요하다. 교당의 비전이 교도들에게 보여질 때 은혜가 충만된 교당으로 모범된 주인들이 많아진다. 전 교단적으로 「교화 정보 은행」 내지 「잠자는 교도 교화 센터」를 개설하여 교단적으로 잠자는 교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교화방법을 제시하여야 될 것이다. 교단 3대특위 청사진으로 개교 1백주년을 설계하였듯이 이제는 투명한 교단교화백서로 미래시대를 향도하는 종합 설계도를 제시하여 교단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교단정책이 한국 사회를 향도해가는 좋은 교화 사업운동으로 매스컴을 움직이는 직접교화 정책이 살아나야 현장 교화에 큰 힘이 된다. 따라서 대도시 교화사례의 보도 전략도 매우 중요한 교화의 경쟁력이라 생각된다.

III. 결론

원불교 교단의 근본 목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일체중생을 낙원으로 인도하여 낙원세계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낙원세계는 현실에서 이뤄지는 지상 낙원을 의미한다. 이렇듯 지상낙원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궁극적으로 출가·재가 교역자의 몫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전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십인일단의 교화단을 천명하신 것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의 처방이요 약제이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 하신 숭고한 인간관이자 진리관의 단면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아직도 잠자는 교도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하다. 잠자는 교도를 일깨우는 것은 진리의 소명이요, 교화자의사명이다. 잠자고 있는 그들을 찾아 나설 책임이 있음은 물론 교당으로 다시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은혜의 마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잠자는 교도를 줄이고 잠자게 된 원인과 발생의 동기를 제거하여 우리의 품에 들어오도록 교당을 은혜의 도량, 사

량과 친교의 공동체로 전환해야한다. 그리하여 이웃과 교도들을 존중하고 서로 돕고 권면해주는 신앙생활이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실천한다면 잠자는 교도란 용어를 무색케 될 것이다.

원불교 교당은 교도들의 신앙과 수행을 지도하는 법 도량으로 법회와 기도, 선과 수행, 가정의례와 교례의식, 교육 훈련, 보은봉공활동, 교화활동, 교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였다. 교당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질 때 교도들은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열정적 신앙을 갖게 된다. 교당에 주재하는 교화자인 교무가 잠 잘 때 교도는 더욱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새 시대를 향도하는 새종교로 미래사회를 열어갈 교단은 전만고 후만고한 대도회상이라 하였으나 그냥 기다릴 순 없다.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도 우린 깨어있어야 한다. 종교가 다원화 되어가도 열린 마음으로 개척하면 성취할 수 있다. 내가 죽은 신앙으로 의식마저 굳어 버린다면 타오르는 서원도 식게된다.

그러므로 교단과 교당에서는 잠자는 교도에 대한 예방으로 종합적인 교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평가에 바탕한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즉 교화단 교화, 출가제가 교역자의 재교육·훈련, 순교교화의 다양화와 교단 정책의 비전에 따른 비교도·신입교도·잠자는 교도의 반응 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한 합리적 교도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천주교 신자의 반 이상이 냉담자라고 주장한 신부가 원불교는 개교 1백주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잠자는 교도가 발생한다고 하니 놀랍다는 신부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문제 청소년의 발생은 가정에서 비롯 된다하듯 잠자는 교도의 발생은 교화자에게 있다. 그러나 교화자만의 실천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화는 전 교도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되나. 잠자는 교도 역시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식어버린, 무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때문에 잠자는 교도 교화의 방법에는 왕도가 없다. 출가·제가 교도의 끊임없는 정성으로 관심, 챙김만이 그들을 감화시킬 것이다.

잠자는 교도 문제 속에는 오늘날 사회가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들이 함께 내재해있다고 생각된다. 교단은 잠자는 교도 문제 해결의 시야를 소극적인 교세유지의 측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 구성원인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도록 앞장서서 계도하여야 될 것이다.

끝으로 잠자는 교도에 관한 교화연구발표는 보다 더 학문이 높은 분과 교화 연륜이 많은 선배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리하여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교단에서는 처음 논의된 관계로 한국 천주교 냉담자 연구자료를 인용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한 자료를 통해 더욱 고찰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모두는 21세기 원불교 교화의 결실인 일원화를 어떻게 꽃피워야 되니, 밝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1> 한국천주교회의 신도 상황

연도	신자수	대인 영세자	거주 불명자	냉담자	비율(전체 신자 대비)				증감률(전년 대비)				비고	
					①대인 영세자	②거주 불명자	③냉담자	②+③	신자	대인 영세자	거주 불명자	냉담자		
1978	1,189,863	34,313	161,687	143,326	2.88%	13.59%	12.05%	25.64%	3.99%					
1979	1,246,268	42,870	173,049	160,032	3.44	13.89	12.84	26.73	4.74	24.97	7.03	11.66		
1980	1,321,293	54,387	185,453	161,128	4.12	14.04	12.19	26.23	6.02	26.84	7.17	0.68	광주 민주화 운동	
1981	1,439,778	87,350	193,502	172,948	6.07	13.44	12.01	24.45	8.97	60.61	4.34	7.34	조선교 구 150 주년	
1982	1,578,017	107,969	207,894	180,193	6.84	13.17	11.42	24.59	9.60	23.61	7.44	4.19		
1983	1,711,367	99,979	232,202	178,902	5.84	13.57	10.45	24.02	8.45	▽7.40	11.69	▽0.72		
1984	1,848,476	119,227	246,426	202,955	6.45	13.33	10.98	24.31	8.01	19.25	6.13	13.44	한국교 회 200 주년	
1985	1,995,905	120,406	244,654	204,317	6.03	12.26	10.24	22.50	7.98	0.99	0.72	0.69		
1986	2,148,607	128,057	267,738	215,879	5.96	12.46	10.05	22.51	7.65	6.73	9.44	5.66		
1897	2,321,328	135,002	306,424	232,071	5.84	13.25	10.04	23.29	7.62	5.42	14.45	7.50		
1988	2,468,082	125,612	323,306	253,218	5.09	13.10	10.26	23.36	6.74	▽6.96	5.51	9.14		
1989	2,613,267	117,857	336,467	262,515	4.51	12.88	10.05	22.93	5.88	▽6.17	4.07	3.67	세계성 체대회	
1990	2,750,607	117,541	353,797	286,204	4.27	12.86	10.41	23.27	5.26	▽0.27	5.15	9.02		

<표2> 종교 의례 참여 빈도(1989)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
일주일 2번 이상	1.4	39.2	20.7	5.4
일주일 1번 정도	2.4	33.7	45.7	16.2
한 달에 2~3	5.8	6.0	8.6	13.5
한 달에 한번	11.1	4.4	7.9	13.5
2~3개월에 한번	17.3	2.3	2.9	0.0
1년에 1~2번	40.5	4.2	4.3	13.5
1년에 1번 이하	9.9	2.1	2.1	10.8
가지 않는다	10.1	7.0	6.4	24.3
모름/무응답	1.4	1.0	1.4	2.7
계	100.0	100.0	100.0	100.0

<표3> 종교 집회 참여도(1991)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
주2회이상	1.8	35.4	18.7	1.3	11.7	9.5	29.7
주1회정도	2.4	40.7	48.7	0.8	21.3	19.8	18.4
월1회정도	13.0	7.7	9.4	3.9	18.1	25.1	22.4
1년에 5~6회	13.1	3.4	4.1	5.7	10.1	11.8	3.4
1년에 3~4회	15.5	1.4	2.1	8.0	10.5	3.0	2.2
1년에 1~2회	34.3	3.2	5.2	18.9	18.5	7.2	8.2
참여 않음	19.9	8.2	12.1	61.5	9.8	23.6	1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4> 종교유형별 종교인구

	1985		1995		'85~95' 증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증감	증감율
총인구	40,420	100.0	44,554	100.0	4,134	10.2
종교있음	17,203	42.6	22,598	50.7	5,395	31.4
불교	8,080	19.9	10,321	23.2	2,281	28.1
개신교	8,489	18.1	8,780	19.7	2,271	35.0
천주교	1,865	4.6	2,951	6.6	1,085	58.2
유교	483	1.2	211	0.5	△272	△58.4
원불교	92	0.2	87	0.2	△5	△5.9
천도교	27	0.1	28	0.1	1	5.1
대종교	11	0.0	8	0.0	△3	△31.1
기타	175	0.4	232	0.5	57	32.3
종교없음	23,218	57.4	21,953	49.3	△1,263	△5.4

<표5> 성·연령별 종교인구

년령	종교인구비율		
	계	남자	여자
계	50.7	47.3	54.2
0~9	36.9	36.5	37.3
10~14	49.4	48.6	50.2
15~19	48.7	47.8	49.6
20~24	48.1	49.7	46.5
25~29	43.6	40.1	47.2
30~34	49.0	42.9	55.2
35~39	56.7	50.8	63.0
40~44	60.8	55.7	68.2
45~49	61.1	56.4	68.0
50~54	60.3	55.8	65.1
55~59	59.3	54.0	64.4
60+	58.8	51.2	63.8

<통계청 발표, 95년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

<표 7> 종교행사 참여비율 비교 및 인구 환산표
(95년 조사인구를 94년 비율로 환산)

종교비율	주1회 이상	월 1회 이상	1년에 1~6회	한번도 참석않음
불교	4.6% (477,841명)	21.0% (2,181,451명)	61.5% (6,388,535명)	17.5% (1,817,876명)
기독교	78.0% (6,878,792명)	84.6% (7,460,844명)	7.3% (643,784명)	8.1% (714,336명)
천주교	64.0% (1,912,368명)	73.0% (2,181,315명)	12.4% (370,625명)	14.7% (439,251명)
원불교	41.3% (35,071명)	57.1% (48,488명)	33.5% (28,448명)	9.5% (8,067명)

<법보신문 제공>

교도수 증가에 관한 고찰

-잠자는 교도 깨우기를 중심으로-

1. 이끄는 말

일반적으로 종교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는 질문은 신도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답하기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다. 부산지역에서도 원불교 신도수를 물으면 종교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어물쩍하고 넘어가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5만쯤된다고 답하곤 한다. 그런데 원불교 전체 교도 숫자가 신문에 보도된 이수 부산교구의 5만이란 교도숫자는 교단 전체의 반이 부산교구에 있다는 이론에 이르게 된다.

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종교의 가르침이 진리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인수로 교단을 평가하게 된다. 아무리 진리적인 종교라 하더라도 교인수가 적으면 군소종단으로 취급을 한다. 또한 교인수가 많아야 지역사회 활동을 잘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교단은 물론 교구나 교당에 있어서도 교도수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도수 증가 여부는 지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세 가지 요인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교도가 얼마나 많이 입교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잠자는 교도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셋째는 다니고 있는 교도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교도수는 자연히 증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새교도 불리기, 잠자는 교도 깨우기 교도의 관리를 교도수 증가의 방법으로 보고 세 가지에 대하여 개념적인 정립을 하고자 하며 특히 잠자는 교도 깨우기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적 제약과 학문적 깊이가 얕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분히 경험에 바탕해서 서술식으로 전개하였음을 밝혀둔다.

2. 새교도 불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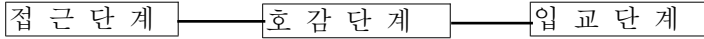
교도수 증가에 있어서 새교도 불리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새사람이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원불교에서는 입교라고 한다. 일찍이 원불교에서는 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교수 통계를 내고 있다. 또한 교도수 배가 운동으로 입교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다.

입교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불연을 맺어준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교화단에 편성하여 교도로 관리되면 출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입교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교세신장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 교도들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효과가 있다.

원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입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인연으로든 원불교와 접근이 되고 호감이 갔을 때 입교하게 된다. 교전을 보고 호감이 갔다든지 교화자의 인정에

호감이 갔다든지 설법에 호감이 갔다든지 호감이 가면 입교하게 된다. 이러한 입교의 과정을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원불교에 나와서 입교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림1>



입교를 시키는데 있어서 지역적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지역에서 원불교는 일반적인 종교이다. 원광대학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산재해 있어서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어 기성종단과 같이 평가된다. 그러나 영남지역에서는 입교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간접교화의 장인 교육·사회복지기관이 설립되어야 하겠으며 지역사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반종교로 자리를 잡아야 하겠다.

입교를 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의식을 통한 입교이다. 대개 부모가 열반하면 천도재를 지내게 되고 7번은 교당에 오게 된다. 이때 교역자가 정성스럽게 재식을 올리고 가족들에게 접근하면 친근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을 교당과 의논하게 된다. 교당에 처음 올 때가 쑥스럽고 어색한데 7번을 교당에 오게되면 친숙해져서 입교가 가능하다. 또한 발인식에 참여했던 일반인들이 원불교 의식이 질서있고 깨끗하여 좋다는 칭찬을 많이 한다. 의식이 일반인에게 주는 이미지는 무시할 수 없다. 가능하면 교도들에게 출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는 각종의식을 원불교 예법에 맞추어 할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의식에는 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원불교에 접근이 된다. 이때 어느 면에서든 호감을 얻게되면 입교가 가능해진다.

둘째, 유치원을 통한 입교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자모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달에 한 번은 부모들이 유치원에 오게 되어있고 자녀문제로 수시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소수의 자녀만 두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부모들이 극성스러울 정도다. 더욱이 시대 변화에 따른 의식 변화에서 비롯되는 자녀교육의 문제는 교사와 부모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만큼 자녀에 대한 상담의 과정은 곧 학부모 교화의 과정이 될 수도 있어서 원아들을 매개로 입교가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유치원교사들을 어린이회 교사로 활용한다면 어린이 교도 입교가 가능할 것이다. 유치원교사의 활용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교화비를 투자하여 교사의 봉급을 더 준다든지 요일을 조정한다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 유치원 졸업생모임을 하는 것이다. 매년 같은 일자를 잡고 졸업생 모임을 한다면 자기가 다닌 유치원에 대한 호감으로 원불교와 친근하게 되고 입교도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재가들의 노력이다. 교당에서는 교도들에게 왜 입교를 시켜야만 하는지 인식을 시키고 올해 새 인연을 맺을 사람을 적어내도록 한다. 그리고 그 목표 관리를 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교도들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족교화를 우선으로 가까운 인연부터 입교를 시키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입교하라고 한다면 쉽게 응하지 않으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입교를 권장하면 비교적 쉽다. 부산 교구에서는 재가들이 앞장서서 삼·하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다. 원기 80년 중법사래방 부산대법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원불교를 최소한 무당같이 생각하는 않게 되었다. 개 교당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던 사람들이 K. B. S홀에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원불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교역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일이다. 원불교는 인사제도의 특징으로 한 지역에

오래 살지 않기 때문에 지역인사들과 교류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 지역사회에 원불교가 소개될 뿐만아니라 지역정보를 통하여 교도들의 상담에 적절한 답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교도들이 교무에 대한 고마움이 더할 것이며 지역인사들과 교류를 통하는 가운데 자연스런 교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입교도하게 된다.

여섯째, 문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속에는 관등의 문화가 있다. 원불교의 독창성을 내세워 단절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현장에서 느낌은 달랐다. 교도들이 등을 만드는 것은 정성이 있었으며 단의 화합도 되었고 일반인들에게 등불을 밝히자고 등표를 달라고 자진해서 나섰다. 입교원서를 주민과 접근이 된다면 입교의 첫단계라고 생각한다.

일곱째, 강습회를 통한 입교이다. 교도중에 몇 명은 강습회에 참석하여 인과법문을 듣고 입교하였다고 한다. 설법을 잘하시는 법사님을 초빙하여 강습회를 열게되면 법문 들으러 가지고 옆사람을 권할 수 있다. 이때 자기의 생각과 맞아들어가면 입교를 하고 교당에 나오는 예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원불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홍보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문 사이에 홍보물을 끼워 돌리면 대개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러나 혹 인연이 걸리면 그것이 인연이 되어 교당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원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원불교에서 하는 일을 적어 돌릴 필요도 있다. 부평교당에서는 직장과 가정문제 상담을 한다는 전단을 만들어 동네에 돌린적이 있다. 어떻게든 원불교와 사람들이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째는 적극적인 접근이다. 요즘 교당의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자 교무님 혼자 계시니 아무나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이다. 굳게 닫힌 문으로는 접근이 어렵고 입교로 연결도 적을 것이다. 절에는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찾아와 구경도 하고 참배도 하도록 되어있다. 처음에는 생각없이 접근했다가 호감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찾아오는 사람만 교화할 수는 없다. 좀더 적극적으로 입교할 중생을 찾아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인정으로 접근하든지 설교로 접근하든지 친목으로 접근하든지 국가정책으로 접근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법이 있을 것이다. 부산교구에서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청소년교화라는 표어를 내걸고 학교로 찾아가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동아리와 특활을 이용하여 원불교반 삼동청소년회 단전호흡반을 만들고 학교에서 교무나 지도교사가 원불교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	동아리명	교당	교무	교사	법회시간	81년	82년	비고
1	경남여고	원불교반	부산진	남성균			15	60	
2	대신여중	단전호흡반	부산		황기환			25	신설
3	동래여고	지은회	동래	양지혜		금 15:40		60	
4	동평여상	동그라미	서면	고원주	유상용	토요일 오후		30	신설
5	동호여상	요가반	양정	박진성	손호성	금 15:40		40	신설
6	부산고	원불교반	초량	유홍덕	황은적	금 15:40	70	48	
7		명상반	사직	구인덕		금 15:40		56	신설
8	성심고	선요가반	울산	구인화	오인공	금 15:50		47	신설
9	성심여상	단전호흡반	서동	이지명	박남익	목 12:40		70	
10	선화여상	단전호흡반	초량	김혜국		매월 셋째 토	70	50	
11	온산중	풍물반	울산	유홍덕			45	0	
							200	486	

<부산교구 중고동아리 현황>

교단에서는 방법적인 문제의 개발보다는 매년 입교수를 통계내고 현장의 교무들에게 입교 독려만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한때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입교 되었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가 친척들이 입교되었고 심지어는 박혁거세(법명:朴無找)까지 입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교도의 숫자는 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대신 잠자는 교도를 양산하게 되었다.

원불교의 입교와 비슷한 것이 불교의 수계요, 기독교의 영세나 세례라고 할 수 있다. 타종교에서는 입교하기 전에 예비과정을 두어 사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수계를 하거나 영세를 주는데 반하여 원불교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교가 가능하며 본인이 입교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원불교에서도 최소한 본인이 입교금은 직접내도록 하여야 하며 원불교 교리에 대한 몇일간의 강의를 들은 뒤에 원불교에 다니겠다는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입교를 시키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원불교 교도들은 집요하게 다른 사람을 입교시키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라는 술성요론 15조의 실천을 잘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서는 입교를 잘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 그 방법을 현장에서 실천해보고 문제점을 다시 연구하는 체제로 전화되어야 활발한 입교로 이어지리라 본다.

산학협동과 같이 연구기관과 교회현장이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잠자는 교도 깨우기

1) 잠자는 교도의 정의

잠자는 교도란 교당에 출석하지 않는 교도를 말한다. 교당활동을 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교당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교도를 말한다. 통상 교당에서는 교회단원수와 출석수를 구분하는데 교회단원수는 수의 1/2정도로 계산된다. 가정이나 직장의 일로 인하여 몇 번 결석하거나 한 두달 쉬는 교도는 잠자는 교도라 하지 않으며 교회단 편성에 제외된 교도를 말한다. 필자는 총교도수에서 교회단원수와 열반에 든 교도를 뺀 나머지를 잠자는 교도로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입교한 전체의 숫자에서 열반하신 분을 빼고난 나머지 교도로서 1년에 한 두 번도 다녀가지 않는, 교당에서 연락처를 모르는 교도를 말한다.

	76	77	78	79	80	81
교역자	7,533	8,533	9,135	9,806	9,738	10,192
교 당	419(14)	422(18)	425(17)	436(18)	440(18)	464(31)
기 관	98(1)	102(1)	108(1)	113(1)	122(1)	126(6)
입 교	28,400	15,274	12,889	12,230	10,737	13,948
교 도	1,175,865	1,198,127	1,218,074	1,237,430	1,255,378	1,276,607
교회단원수	54,501	55,634	57,366	51,540	51,567	44,771
잠자는교도	1,121,364	1,142,439	1,160,712	1,185,890	1,203,811	1,231,836

교역자는 전무출신 + 재가교역자(교문, 회장, 부회장, 단장, 중앙, 순교, 주무), ()는 해외수

<표1>교세총괄표

<표1>에서 보면 매년 교도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회단원수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매년 잠자는 교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잠자는 교도를 깨우지 않고는 교도수는 허수에 불과할 뿐이다. 새인연을 맺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인연이 들어와 모두 잠자버린다면 밀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를 바 없다. 그리하여 잠자는 교도를 찾고 원인을 제거하며 잠을 깨우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잠자는 교도의 찾기

잠자는 교도를 찾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비교적 우리 교단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입교를 하면 총부에 그 명부가 있고 입교한 교단에 원명부가 기록되어 있어서 입교자 명단을 찾기가 비교적 쉽다. 최근에는 입교사무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잠자는 교도를 찾기는 더욱 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범위사정에서 전산자료가 나왔을 때 특신급 이상의 교도가 연락처가 없음을 많이 발견했다. 교무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자기교당에 입교가 되어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교도가 많이 있었다. 보통급 교도를 교당별로 전부 출력시킨다면 잠자는 교도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원명부를 찾든 전산자료를 찾든 자기 교당에서 입교한 모든 사람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면 잠자는 교도를 모두 찾을 수 있다.

3) 잠자는 원인

잠자는 교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잠자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잠자는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입교가 너무 쉽다는 것이다. 서품 14장에 보면 대중사님께서 범명을 주실 때 세속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죽었고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다. 여기에 근거하여 범명의 의의를 살펴본다면 원불교를 만나 새롭게 삶을 시작하겠다는 증표라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입교하여 다녀보다가 원불교의 가치관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에게 정식입교를 시키고 범명을 주어야 옳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입교를 시킨다면 찾아가지 않은 입교증이 경상 속에 쌓여갈 것이고 잠자는 교도수만 증가할 것이다.

둘째, 고3때 잠자기 시작한다. 교당에 오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고 이성의 친구를 만나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교당을 쉬도록 한다. 이러한 생각은 교도들 뿐만 아니라 교무들에게도 편만해 있어 고3이 되면 교당에 안나오는 것이 교화자나 교도들에게 당연시되고 있다. 그리고 타지로 대학에 가거나 교무님이 바뀌게 되면 잠지게 된다. 또한 대학에 다니다가 군대에 가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치고 돌아오면 예전에 다니던 교우들이 없으므로 교당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잠지게 된다. 특히 청년기에 학교 직장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동이 잦아 많은 숫자가 잠을 잔다.

셋째, 이사하면 새교당에 적응하지 못하고 잠지게 된다. 새로운 지역에 이사가면 원불교가 어디 있는줄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누가 권하지 않으니까 잠지게 된다. 원불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당을 두기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보면 지역별로 교당에 다니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개념이 명쾌하지 못하다. 멀리 이사가도 자기교당 교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지역으로 교도를 넘겨주지 않는다. 자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당에 자주 오지 못하고 그러다가 교무의 인사이동과 함께 그 교도는 잠지게 된다.

넷째, 결혼을 하면 잠잔다. 결혼하여 배우자와 종교가 다를 경우 종교로 인한 갈등을 갖지 않기 위해 잠을 잔다. 여자교도가 시집을 갔을 경우 시집의 종교를 따르고 남자교도가 타종교인과 결혼할 경우에 여자의 종교를 따라 간다. 이는 평소에 우리것만 옳고 다른 것은 틀린다고 가르치지 않고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이 똑같은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교당의 운영에 불만이 있을 때 잠을 잔다. 교당을 운영할 때 회의를 거치지않고 독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교도간에 불평등 대우를 받을 때 교당을 멀리하게 된다.

여섯째, 교도간 가족간 불화가 있을 때 잠을 잔다. 특히 교도간에 금전거래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화의 원인이 되고 교당을 등돌리는 경우가 있으며 교당에 다니는 시어머

니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머느리는 교당에 오지 않게 된다.

일곱째, 어려울 때 교당에서 무관심하면 많이 흔들리고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다가 타종교에서 유혹하면 개종을 하기도 한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낮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여덟째, 교당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흥미를 잃게 된다. 교무님의 설교가 별로 와닿지 않거나 교무님의 취사가 상식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잠을 잔다.

아홉째, 교무님의 인사이드이다. 교무가 한 지역에 오래 살게되면 교도들의 가정 환경을 잘 알게되고 가족들과 언젠가는 교당으로 이끌수 있으나 교무가 이동하고 나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잠자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다.

열째, 학생·청년·일반 등 단계적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학생회에 다니다가 청년회에 가려면 어쩐지 축스럽고 청년회에 다니다 일반회에 다니면 비슷한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한다.

4) 잠을 깨우는 방안

잠자는 교도를 깨우는 것은 쉽지가 않다. 지식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상대를 설득하기란 더욱 쉽지가 않다.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잠자는 교도를 깨우는 방법이 많이 있겠으나 먼저 잠자는 교도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교당관리가 되도록 한 연 후에 깨우는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2>



잠자는 교도를 깨우는 것은 그림2와 같은 단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누가 잠자는 지 지역에 잠자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교당 출신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먼저 찾아서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깨우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회출신 모임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회를 거쳐간 사람은 매우 많다. 그러나 현재 교당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즉 잠자는 교도가 많다는 것이다. 학생회 때 열심히 다니던 교도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구분	인원수	비고
구덕촌 사람들	365	1기부터 36기까지
확인한 인원	305	
주소까지 확인	21	
이름만 확인	95	
법회에 참석하는 교도	17	개종한 사람 9명
행사참석 인원		
용두골 사람들		총인원이 몇 명인지 모른다
확인한 인원		
주소까지 확인	239	
이름만 확인		
법회에 참석하는 교도		교도라고 표명한 사람 79명
행사참석인원	89	

<표 2> 학생회출신 모임

<표2>에서 보면 구덕촌 사람의 경우 365명 중 17명만 교당에 나오고 나머지 348명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다. 용두골 사람은 자료의 유실로 총인원을 알지 못하며 확인과정에서 원

불교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79명이었다. 여기에서는 대신교당과 부산교당의 예인데 다른 교당들도 이와 유사하다. 학생때 입교하였다가 잠자는 교도의 숫자를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잠자던 사람들에게 매주 교당에 나오라면 무리다. 처음에는 학생회 출신모임을 개최하여 서로 만나게 하고 연락처를 파악하며 친교가 된 이후에 교당법회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교구는 학생회출신모임을 교구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구덕촌사람들(대신교당), 용두골 사람들(부산교당), 법운대(해운대 교당), 보은회(울산교당)가 모임을 시작하였고, 초량교당, 부산진교당 등이 준비중에 있다. 그 방법으로는 각 기수별로 대표를 정하고 기수별로 교도를 찾으면 2/3정도는 연락처를 찾을 수 있으며 1/3정도는 행사참석이 가능하다.

학생회출신 모임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당시의 명단이다. 교무들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교무진은 과거를 알지 못한다. 오직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가 정리된 교당은 거의 없다.

둘째는 잠자는 교도 깨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서울교구에서는 잠자는 교도 깨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에 잠자는 교도를 찾게하여 가까운 교당으로 연결하고자 반송용 봉투와 함께 각 교당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효과가 적다고 하더라도 한 번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부산교구에서는 재가를 중심으로 삼·하나운동이 시작되었다. 한사람이 잠자는 교도 한사람을 깨우고, 한사람 입교시키고, 한사람 후진을 육성하자는 운동인데 이런 운동이 전개되면 잠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운동이 어느 교구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전 교단적으로 원명부를 조사하여 잠자는 교도 명부를 작성하고 추적하여 연락처를 찾자는 것이다. 어느 교당이든 오래된 교당은 출석교도의 10-50배가 잠자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해서 개발되리라 보며 이런 계기가 있어야 이 분야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 원기 81년 법위사정을 하면서 모든 교도들을 전산화하여 교당을 연결한다면 많은 잠자는 교도가 깨어날 것이다.

셋째, 편지쓰기와 후보보내기이다. 연락처가 파악된 잠자는 교도들에게는 그 주의 후보를 우송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4축 2재 등을 계기로하여 전화를 걸어도 좋으나 직접 편지를 쓴다면 전화보다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무의 편지쓰기가 제일 효과가 있으나 한 교역자가 결석교도 전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어려운 것이므로 단장이 단원에게 쓰도록 하는 편이 가증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조상들을 교당에 입묘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상을 교당에 입묘하여 대재때와 제사때 교당에서 지내도록 하면 적어도 일년에 3-4회는 교당에 올 수밖에 없다. 대재를 지낼 때 일상적인 교당 행사가 아니라 자기 조상의 재를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면 대재 때는 꼭 교당을 찾게 될 것이다. 교당에 입묘된 사람의 자손은 거진출진 고축때 함께하게 하고 일반 선조전에는 입묘되지 못한 사람들을 분향하게 하면 효과가 있다. 또한 열반기념제를 교당에서 지내게 하면 교당에 오지 않던 사람도 제삿날에는 교당을 찾게되어 잠을 깨울 수 있다. 출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교단 의식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잠을 깨우는 방법이 된다.

다섯째, 연원관리이다. 필자가 보은동산 관리를 한 적이 있다. 보은동산회원이 주소가 불명일 때 연원을 파악하여 연락처를 찾으면 대부분 찾을 수 있었다. 연원이 입교만 시키면 끝날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의 길잡이로서 입교시킨 사람을 챙기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천주교의 대모)

4. 교도의 관리

새사람이 많이 입교하고, 잠자는 교도를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교도관리를 잘하여 교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물샷틈없는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교도가 없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평상시 교도관리를 통하여 잠자는 교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화단을 통한 교도관리이다. 대종사께서는 십인일단의 교화단법을 제정하시고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들이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셨다. 대종사님께서 천명해주신 10인 1단의 교화단 조직법을 우리는 아직 활용을 잘하지 못한다. 오히려 타집단과 종교에서는 이 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교도의 관리는 이 교화단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중법사님은 수위단을 교화단으로 하고 수위단은 향단을 교화단으로 하고 향단은 저단을 저단은 방단을 교화단으로하여 한 사람이 열사람에게만 공력을 들이면 어려움 없이 관리되리라 본다. 그런데 현재는 수위단원의 숫자가 10명을 많이 벗어나고 수위단의 뜻이 향단에 전달되지 않으며 저단 방단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당에서도 교무 한사람이 많은 수의 교도를 직접 관리하므로 소외그룹과 잠자는 교도를 발생시킨다.

둘째, 교당을 지역개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시간이 돈으로 계산되는 시대이다. 교통이 복잡하여 승용차를 가졌어도 시내를 다니기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대중소 도시를 막론하고 교통의 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인접에 교당을 두고 2시간 이상 떨어진 교당에 다니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잠을 자게 된다. 복잡하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도의 관리를 지역개념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도들이 이사를 하면 가까운 교당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구역별로 교당의 구역을 나누어 교당의 구역을 정하고 교도를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무가 순교를 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교도가 교당을 찾는 횟수도 늘릴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한 지역에 여러 교도가 있으므로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구역별로 교구와 지역교회협의회를 구성한 본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셋째, 교당에 취미집단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개성시대라고 한다. 각자의 취향을 살려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노래방에도 가고 합창단도 조직하며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직장을 제외한 여가의 시간을 교우들과 보낼 수 있도록 취미별 소그룹을 만들어 교도를 관리하자는 것이다. 교당사람들 마음이 좋고 취미생활을 하니 잠을 자지 않게 된다. 설령 설교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취미따라 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교당을 수행하는 곳으로만 이끌어서는 안 된다. 좌선을 해야하고 일기를 써야하고 술을 마시면 안되고 인격이 어떻고 이렇게 하게되면 귀찮고 짜증이 나며 교당을 멀리 할 수도 있다. 물론 수행도 하지만 신앙을 하는 곳이요 편안하고 재미있는 도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업장을 녹히고 복을 장만하는 집이요, 다녀만 가도 불연 맺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칠 때 법신불 참배라도 하러 올 것이다.

다섯째, 법회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대개의 교당은 일요일 오전에 한 번 법회를 개설하고 있다. 만약에 일요일에 쉬지 않는 사람이나 일요일날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당을 쉬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시간대의 법회가 또 개설되어 있다면 잠자지 않을 것이며 야회나 교전공부 법회를 개설 한다면 취향에 따라 법회에 참석할 것이다. 특히 2인 이상의

교무가 상주하는 교당은 주임교무 일반법회, 부교무 청소년법회로만 나누지 말고 교무 1인당 2회 이상의 법회를 주관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거이다. 물론 법회를 다양화하면 교도수는 한정되어있고 어느 법회도 제대로 안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원불교 법회는 많은 수가 모여야만 훌륭한 법회라고 할 수는 없다. 매주 10여명이 모여 마음대조 공부를 하는 것도 법회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교당이 상담을 하는 곳이며 이익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 교무가 직접 상담을 하여 교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이상적이겠으나 교도들을 전문분야별로 상담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거승로 판단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문제에 봉착하며 막막하기만 한다. 그런데 교당에서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교당을 은혜롭게 생각할 것이다.

5. 맺는 말

교도수가 종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교인수가 많은 것이 진리이고 교인수가 적으면 비진리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은 교인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교단운영에 있어서 교도수 증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교도수의 증가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기존의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증가하기 마련이다. 새인연을 많이 맺어 불종자를 심고 이 싹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도의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도의 관리는 대중사계서 천명해주신 교화단법을 축으로 하여야 하며 교당의 범위를 지역개념으로 변환하자는 것이다. 교당의 위치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세우도록 한 본의를 살려 지역교당으로 성장을 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관리하는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교당을 찾지 못하고 교당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교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교도를 잠자는 교도로 정의한다. 아무리 많은 새교도가 들어오더라도 잠자는 교도가 많으면 출석교도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잠자는 교도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살펴 해결할 때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교단의 특성상 교무의 인사이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으로 전출되는 데 문제가 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료 정리를 정확히 하고 후임자에게 그 자료를 인계하여 교화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계인수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도를 더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무 부교무가 한꺼번에 옮기는 것보다는 시차를 두고 이동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잠자는 교도중에는 학생회를 졸업하고 깊이 자는 경우가 많다. 이 교도를 깨우는데 있어서 교당마다 학생회추린 모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옛 동지를 한 번 보러 가자고 하면 호감이 가서 나오게 되고 나오면 연락처와 근황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잠자는 교도를 파악하고 근황을 알아야 잠을 깨울수 있을 것이다.

교단도 이제 자치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획일적인 정책의 집행보다는 교구마다 지역특성에 맞게 교화정책을 세우고 교화하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총부에서는 교구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 하는지만 점검하면 될 것이다. 총부에서 교당을 직접 챙기는 방법은 비능률적일 수 있다.

교화에 깊은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였으며 학문이 천박하여 과학적 접근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잠자는 교도에 의견이 수렴되고 교화에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교당조직과 운영

1. 교회 조직

교당 조직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회조직(신광교회)를 대략 참고해 보기로 한다.

1) 당회

당회는 교회장로로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교회 운영의 모든 결정권은 당회에서 이루어진다.(월1회)

2) 제직회

①제직회는 교회의 운영 및 집행부서로 대략 20개 부서가 있다.

(전도부, 제정부, 서무부, 사회부, 관리부, 봉사부, 홍보부, 상례부(4부), 축의부, 미화부, 제단부, 행사부, 묘지관리부, 친교부, 교육훈련부, 차량관리위원, 식당관리위원 등)

②각 부서장(부장)은 장로와 권사가 맡고 차장은 집사급에서 맡는다.

③부원은 집사이상으로 적절하게 배치하나 매년 교체된다.

④각 부서의 실질적인 사무총괄은 사무장과 사무원 2인이 맡아 처리한다. 사무장과 사무원은 유급이며 교회운영에는 일체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3) 구역장회

①신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정하고 구역장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이 맡는다. 그러므로 구역회는 우리 교화단 조직과 비슷하나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으며 이사를 가지 않는 한 평생 한구역회에 소속된다.

②구역장은 월 1회 구역예배를 인도하며(주1회) 이때 예배는 구역 신도들의 친교를 위주로 하여 성경공부를 한다.

③일정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교구를 만들고 교구장엔 목사가 임한다.(20개 구역, 목사 1인이 신도 400~500명을 관리한다.)

④구역장은 월 1회 모여 교구 목사로부터 구역예배를 잘 인도하기 위한 성경공부와 지침을 하달 받는다.

⑤구역장은 교구내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가 맡고 매년 교체한다.

⑥목사는 봄과 가을 년 2회씩 교구내 신도가정을 정기 심방한다.(구역장 권찰 대동)

4) 권찰회의

구역내에 신앙심이 깊거나 봉사심이 깊은 여자신도로서 구역 교인 가정상담과 신앙상담을 할만한 분을 임명하여 주 1회씩 구역내 신도가정을 정기순방케한다.(목요일) 매주 목요일 밤에는 교회 권찰전체가(240명) 모여 당회장이 인도하는 전도교육예배를 보고 각 교구별 모임을 갖고 목사님(교구장)에게 구역내 신도 순교상황을 보고하여 신도들의 요구를 전달한다. 교구장(목사)은 권찰들의 보고를 통해 교구내 신도들의 가정상황과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나 신앙적인 회의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은 목사가 직접 심방한다. 그러므로 권찰은 해당 구역내 신도들의 가정 생활을 한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가정심방과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권찰이라고 한다.(평생직)

5) 별도조직

①전도회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있는데 교인중에서 자원자만 자유롭게 가입한다.

②회원에 가입하며 회비를 납부하며 회비의 60%는 선교비(타교회 지원)로 지출한다.

③전도회는 애경사 돕기와 야유회 등 친목활동이 목적이되며 세대별(결혼-35-45-55-65-0)

로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며 각 회장단에서 남녀 총회장을 선출한다.

기타조직 장학회 등은 생략한다.

이상으로 볼 때 교회조직은 운영조직과 교화조직이 분명히 이원화되어 있으며 교회의 모든 운영은 장로가 주축이 된 당회에서 결정 집행하고(집사이상은 부서에 간접 참여)모든 사무 처리는 사무장이 맡아서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신도관리와 전도예배에만 전념토록 한다. 그러므로 신광교회에 소속된 신도 6천명중 주일예배 출석이 4000명인데 교역자 9명(목사 6명, 전도사 3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는 중앙교구 합동 법회 숫자보다 천 명이 더 많은 숫자인데 중앙교구 33개 교당에서 시무하고 있는 교역자수는 총 57명이다.

2. 교당조직

①이단치교

대중사님의 교화체제와 방법을 한마디로 이단치교라 말할 수 있다.

10인1단의 교화방법에 따라 교단통치의 역할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교화단 교화를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교화가 그 목적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그간 교정원이 관료체제로 운영되어 오는 가운데 행정위주의 교단운영이 되어 왔다.

이런점에서 볼 때 이단치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구자치체가 완전 시행되어야 가능하다. 교정원의 업무가 교구사무소로 대폭 이양되어 작은 총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화단의 상위인 수위단원이 교구장이 되어 교화와 교구 통치의 역할을 아울러 수행하게 될 때 이단치교가 실현되고 교화 위주의 교단운영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통치의 개념이다. 본인은 통치를 교정행정으로 이해하기 보다 의사결정과 교화단 조직관리로 이해한다.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과 교화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화를 신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②교당조직

교당조직은 교화단조직으로 일원화 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운영조직과 교화단 조직으로 이원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교당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조직을 실지 운영하여 교당성장을 통해서 평가받는 실용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대중사님의 조단법이 오늘의 교당교화에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점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범(서품6장)을 보면 교화단의 성격은 다음 세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10인 1단으로 구성해야 하며

②단장은 단원(9인)의 공부와 신앙을 지도해야 하고

③상위의 단원은 각각 하위단의 단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원칙과 이론이 실지 교화조직과 관리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 예를 몇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가령 A라는 사람이 주위의 4가족을 입교시켰다고 한다면 4가족 13명을 A단으로 편성하여 신앙과 지도를 해야 하는데 실지교당에서 단편성을 할 때는 남녀를 분리하고 노인과 젊은이 청년 학생 등을 분리시켜 편성시킨 점이고 또 단편성은 지역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단관리에 효율적인데 이렇게 하고보면 단원수를 10인 1단으로 제한 할 수 없다는 점이다.(7-15명) 또 입교는 9명을 시켰지만 아무리 교육훈련을 받아도 하위단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입교연원은 안한 사람이라도 단장이 되어 단원관리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되어야 할 것은 교화단의 이념은 천지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지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교화를 발전 성장시켜서 널리 시방증생을 제도하자는데 뜻이 있

는 것이지 조직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교화단 운영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보다 지역과 교당의 형편에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일원화 조직의 문제점

1) 현재 교당운영은 대체로 교화분과, 총무분과, 재정분과, 봉공분과, 또는 관리분과 등 4~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교당의 규모나 운영의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가감하여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화조직과 운영조직을 일원화로 연결시키자면 단원의 수가 고르게 배열되어야 하는데 만일 교화조직이 18개이고 분과가 8개 부서라고 가정할 때 소속의 분배가 고르지 못하게 된다.

2) 교화단 관리는 단원중에서 법위가 높은 교도가 맡아야 교당과 줄이 맞고 교도들의 신앙과 공부 지도를 바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각 분과장은 법위보다는 그 방면에 전문지식과 기능있는 교도가 일을 맡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단장과 분과장의 역할이 다른 점이다.

3) 교호조직과 운영조직을 일원화하고 보면 교당운영(전문인)이 교화단 교화(공부인)보다 상위조직에 있다는 점이다.

4) 교당에서 교도 상호간의 친목활동은 교당교화에 큰 바탕이 되는데 현행 교화단조직 하나로만 일원화시키면 교도들의 세대별 친목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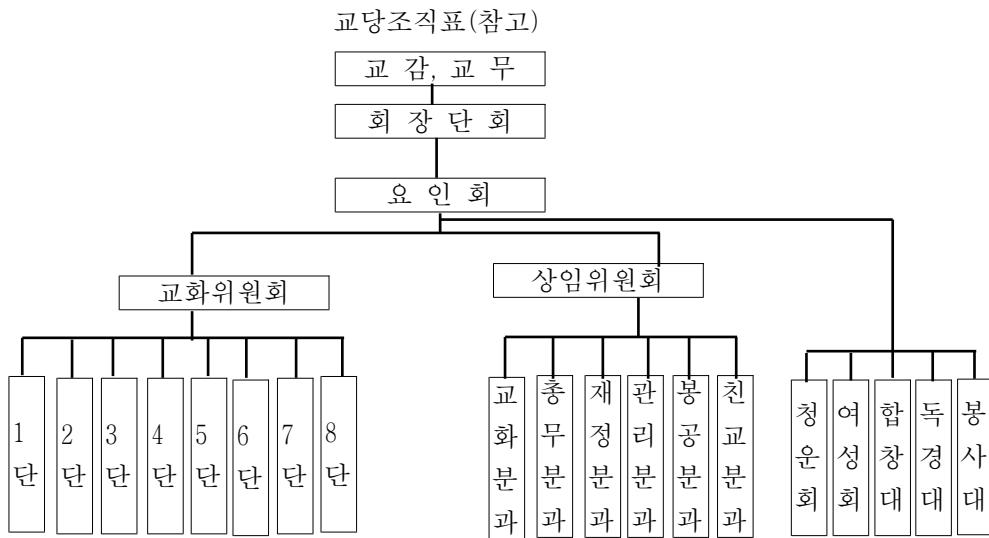
5) 교당에서는 교도들로 하여금 각기 취향에 따라 단체에 가입하여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데 현재 교화단 활동만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당에서는 교화단 조직외에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교도들이 자기의 특성과 취향에 따라 자유로이 단체에 가입하여 사회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문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예를들면

- ① 청운회는 환경살리기와 보은동산
- ② 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자선기관을 방문하고 교당행사에도 참여하고
- ③ 독경반은 천도의식이나 행사때 의상을 갖추어 독경에 참여하며
- ④ 의료봉사단은 병원에서 안내역할과 의료 접수를 도와주며
- ⑤ 독거노인돕기 - 혼자 사는 독거노인돕기봉사

이상 등등의 단체를 통해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교당이나 사회봉사에 보람을 느끼고 간접교화에 참여하며 교도 상호간의 친목에도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운영조직과 교화조직을 기능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운영조직은 회장단이나 재가요인들이 담당하고 교화조직은 해당 교무가 관리하여 그 역할분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교당운영과 교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법위연도가 짧아 단장이나 중앙은 못되더라도 운영 조직을 통하여 교당활동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당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교화단 중심 교당 교화

김 일 상 교무(분당교당)

1. 교화단의 위치

소태산 대종사가 7세부터 구도를 시작하여 19년간의 구도를 마치고 대각을 이룬 것은 원기 원년인 1916년 4월 28일의 일이었다.

진리를 깨달은 소태산 대종사는 깨달음의 견지에서 시국을 관찰하고 정신 도덕의 부활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심경을 표현하기를, 이제 나의 안 바는 곧 도덕의 정체(正體)요, 나의 목적하는 바는 곧 새회상을 이 세상에 창건하여 창생을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나, 내가 몇 달 전까지도 폐인으로 평을 받았고, 일찍이 어떤 도가에 출입하여 본 바가 없었으며, 현재의 민중은 실생활의 정법은 모르고 하위와 미신에만 정신이 돌아가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라고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와 같은 뜻과 고민으로 아홉 제자를 선택하여 바로 교화단을 만들고 그 교화단을 통해 지방 세계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교화하고자 했다.

소태산 대종사가 지방 세계 모든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교화단을 창안하여 시행한 것은 원기 2년 7월26일(양력 9월12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교화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것이고 실제로는 원기 원년 12월에 여덟 제자를 뽑을 때 이미 교화단이 출발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일체 중생을 통치하고 교화하고자 한 교화단의 조직은 그 기본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소태산 대종사의 교화단 조직의 기본은 지방세계(十方世界)의 일체 중생을 통치하고 교화하고자한 것인 만큼 그 출발도 지방세계에 두고 있다. 때문에 단장(團長)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中央)은 땅을 응하였으며 여덟 단원(團員)은 사방(四方)인 동·서·남·북과 그 간방(間方)인 동남·서남·서북·북동을 합한 팔방(八方)을 뜻하는 것인 만큼 교화단은 퍼서 말하면 곧 지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지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로 천명되어 있다. 그리고 특기할 사항은 이 모든 것이 별자리 28수(二十八宿)를 중심으로 하여 표현되고 있는 점이며, 조직의 면으로 보면 하향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향된 조직으로 그 인원을 파악하여 보면 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가 교화단으로 묶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표1>이 그것을 말한다.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는 교화단을 통해 지방 세계의 일체 중생을 통치하고 교화한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이론적으로 완벽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는 교화단 조직에 대한 그 목적도 분명히 하고 있다.

<표1>

소태산 대종사는 교화단을 조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화단을 설명했다.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간추려 보면 통치와 교화가 기본이 되지만 조금 구체화하면 몇 가지 의미가 드러난다.

교화단은 하나의 조직이라는 점이며, 이 조직은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며, 그 지도는 아홉 사람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사람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육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태산 대종사가 교화단을 조직한 이 기본정신을 교화단 운영의 기본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교화단의 의미는 이외에도 교화단의 변천을 따라 첨가되는 목적이 있는데 복족혜족(福足慧足)의 길을 열어가는 의미, 인재를 키우는 의미, 일반적으로는 의견제출을 받아 조직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늘 새롭게 하고 함이 엿보이기도 한다.

2. 교당운영과 교화단

일선교당은 교화단의 본래 목적인 통치와 교화, 공부와사업이 시행되는 최종 무대이다.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가 교화단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려 했던 목적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결정적 장소인 셈이다. 그러므로 일선교당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운영이 교화단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문제가 된다.

필자는 일단 일선교당의 운영조직과 교화단 조직이 일원화되어야 교화단의 취지에 합당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선교당의 운영과 교화단의 관계를 풀어보려 한다.

(1) 현(現) 일선교당의 조직과 문제점

가) 현 일선교당의 조직과 문제점

그동안 일선교당을 담당한 많은 교무들은 일선교당의 교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직 내지는 모임들을 만들었다. 그 실례를 보면 남자들만의 친목 모임·여자들만의 친목 모임(때로는 여자들만의 세대별 모임도 있음)·부부친목 모임·특별사업을 위한 모임·특별법회 모임·취미별 모임 등등이다.

일선교당은 이러한 친목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당의 운영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도 있다. 그 실례가 교당교의회(오인회)·봉공회·교화단회·청운회·여성회 등이다.

공식적인 조직이거나 비공식적인 조직이거나 간에 교당의 모든 조직과 모임은 교당 자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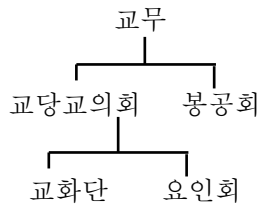
번호	단명	인원	비고	번호	단명	인원	비고
0		1	시작	6	미단	531,441	여섯자리수
1	각단	9	한자리수	7	기단	4,782,969	일곱자리수
2	향단	81	두자리수	8	두단	43,046,721	여덟자리수
3	저단	729	세자리수	9	우단	387,420,489	아홉자리수
4	방단	6,561	네자리수	10	여단	3,486,784,401	열자리수
5	십단	59,049	다섯자리수	28	진단		28자리수

교화와 교도의 공부·사업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고자 하는 데 그 기본 뜻이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비공식적인 조직 내지는 친목 모임이 많을수록 교당 교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이 교화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할 가능성을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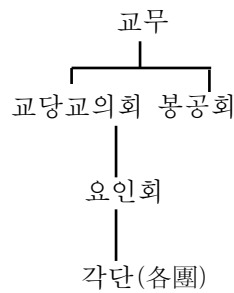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뿐만 아니라 조직도 모두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러나 교당이 정상적인 교당 교화단 중심 교당 교화 즉, 교도가 500-1,000명 선의 수준에 오르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권장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교화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 교화단 조직이어야 하는데 교화단 이외의 조직이 교당에 다양하게 만들어짐으로 하여 교화단 조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화단이 이처럼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일선교당의 운영조직은 교화조직보다는 운영에 편중하는 조직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 실태를 아래의 표로 제시하며, 교화단은 교당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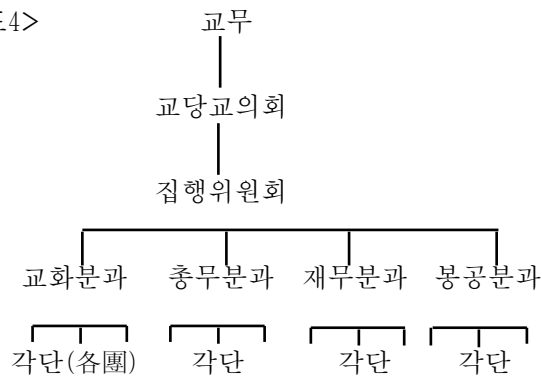
<표2>



<표3>



<표4>



<표2><표3><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선교당의 조직은 크게 두 형태로 나타난다.그 하나는 이원화된 조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원화된 조직이다. 이원화된 조직은 <표2>와<표3>의 경우이고, 일원화된 조직은 <표4>의 경우이다. 그리고 이원화된 <표2>의 경우는 그 체제면에서 볼 때 또다시 교화단과 요인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교당의 운영조직과 교화단의 조직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현상이다.

나)현 일선교당 조직의 문제점

<표2><표3><표4>의 조직은 각각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운영의 묘가 발휘된다면 교화와 통치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운영의 효율성 문제이다. <표2>와<표3>의 조직은 운영을 잘 한다고 해도 조직 자체가 통치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화가 교당의 주된 일이지만 자칫 운영의 면을 우선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2>와<표3>의 조직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화의 효율성 저하 문제이다.

<표2><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당은 이 이원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교당은 교화와 운영을 위해 임원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봉공회를 위한 임원도 따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교당 운영조직과 봉공회의 경우는 서로 다른 성격의 면이 있어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도 별도로 관리된다.

한 교당 내의 조직이 이와 같이 이원화되면 때로 운영에서 혼선이 따르는 것은 예정된 일이고 조직 상호간에 알력도 발생하여 교화와 통치에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표2>와<표3>의 예를 살펴 보겠다.

교당에서 교도회장은 교당교의회의 의장이자 교당을 대표하는 교도이다. 그리고 교당교의회는 교당마다 조직이 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조직이다. 그러나 봉공회는 교당마다 의무적으로 구성해야하는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교도 전체의 조직이 아닌 관계로 봉공회는 봉공에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교법의 정신을 봉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그러므로 교당운영의 핵심적인 조직이 아니다.

한 조직 내에 동일한 호칭이 있게 되면 공식적인 명칭을 그대로 호칭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일어난다. 즉 교도회장이나 봉공회 회장이 동일하게 회장이라 호칭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호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당교의회는 교의회대로 교당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을 계획 시행하고, 봉공회는 봉공회대로 사업이 계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당 운영에 차질이 있게 되고 알력도 발생하여 봉공회가 교화를 위한다는 것이 교도 상호간의 불목을 초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교당에는 현재의 이런 공식적인 조직 이외에도 각종 친목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 앞서 봉공회에서 조직한 문제들이 심심찮게 일어나 교도 화목을 깨트리는 일이 있고, 교도들의 힘을 응집되게 하기보다는 분산하여 교화의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교화단 원리와 상반되는 문제이다.

소태산 대중사는 10인 1단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교화와 통치를 통해 조직적으로 인류를 구제하려 했다. 대중경 서품 6장은 소태산 대중사의 그런 목적을 교화단의 이념과 목적 및 방법을 통해서 잘 밝히고 있다. 교화단의 조직은 한 사람이 아홉 사람을, 아홉 사람은 다시 아홉 사람을 만들어 퍼가는 조직이다. 때문에 소태산 대중사는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무 훈련할 빠른 방법이라 했고, 몇 억만의 수라도 지도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 공력은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현 교당의 모든 조직은 교화단법에 바탕한 조직체제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있다. 교화단체제에 의한 교단운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 교당의 핵심 인물은 교화단의 단장과 중앙보다는 교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즉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주무 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교도의 모델로 자리하기도 한다. 이에따라 교도들의 의식은 자연 교화단 보다는 교당운영면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결과를 낳아 교당은 운영되어도 교화는 진전이 없는 결과를

낡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때로 일선 교당에서 교당의 조직 구조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주무가 높습니까 아니면 단장이 높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말이 간간히 일어난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우리의 현실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2)교당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필자는 현 일선교당의 조직과 문제점에서 현행 일선교당의 조직형태를 사례로 제시하고 그 문제점으로 이원화된 조직과 교화단의 원리에 상반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렇다면 앞서의 문제점을 풀고 교당의 운영과 교화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교당의 조직을 변화 시켜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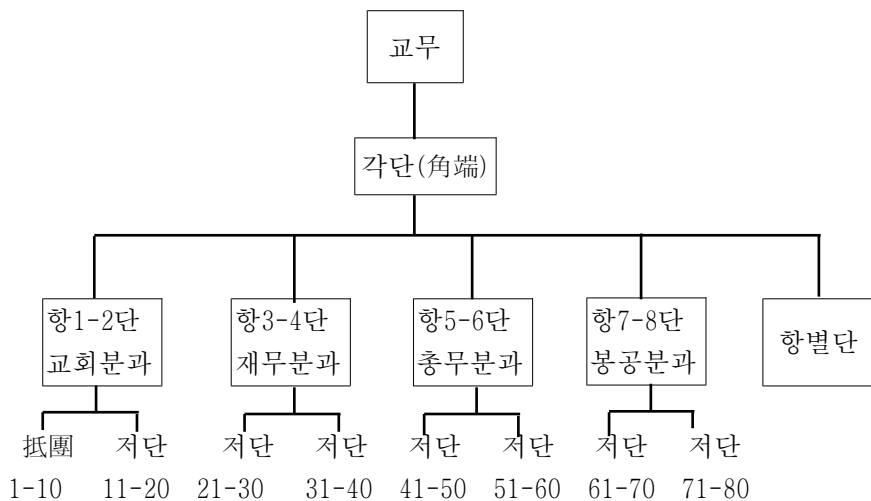
필자는 교당조직의 바람직한 형태는 교화와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일원화 체제로써 교화단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화단의 구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화단은 각단(角端)에서 출발하여 →항단(亢團)→저단(低團)→방단(房團)→심단(心團)→미단(微團)→기단(箕團)→두단(斗團)→우단(牛團)→여단(女團)으로 이어져 맨 마지막으로 진단(診團)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원리는 이미 앞의<교화단의 의의>에서 대체로 밝혔기 때문에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당 교도의 적정수를 700-1,000명으로 할 때 교화단 조직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단(角端)의 이원은 기초단으로 10명이다. 그러나 각단이 1개 단이 되면 항단(亢團) 9개 단이 이루어지고 그 인원은 81명이 된다. 그리고 항단이 9개 단이 되면 저단(低團) 81개 단이 이루어지고 그 인원은 729명이 된다. 또 항단의 아래 단인 저단 81개 단은 방단 729개 단이 구성되는 만큼 이하 교화단원의 인원이 6,561명이 되어 한 교당은 교도가 방단의 아래단인 심단(心團)에 이르면 교화단원은 59,049명이 된다.) 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방단의 웃단인 저단까지만 해도 교당은 적정한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불교의 교법은 교도를 훈련시켜 불보살을 만들자는데 그 본의가 있기 때문에 교당운영에 적당한 수가 되면 가까운 곳에 연교당을 만들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원리에 바탕하여 교당조직을 교화단의 구도로 도표화 하면 <표5>와 같다.

<표5>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단(角端) 밑에 향단(亢團)을 두고, 향단 밑에 저단(低團)을 두는 이른바 교화단의 본래 목적인 통치(운영)와 교화를 동시에 꾀하는 교화단 체제를 갖춘 것이다. 따라서 교화단 체제이면서 일원화된 체제이다.

<표5>에서와 같이 저단(低團)의 구성은 교화단의 원리에 입각하여 단장·중앙·단원 8명이 1개단이 되고, 향단은 저단(低團)의 다장들만 소속이 된다. 따라서 각(各) 향단은 각각 10명이 되어 2개단이 되며 통치의 면에서 교당교화의 문제를 다루는 교화분과·재무분과·총무분과·봉공분과 등의 업무를 주어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각단은 향단의 단장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기존의 체제와 비교하면 각단(角端)은 회장단의 성격을 갖으며 때로는 교규에 정해진 바 요인회로써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에서는 교화단 체제를 강조하는 만큼 권장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교당교의회는 각단의 단장과 중앙은 물론 단원에서 비롯하여 향단의 단장과 중앙, 저단의 단장과 중앙으로 통치(운영)조직화하면 된다.

문제는 단장과 중앙이 아닌 교도로 교당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용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필자의 경우 굳이 수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수용해야 한다면 범위가 단장과 중앙의 자격 기준인 특신급이 되어야 하고, <표5>에서 보는 바와 가티 무임소(無任所) 향단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발상은 교당의 교화가 철저히 교화단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3. 각단(各團) 및 단장·중앙의 임무와 역할

(1) 각단(角端)의 단장과 중앙 및 단원의 임무와 역할

가) 각단 단장의 의미

각단 단장에 대한 의미는 다음의 사항으로 정의할 수 있다.

- 1) 각단 단장의 교무를 보좌하는 교도이다.
- 2) 각단 단장은 교도를 대표하는 교도이다.
- 3) 각단 단장은 교도의 교화와 운영에 법의 정한바(사업성적 규정) 예우 외에는 무보수로 희생과 봉사의 정신에 바탕하여 직책을 수행한다.
- 4) 각단 단장은 법의 정한바 저단 단장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교도이다.

각단 단장의 임무와 역할은 아래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다.

나) 각단 단장의 임무의 역할

각단 단장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되 각단 회의를 통해 으결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각단 회의를 통해 의결된 것이라 해도 저단 회의(교당 교의회)를 거치고 결정된 사항은 교무의 재가또는 협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정해진 바 법이다.

1) 교당운영

- ① 각종 회의 주관
- ② 교산 주관
- ③ 예결산 주관
- ④ 유지운영 주관
- ⑤ 건물, 도량수호 및 관리 주관

2) 교당교화

- ① 교화행사 참여
- ② 교화단 관리 참여

3) 교당 인력관리

- ①육영생 육성 및 장학생 육성
- ②교역자 관리

4) 기관확충

- ①자선기관 설립 및 관리
- ②교육 훈련기관 설립 및 관리

5) 지역사회 봉사 주관

- ①불우 이웃 돕기
- ②지역주민의 정신계도
- ③여가선용의 길을 열어준다.

6) 섭외

- ①교당 밖의 업무
- ②교당 안의 업무

(2) 향단(亢團)의 단장과 중앙 및 단원의 임무와 역할

향단은 저단(低團)의 단장들로 구성이 되며 그 임무와 역할은 교당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집행에 관계된 사항은 향단별 모임(교화분과·재무분과·총무분과·봉공분과)을 주기적으로 갖게하여 활동하게 한다. 향단의 임무와 역할은 아래의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가) 향 1-2단(교화분과)

1) 법회준비 및 안내

법회준비와 안내는 준비와 안내로 구분이 된다.

- ①법회준지
- ②법회안내

2) 회보제작, 배포, 발송

3) 교도훈련에 관한 사항

4)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①의식
- ②행사

5) 신입교도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외교화를 위한 사항

7) 청소년 및 어린이 교호에 관한 사항

8) 교화단 관리 및 결석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순교에 관한 사항

10) 교도 애경사 관리

- ①애사
- ②경사

11) 기타 교화에 관한 사항

나)향 3-4단(총무분과)

1) 교당행사 기획 및 정리

2) 교당 교의회 사무

- 3) 교당운영 계획
- 4) 대외 업무
- 5) 타 분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다) 항 5-6(재무분과)

- 1) 예산 및 결산 업무
- 2) 유지금, 헌공금, 회사금 관리
- 3) 세무관리
- 4) 회계업무
- 5) 비품 및 집기 관리
- 6) 교산 운용에 관한 사항
- 7) 교당 건물의 수호 및 관리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라) 항 7-8단(봉공분과)

- 1) 교당봉공활동에 관한 사항
- 2) 교구 및 중앙 봉공회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항
- 4) 생협활동에 관한 사항
- 5) 환경, 재생운동에 관한 사항
- 6) 기타 봉공 및 자선활동에 관한 사항

마) 항 별단

항 별단은 무임소의 단이다. 단장과 중앙의 자격이 있거나 또는 단장과 중앙의 직책을 단이 부족한 고나계로 임무와 역할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수용하고자 하는 만큼 저단의 회의(교당교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그 단장을 각단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기위한 방편이다.

(3) 저단(低團)의 단장과 중앙의 임무와 역할

적정화된 저단의 단조직의 가장 하위 단으로 단의 기반을 형성하는 단이다. 따라서 항단이나 각단과 같이 완숙한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않다. 때문에 저단의 단장과 중앙은 그 임무와 역할이 충분히 훈련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가 교화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낙원세계가 바로 이들의 마음과 몸의 활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가) 정신자세

교화단의 단장과 중앙은 단원을 지도하는 교도이기 때문에 그 정신자세가 단원들보다 투철해야 하며 단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단장과 중앙의 정신 자세는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 단원들보다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을 믿는 마음, 즉 신심이 돈독해야 한다.
- 2) 단원들보다 교법을 실천하는 마음 즉 공부심이 철저해야 한다.
- 3) 단원들보다 공익을 위하여는 마음 즉 봉공심이 투철해야 한다.
- 4) 단원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5) 교화(전법)활동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나) 임무와 역할

- 1) 교무를 대신하여 단을 운영한다.
- 2) 단원을 순교한다.
- 3) 단원의 공부를 지도한다.
- 4) 단원을 훈련시킨다.
- 5) 단원의 상담자가 되어 준다.
- 6) 단원의 애경사를 살피어 함께 한다.
- 7) 법회나 훈련시에 단원의 출석을 권유한다.
- 8) 새 교도를 늘려 단을 키워 간다.
- 9) 단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

다) 단원관리

1) 단회

- ①매월 두 번째 주 예회가 끝난 뒤 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출석을 점검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의 형식 없는 단회를 한다.
- ②매월 1회 가정단회를 하여 단원을 관리한다.

2) 순교

- ①단원에게 연고사 생기면 단원들과 함께 순교한다.
- ②예회나 법회, 의식이 있는 가까워지는 날이 오면 전화하여 행사에 참석하도록 챙긴다. 일요 예회의 경우는 금요일쯤이 좋다.
- ③때때로 전화 순교를 한다. 서로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는 평소에 단원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예비 상담이기도 하다.

3) 상담

- ①자연스럽게 단원의 신앙과 수행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거나 그에 응한다.
- ②가족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가정생활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거나 그에 응한다.
- ③교당생활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거나 그에 응한다.

4) 애경사

- ① 단원의 경사(탄생·생일·진학·성년·결혼·진급·당선·회갑 등)에 기쁨을 함께 한다.
- ② 단원의 애사(병고·사고·낙방·좌천·사망·재·제사 등)에 슬픔을 같이 나눈다.

5) 출석 독려

- ① 모든 법회와 훈련, 의식 등에 참석을 권유한다.
- ② 모든 법회시 참석되지 않았을 때는 그 연유를 살피고 다음에는 참석할 수 있게 유도한다.

6) 새교도 맞이

새교도가 오면 단원 모두가 반갑게 맞이하되 단장과 증양은 각별히 접근하여 챙긴다.

- ① 단원이 모두 모여 환영의 인사를 나눈다.
- ② 교도 기초조사서(교도카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를 준비하여 작성하도록 권한다.
- ③ 예회 분위기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좋은 느낌이 들어 다음에 다시 오고픈 마음이

일어나게 옆에 앉아 예회 진행에 대해 안내한다.

- ④ 회보나 기타 원불교 안내물을 제공한다.
- ⑤ 예회가 끝나고 헤어질 때는 친절히 배웅하고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 ⑥ 금요일쯤 전화를 하여 예회 참석을 권하고 다시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고 정겹게 표현한다.
- ⑦ 교당의 예절에 대한 유인물을 제공하고 간단히 소개하여 준다.
- ⑧ 몇 주가 지나면 입교를 권한다.
- ⑨ 단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한다.

라) 교화단 활동

초기 교단의 교화단 활동 내용을 보면 단원의 의무라 하여 문맹퇴치·교리훈련·의례훈련·현규훈련·기타 본교 상식훈련을 제시하고 있고, 월말통신에서는 교도관리·단회·훈련·봉사·공부·연원달기·애경사·법회출석 등을 바탕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교단의 단활동 등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교화단으로 명칭화 되면서 교화단의 활동은 그 내용을 다양하게 자리잡히기 시작했다.

본 항에서는 교화단의 활동 내용이 앞서 설명한 저단(抵團) 단장과 중앙의 임무와 역할, 단원관리에 설명된 관계로 반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교화단의 활동을 구체화 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 1) 저단, 향단, 각단은 월1회 꼭 단회를 시행한다. 단회의 식순은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2) 단원들이 함께 훈련한다.
- 3) 단원들이 함께 봉공활동을 한다.
- 4) 연원을 늘려 간다.
- 5) 단원들의 애경사에 시간과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 6) 사종의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때때로 안내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 7) 예회(법회)에 함께 출석한다.

마) 저단의 단장과 중앙이 주의하고 금기할 사항

1) 주의 사항

- ① 매주 화요일까지 단원의 결석 사유를 교무에게 보고한다.
- ② 단장, 중앙의 훈련에 빠지지 않는다.
- ③ 매월 1회 가정을 순회하며 단회를 하되 음료수 정도만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식사를 해야할 경우는 국수 정도로 한다.
- ④ 새 교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 ⑤ 단회의 결과를 교무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⑥ 예회 때에는 단원보다 일찍 참석하고, 단원의 출석을 점검해야 한다.
- ⑦ 단원들이 모였다가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교전을 봉독한다.
- ⑧ 단원들에게 봉공 정신을 깊게 심도록 한다.

2) 금기 사항

- ① 단원을 상대로 영리행위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단원을 편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③ 단회시에 과도하게 음식을 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④ 단원의 집에 너무 일찍(8시 이전) 또는 너무 늦게(오후 10시 넘어서) 전화하는 일을

가급적 삼가야 한다.

⑤ 공중사를 단독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⑥ 인심을 모으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저단(抵團) 단원의 임무와 역할

저단 단원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단원들이 단장과 중앙의 지도를 따라 공부하고 사업하는 일이다. 이는 곧 소태산 대종사가 교화단을 통해 교화와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장과 중앙이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을 교화단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임무와 역할이 있듯이 일반교도에게도 임무와 역할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극히 당연한 일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이 아무리 높고 큰 도라 해도 믿고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면 소태산 대종사의 사상은 역사 속의 한 사람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제자들을 향한 부촉의 법어에서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대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대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 일체(三位一體)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고 했을 것이다.

단장과 중앙의 임무와 역할은 자신의 믿음과 수행을 동원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임무와 역할이 되었든 보수가 없는 일이라면 누구든 선뜻 앞장서 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성을 발견하고(성불) 진리가 부여한 자신의 고귀한 능력을 모두에게 베풀어(제중) 인간 모두가 원하는 복과 지혜(知慧)를 갖추어 주고자 하는 대종사님의 자비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은 강압적인 듯 하지만 진정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면 이를 실천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념에서 일반 교도에게도 반드시 임무와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임무와 역할은 말이 다를 뿐 내용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임무가 어떤 일이 부여된 것이라 한다면 역할을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불교는 교도의 임무와 역할을 의무와 권리라 하여 네 가지 의무와 두 가지 권리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교화단원의 임무와 역할은 바로 교도의 의무와 권리로 축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임무와 역할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로 볼 때 교도의 의무사항과 상통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네 가지 의무사항으로 단원의 임무와 역할을 서술하고자 한다.

가) 조석심고의 의무

나) 법회출석의 의무

다) 보은 헌공의 의무

라) 입교 연원의 의무

4. 맺는 말

필자는 교화단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일선교당의 조직이 교화단체제이면서 일원화된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체의 접근방법으로 현 일선교당의 조직과 문제점을 살피어 그 대안으로 교당조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좀더 구체화해서 각 단(角端) 및 단장·중앙의 임무와 역할을 각 단(角端)의 단장과 중앙 및 단원의 임무와 역할, 향단(尙團)의 단장과 중앙 및 단원의 임무와 역할, 저단(抵團)의 단장과 중앙의 임무와 역할, 저단(抵團) 단원의 임무와 역할을 상술했다. 뿐만 아니라 교당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 단장과 중앙이 아닌 교도를 운영에 참여시키는 방안까지도 제시했다.

소태산 대종사는 교화단을 통해 통치와 교화를 겸하려 했었다. 그렇다면 후진인 우리는 마땅히 소태산 대종사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전심 전력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일선교당은 교화단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교단운영이나 일선교당의 운영이 교화단 체제로 철저히 운영되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교화 대상자 중심 교당운영

이선조교무(원불교대학원대학교)

I. 시작의 말

원기 100년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원불교 교화의 특유한 틀과 색깔, 향취, 목표 달성에 대한 방법의 실제에 대한 자신 있는 디딤돌이 형성해야 할 시기에 서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교당 운영에 대한 방향로를 향하여 그 계획과 실행 평가 새로운 전개 등의 작업이 진솔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기위해서 교화의 주체자들을 교화삼매 경지에 다가서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며, 여기서 교화의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서로 공유하고 잘 정리하는 것이 그 운영체계를 세워가는데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교화하는 실제적 주체자는 개인에 있어서는 개개인 자신이다. 그러나 단체를 이루고 지역의 범주를 통하여 생각해 볼때는 구성원의 뭉쳐진 기운과, 추구하는 세계에 실천 가능성에 따라 지속되어지는 힘을 가진 평교도나 예비교도 지역주민등의 민중들이 그 대상자라 본다.

그러므로 교화조직과 운영하는데 있어 00누가 00을 위하여 00에 의하여 하느냐가 초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발표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모범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교화단 조직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교화조직에 있어서 교당운영은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고자 대상자 중심의 교당운영에 대한 몇가지를 생각해 본다.

대상자 중심이란 대상자가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교화대상자란

1. 교도가 교화지역의 비교도를 위하여 마련하는 운영의 틀의 의미하며
2. 교무나 조직의 리더가 평교도를 위하여 교도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이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다.

II. 본론

1. 교화 대상자 중심의 교당운영에 초점을 맞추자.

교화현장에서 만나는 교화대상자는

첫째 : 연령별 발달에 따른 분류와

둘째: 대상자의 욕구나 교당의 환경에 따른 분류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교화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화서비스나 구성원의 목표달성에 실제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신앙적 성숙과 교화역량 배양에 목표를 둔다. 교화대상자가 교당의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당운영체계를 모색하며 대상자가 주빈이 되어 새로운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형태를 모색하는 운영체제를 모색하며 아래의 조목을 간단히 검토해본다.

- 1) 교화단 편성을 신중히 하자.

공식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조화를 생각하자.

- 2) 교당의 지도력을 저축해 가자.
- 3) 구성원의 새로운 욕구를 연구하고 그들을 위해 서비스의 채널을 마련하자.
- 4) 청소년조직, 일반조직, 특수조직의 체계를 특성화하자.
- 5) 교당창립의 역사에 따른 분석을 통해 새로운 변신을 과감히 시도하자.
- 6) 교당이나 지역중심의 활동목적을 교도 스스로 편입하여 운영하게 하며, 교도 스스로 선택하여 활동하게 하자.
- 7) 예비조직체도를 두어 일정한 교육 후 정식조직에 입단하는 제도를 강화하자.
- 8) 지역사회에 기대치에 부흥하는 교당의 이미지를 가꿔가자.

2. 교당의 비공식적 조직과 공식적 조직의 조화

교당조직에서의 공식적 조직은 공식적 조직표에 나타난 명문화된 조직을 의미하는데 교회단의 상하 조직, 교당교회회, 청소년 법회의 운영조직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비공식 조직은 출신지역 학연, 취미, 연령, 직업, 혈연, 인연 등 개인의 친분이거나 특성이 기초가 되어 형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비공식 조직은 친목집단의 성격이 주가되며 때로는 공식조직에서의 분열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반면, 공식조직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나 갈등을 해소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집단이든지 비공식적 조직과 공식조직은 언제나 표면화되지 않은 곳에도 존재하며 두 성격이 원활하게 조화 될 때 그 단체나 집단이 성숙된 성장을 가져온다. 조직에서 이러한 조화의 요청은 청소년 집단일수록 더 중요시되고 목적달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청소년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교당운영에 있어서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 짐에 따라 개선의 역할 참모역할의 조직, 보조역할의 조직 등 원만한 분화 작용이 요청된다.

교당이 창립 후 시간적 흐름이나 공간적인 흐름에 따라 공식적이 교회단 조직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비공식적인 조직이 존재하게 된다.

경영의 전문연구자들은 공식조직은 비공식 조직이 생겨나는 기반이 되지만 이미 형성된 비공식적인 조직을 무시하면서 공식적 조직을 운영하면 그 조직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교당의 공식적 조직이 창립의 목표 달성에 발전적으로 변화해 가는 데는 참모, 개선, 보조기능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비공식적 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점은 교당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조직의 관리에서 많은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저축되는 지도력

교당의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지도 능력이 요청된다.

하나는 하위조직의 운영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하나는 조직 구성원들이 “할 수 있다”,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목표하는 것보다 다 많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지도력이 요청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교당의 조직을 지도하는 지도력이 예금 통장에 돈이 저축되듯이 조직내에 저축되는 지도력으로 성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은 요청되는 지도능력 저축의 목적과는 일치되지 않는 각자의 목적을 향해 개인적 방식으로 교당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구성원간의 세밀한 인간관계와 구성원간의 자아개념 발전을 재구성하는 지도력이 지도자의 과업이 된다.

뿐만 아니라 창립연도가 오래된 교당을 정상적인 성장속도에 따라 조직이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바뀔에 따라 단조직 상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자각은 점점 흩어지고 자못 수단과

목적이 방향감을 상실하기 쉬워지므로 조직의 혁신을 위해 목적의식·사명의식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당의 최고지도자의 주요 기능이 된다.

4. 구성원의 새로운 욕구

교당운영의 구성원이란 상주하는 책임자와 운영체계상의 지도자, 교도환경에 따른 다양한 교도나 교당의 주변사람들로 구성되어 진다.

교당운영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전체 목적에 공헌하도록 의사결정, 프로그램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등이 조절되어지고 위계질서와 분업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존해가고 번영해 간다. 발전은 개체의 능력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해있는 환경과 조화되는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욕구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조직의 내용이 다른 많은 활동에 관계되는 성질을 가진다. 구성원들은 교화단 조직을 통한 일률적인 친목, 애경상의 의식보급 및 문제해결, 정보교환, 교리학습, 감각감상 및 심신작용처리 감정, 봉공활동 등의 경험을 한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통해 구성원들은 개인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누고, 외부의 급변화에 적응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욕구는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준다.

지금 시대의 교도들은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으로 어려운 것을 쉬운 것으로, 규칙적이고 규칙적인 것에서 편리한 것으로, 전체적인 것에서 개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듣는것에서 하는 것으로, 의무감에서 권리로 전양되는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도 생리적이고 안정적이며, 참여적이고, 자존적이고 자아완성적인 욕구를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교도를 관리하고 교당을 운영하는 매개체인 설교, 단회, 행사 참여, 의무이행의 시행에 있어서 은행이나 컴퓨터, 인터넷의 기구와 인간적인 만남을 이루는 형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교당의 운영책임자와 간부조직에서도 교도들 개개인이 무엇이 내가 교당을 위해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을 찾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만 받는다면 지금의 간부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일이 정직하게 평가되고 보람있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훈련을 하여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며, 교도들이 더 중요한 일에 전념 할 수 있도록 000일을 000에게 맡길 수는 없는가?를 요구하여야 하며, 구성원들은 조직내에서 할 일이 의미가 없거나 갈곳이 남아있지 않을 때는 조직을 떠나거나 목적달성에 소극적이 되므로 구성원을 위하는 방법이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되는 욕구에 대응해야겠다.

5. 청소년조직, 일반조직, 특수조직을 특성화하자.

교당조직에서 전교당이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발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여건 따라서 예술을 장려하거나 사회운동의 중심지가 되게 하거나 문화운동의 산실이 되게 하거나 노동운동이 되게 하거나 11과목별 기능이나 타종교와의 교류나 국제활동이거나, 의도화되어 조직이 양성되었으면 한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결사대 성격의 인재양성 조직이 요청되며, 교재개발, 훈련, 또는 평화운동의 홍보활동, 깨달음과 죽음의 실천,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특수성을 양성하며, 연령별 성장의 특성을 살려서 어린이시절은 특별활동 중심조직으로 운영하고, 중학교 시절은 친교 및 훈련중심으로 고등학교 시절은 미래를 체험하고 현실적 자기발견 중심으로, 청년시절은 사회적응 및 가정을 직업을 사회운동을 사랑하는 조직을 마련하며, 일반교도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수준과 취미에 맞는 특수조직이 교당의 설립목적을 실천하고 준비하는 조직이 운영되게 하되 교화단 조직의 성격을 겸한 학교조직처럼 교육과 관리와 새로운 계획이 보급되는 특성을 살려내자

6. 교당의 새로운 변신을 고감히 시도하자.

지금의 교당현황은 창립연도가 50년 이상인 교당이()%, 창립연도 10년 미만인 교당이()%, 창립연도 20년 미만인 교당이()%, 창립연도 30년 미만인 교당이()%, 40년 미만인 교당이()% 50년 이상이 된 교당이()%이다.

교당이 교도 100명 출석에 교무 2명, 재가지도자 25명, 어린이, 학생, 청년, 봉공회 및 교육기관이 운영되는 이른바 안정성 있게 발전되어진 교당은()% 이며 이들은 창립 후() 내지()년이 되었다.

교당은 그 성장에 따라서 10년 미만인 교당은 주로 어린이처럼 모범을 보이고 새밀히 공부와 사업을 교육하며 10년-20년 사이의 교당에서는 질풍노도 시절의 청소년을 기르듯이 많은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인내, 시련을 이기는 모험이 요청된다. 30년내 40년이 되어 가는 데고 성장에 변화 없거나 퇴보되어 가는 교당이라면 과감히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체계의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50년 이상이 되어 가는 교당운영에서도 사회 속에서 필요로 하는 교당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구성원의 새로운 훈련이 요청되며 조직의 분화에 대한 의도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7. 교당이나 지역중심의 활동을 목적하여 구성원의 조직을 교도 스스로 편입하며, 조직의 특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된 조직에서 신앙 수행을 하도록 과감히 조직의 폭을 열고 중앙의 지도 감정을 간편히 받도록 하되 훈련만 의무화하는 조직을 허용하여(건물 없는 교당허용) 발생하는 교도 조직을 양성하자.

8. 예비 조직 제도를 두어 일정한 교육 후 정식조직에 입단하는 제도를 강화하자. 입교전이나 입교후 예비신자 학교를 관리하는 조직을 양성하고 교도들도 예비신자양성에 교육 봉사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게한 후 정식단에 입단하되 입단의식에 신앙성의 비중을 두자.

9. 지역사회의 기대치에 부흥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며 교당운영이 실행되는가? 를 지역사회 문 조직이나 개발조직을 발표하여 평가해가자.

전북대학교는 최근 원기 82년 5월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 200여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미지 결론을 분석하였다. 이는 환경에 대한 원불교대학원 특강에서 처음 발표하였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원불교는 미래에 전망이 있는 종교이며 불교와 특별히 다르다면 이와 같다면 존재 이유가 희박한 점과 세대는 다분히 기독교이고, 원불교는 다른 민족종교에 비하여 좋은 이미지가 형성 되어가고 있으나 진리의 사회화부분은 천주교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원불교 교당의 운영체계에서 지역사회 주민이나 인사들로 구성된 개발조직이나 자문조직이 같이 운영된다면 좀더 빠른 이미지를 사회에 전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하는 운영이 될 수 있겠다.

III. 결 론

지역사회연구, 대상자연구, 구성원의 특성연구, 지도자의 지도력배양 등이 고려되어 교당이 운영되는 방향에다가 조직이나 운영의 내용이 대상자들의 참여로 대상자에 의하여 대상자를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라면 그 운영체계에서 신뢰를 얻고 신앙적 인격체로서 인류사회에 공헌하며 마음 공부하는 집단체계로서 미래환경을 이끌어 가는 교당 운영이 기대 될 것이다.

* 유교/원불교/천도교/대순진리회/대종교/증산도에 대한 이미지 조사
(응답자 167명)

	유	원불	천도	대순	대종	증산
가능 신뢰감이	84	60	12	2	7	2
성장 가능성이 큰	31	86	19	8	11	8
소멸 가능성이 큰	30	12	8	47	19	58
세계적인 종교로	44	67	14	12	12	16
문제소지 있는	14	8	3	56	16	61

*대학생 종교(불교/기독교/천주교/유교/원불교/천도교/대순진리회/대종교/
증산도/기타/무종교)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192명 응답)

	불	기독	천주	유1	원불	천도	대순	대종	증산	기타	무종
현재 종교는	9	66	32	1	1	0	0	0	0	1	82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다면	20	6	33	1	3	2	0	1	0	0	12
무종교 입장에서 다시 선택	52	58	58	6	1	0	0	0	1	0	1
가장 신뢰감이 가는 종교	35	53	64	9	2	1	0	0	1	0	2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21	59	72	8	1	1	0	0	0	0	3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15	85	68	3	2	1	0	1	0	0	4
통일운동에 기여도가 클	61	60	26	7	3	6	0	9	0	0	0
21세기 가장 큰 성장가능성	20	76	42	8	10	3	0	0	1	0	4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	3	26	0	5	2	3	47	4	40	1	1
없어도 관계없는 종교	2	10	0	12	6	7	39	8	33		4

* 종교인 별 응답 분석

	하나 더	무종교	신뢰감	사회정 의	사회 봉사	통일 운동	성장 가능성	해악	없어도
불 (9)	천주7/ 기1 무종1	불6/ 천주1	불6/ 천주3	불3/천주 4유1/기1	불4/기3 천주2	불7/ 대중1 천도1	불5/ 천주2 원1	기3/대순1 증산3	기2/대순1 증산1
천주 (32)	불11/ 기5 대중1/ 원2/ 천도1/ 무6	천주26/ 불2/무1	천주28/ 불2/원1 무1	천주29/ 기1/불1 유1	천주24/ 기6/불2	천주17/ 불6/유2 기3/원1/ 대중1 천도1	천주20/ 기5/원2 불1/무1	증산7/무1 대순5/기6 천도2 대중2	대순10 증산6/원1 유2/대중2
기독교 (66)	천주25 불7/ 원1/유1 무5	기45/ 불4 원1/ 천주7	기46/ 원1 천주10/ 불2	기38/원1 천주10 불2	기42/ 원1/불3 천도1 천주13	기42/불8 천주3 천도2	기47/불2 천주2/원1 유3/무1	증산16/ 대순18/ 기2/대중1 불2/유3 원2	증산16 대순12 대중2/원1 천도3/유5 불2
유교		유교1	유교1	천주1	천주1	불교1	불교1	대순1	대순1
원불		천주1	천주1	천주1	불1	대중1	원1	기1	대순1
기타		불1	기1	기1	천주1	물1	천도1	증산1	증산1
무종 (82)		불39/ 기13 천주24/ 유5/ 증산1	불24/ 기7 천주26 유7/ 천도1 증산1	기18/ 불15 천주28 유6/ 천도1	기33/ 불15 천주27 유3/원1 대중1	기15불/ 불37 천주6/ 유5/원1 천도2 대중6	기24/불11 천주18/ 천도2/원5 유5/증산1	대순22 기14/유2 불1 증산13 대중1 천도1	대순14 기8/ 증산9 대중4 유5/원4 천도4

